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하-’의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張 遙 慈

현대 한국어 ‘하-’의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張遙慈(장요자)

이 논문은 한국의 방언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와 그와 관련된 접미사 ‘-하-’, 그리고 ‘하-’와 관련된 용어의 활용 양상, 지역적 분포 및 통시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2장에서 동사 ‘하-’의 활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하다|해’형, ‘허다|해’형, ‘해다|해’형, ‘허다|히’형, ‘하다|하’형, ‘하다|하’형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하다|해’형은 주요 유형으로 한국의 동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해다|해’형은 주로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허다|해’형은 주로 충청남도에서, ‘허다|히’형은 주로 전라북도에서 나타난다. ‘하다|하’형은 충청도에서 나타난다. ‘하다|하’형은 주로 충청도에서 실현된다. 각 유형이 나타나는 통시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제3장에서 접미사 ‘-하-’를 ‘명사+-하-’, ‘부사+-하-’, ‘어근+-하-’의 3 부류로 나누었다. 각 부류의 활용 패러다임, 유형 및 지역적 분포와 통시적 발달 과정을 논의하였다. 접미사 ‘-하-’의 활용 유형은 동사 ‘하-’와 같고, 지역적 분포는 동사 ‘하-’와 비슷한데, 차이는 비어두인 위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 ‘하-’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봤는데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규칙 용언은 ‘많다’, ‘같다’, ‘얕다’와 ‘귀찮다, 괜찮다’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불규칙 용언은 ‘노랗다’와 같은 색채어류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활용 양상은 규칙 용언보다 불규칙 용언이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공통점은 ‘C허

다|C혜'형과 'C허다|C히'형이 모두 전라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제5장에서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명사+-하-', '부사+-하-', '어근+-하-'의 3부류, 그리고 '하-'와 관련된 용어를 비교해 보았다. 각 부류의 지역적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주요어: 동사 '하-', 접미사 '-하-', 많다, 같다, 노랗다, 활용 양상, 지역적 분포, 통시적 발달 과정

학 번: 2014-25102

차 례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1
1.2. 선행 연구.....	2
1.3. 논의의 구성.....	4
2. 동사 ‘하-’의 활용 양상	5
2.1. 활용 유형.....	5
2.2. 지역적 분포.....	7
2.3. 통시적 발달 과정.....	20
3. 접미사 ‘-하-’의 활용 양상	32
3.1. 활용 유형.....	33
3.2. 지역적 분포.....	34
3.3. 통시적 발달 과정.....	58
4. ‘하-’ 관련 용언의 활용 양상	61
4.1. 활용 유형.....	61
4.2. 지역적 분포.....	63
4.2.1. 규칙 용언.....	63
4.2.2. 불규칙 용언.....	85
4.3. 통시적 발달 과정.....	95
5. 동사 ‘하-’, 접미사 ‘-하-’, ‘하-’ 관련 용어의 비교	101

6. 결론	107
참고문헌.....	109
<中文摘要>.....	114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하-’는 현대 한국어에서 유다른 활용 양상을 보이며 이는 학교 문법에 서 ‘여’ 불규칙이라고 한다.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는 다른 ‘ㅏ’ 말음 어간 용언과 같이 ‘하-’로 실현되지만, 뒤에 아-계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다른 ‘ㅏ’ 말음 어간 용언과 달리 ‘해’(口語) 또는 ‘하여’(文語)로 실현된다. ‘하-’의 이런 활용을 또한 ‘ㄹ’ 불규칙, 혹은 ‘ㅏ’ 불규칙, ‘하다’ 불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사 ‘하-’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다른 단어나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생산력도 높다. 동사로서의 ‘하-’뿐만 아니라 ‘깨끗하-, 생각하-, 못하-’ 등 어근, 명사, 부사 뒤에 ‘-하-’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의 수도 많다. 또한 외래어를 수용할 때에도 ‘판타지하-’와 같이 ‘-하-’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는 비단 현대 한국어뿐 아니라 중세 한국어에서도 생산력이 높아, ‘만하다’, ‘굳하다’와 같이 쓰이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통시적인 변화를 겪어 ‘하-’의 모습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단어도 있다. ‘많다(<만하다)’, ‘같다(<굳하다)’, ‘노랗다(<노라하다), 파랗다(파라하다)’ 등이 이에 속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하고, 하니, 해서’로 실현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이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 동사 ‘하-’의 활용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와 결합하여 형성한 단어들(본말을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않는 것)의 활용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동사 ‘하-’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하-’와 그와 관련된 용언의 활용형에서 모음의 변화가

본고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간행된 《韓國方言資料集》(이하 《자료집》)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지역어 전사 보고서》(이하 《지역어》)를 비롯한 기존의 지역어 연구 논의에 제시된 방언 자료들이다.

1.2. 선행 연구

방언에 있어서의 ‘ㅏ’ 불규칙을 다룬 연구로는 李翊燮(1972), 朴明淳(1984, 1986), 崔明玉(1980, 1982), 趙恒瑾(1986), 朴光鎬(1983), 김봉모(1991), 김경표(2013), 김세환(2005, 2012) 등이 있다. 李翊燮(1972)는 강릉방언의 ‘ㅏ’ 불규칙 활용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된 ‘갈-’의 활용도 다루었다. 朴明淳(1986)은 거창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ㅏ’ 불규칙 활용을 면밀히 다루었다. 김세환(2012:118~122)는 청송 지역어에서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를 연구하면서 ‘하-’와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았다. 崔明玉(1980, 1982), 朴光鎬(1983), 李相信(1983), 趙恒瑾(1986), 김봉모(1991), 김경표(2013), 김세환(2005) 등은 대상 방언의 불규칙 활용을 다루면서 그 중의 일부로 ‘ㅏ’ 불규칙 활용도 함께 다룬 논의이다.

‘ㅏ’ 불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대부분 ‘하-’ 어간의 교체, 기저형의 설정, 어휘부 등재에 관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문양수(1977:16)에서는 ‘ㅏ’ 불규칙에 대해 생성 음운론에 입각하여 기저형을 설정하고 음운규칙에 의해 표면형을 도출하는데, 기저형을 ‘하-’로 설정하고, 아-계 어미 앞에서 j를 삽입한다고 하였다. 全哲雄(1983)에서는 아-계 어미 앞에 나타나는 방언형 ‘히-’를 고려하여 기저형 ‘hay-’로 설정하였고 자음어미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ha-’와 교체한다고 하였다. 박선우(2004)에서는 ‘교체 환경의 범위, 이형태의 분포, 대응 규칙 용언의 유무’ 3가지 기준에 따라 ‘ㅏ’ 불규칙은 불규칙성이 강한 불규칙이라고 하였다. 한수정(2014)

는 ‘ㅏ’ 불규칙이 모음 변화에 의한 형성이라고 하며 불규칙활용의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한편 정광(1986)에서는 통시적과 공시적, 두 가지 시각으로 설명하며 공시적으로는 기저형을 ‘haj-’를 설정하였다. 기저형을 ‘히-’로 설정한다는 또 다른 논의로는 崔範勳(1966) 등이 있다.

‘하-’의 이러한 불규칙 활용을 일컫는 용어도 어미의 변화, 활용형의 모습, 본말 어간 등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르게 불려 왔다. 宋哲儀(1995), 배주채(2000)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한 바 있다. 어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ㄷ’ 불규칙으로, 활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ㅈ’ 불규칙으로, 본말 어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ㅏ’ 불규칙으로 불려온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른 불규칙의 명칭을 참고하여 ‘ㅏ’ 불규칙¹⁾으로 부르겠다.

통시적인 연구에서는 주로 중세 한국어에서 아-계 어미 결합형인 ‘ㅎ야’와 그와 관련된 ‘ㅎ여, 히야, 히여, 히’ 등 어형이 나타나는 원인, ‘ㅎ야>히’ 변화, 그리고 ‘해’로 변화하는 과정 등에 주목해 왔다. ‘ㅎ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ㅎ-’는 기원적으로 “*히-’였기 때문에 아-계 어미 앞에서 ‘ㅎ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李賢熙 1985)와 ‘ㅎ-’의 기저형은 ‘ㅎ-’인데 여러 원인에 의해 ‘j’삽입이 일어났다는 견해(李崇寧 1988, 이광호 1985), 중세 한국어에서 공시적으로 ‘ㅎ-’는 기저형이 ‘히-’라는 견해(정광 1986, 박종희 2001)가 있다. 한편 ‘히>해’에 대해 고광모(2009), 崔明玉(1988), 최전승(1998) 등에서 여러 음운 변화를 재구하여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접미사로 쓰인 ‘-하-’의 활용 양상이나 색채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는 해당 어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1) 물론 ‘ㅏ’ 불규칙과 대응하는 ‘ㅏ’ 규칙의 아-계 어미 활용형은 중세 한국어에서 어간 ‘ㅏ’가 탈락하여 어미와 결합해서 형성하여 지금까지 사용하는 활용형이다. 이에 주목하면 소위 어간말음 ‘ㅏ’가 어간의 일부분이 아닌 어미의 일부분이므로 ‘ㅏ’ 규칙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불규칙 활용의 명칭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ㅏ’ 불규칙으로 부르겠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제2장에서 동사 ‘하-’의 활용 양상, 제3장에서 접미사로 쓰인 ‘-하-’의 활용 양상과 접미사 ‘-하-’가 동사 ‘하-’와 활용 양상에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고, 제4장에서는 기원적으로 ‘하-’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본말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재구조화된 단어들의 활용 양상, 그리고 ‘하-’와 관련된 용언들이 동사 ‘하-’ 및 접미사 ‘-하-’와 활용 양상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동사 ‘하-’, 접미사 ‘-하-’, 그리고 ‘하-’와 관련 용언의 활용 양상을 비교하며 논의하겠다.

2. 동사 ‘하-’의 활용 양상

2.1. 활용 유형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²⁾의 활용 양상이 다양하며 자음어미 앞에서는 ‘하-’ 혹은 ‘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앞에서는 ‘해(:)-’, ‘헤(:)-’, ‘히:-’ 혹은 ‘혀-’로 실현된다. 이는 공시적인 어떤 음운 규칙으로 도출할 수 없으며 어휘부에 저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동사 ‘하-’는 불규칙활용을 해 왔다. 즉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하-’로, 아-계 어미 앞에서 ‘하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의 활용형 표면형이 이와 대응에 의해 분류하자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아/어 -고, -(으)니	해(:) (hE-/hE-)	헤(:) (he-)	히:/혀
하고, 하니	①	없음	없음
허고, 허니	②	③	④

<표1>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의 활용 양상

①은 ‘하고, 하니, 해(:)서’, ②는 ‘허고, 허니, 해(:)서’, ③은 ‘허고, 허니, 헤(:)서’, ④는 ‘허고, 허니, 히:서’ 또는 ‘허고, 허니, 혀서’라는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이다.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 ‘하-’로 실현되는 패러다임이 아-계 어미 앞에 ‘해-’나 ‘히:’, ‘혀’로 실현되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위와 같은 4가지 유형 외에 재분석에 의해 나타난 패러다임이 있

2) 형용사 ‘하-’는 중세 한국어에서 ‘많다’ 또는 ‘크다, 높다’의 뜻으로 사용해 왔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사용한다. 접미사로서 쓰인 ‘-하-’는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형용사로 되기도 하고 동사로 되기도 한다.

다. 즉 ‘해고, 해니, 해서’와 같이 아-계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해-’가 자음어미 앞이나 으-계 어미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과 ‘하고, 하니, 하서’나 ‘허고, 허니, 허서’와 같이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하-’나 ‘허-’가 아-계 어미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또 《지역어》에 의하면 ‘히야, 햐’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리하면 <표2>와 같이 총 8개의 유형이 있다.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비고
1. ‘하다 해’형	하고, 하니	해(:)	《자료집》
2. ‘허다 해’형	허고, 허니	해(:)	《자료집》
3. ‘허다 헤’형	허고, 허니	헤(:)	《자료집》
4. ‘허다 히’형	허고, 허니	히(:), 햐	《자료집》
5. ‘해다 해’형	해고, 해니	해(:)	《자료집》
6. ‘하다 하’형	하고, 하니	하	《자료집》
7. ‘허다 허’형	허고, 허니	허	《자료집》
8. ‘하다 햐’형	하고, 하니	히야, 햐	《지역어》

<표2>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의 활용 패러다임

이 중에 2. ‘허다|해’형으로 보고된 지역이 적고, 3. ‘허다|헤’형이 많고, 음운사적으로도 대표성이 있으므로 ‘허다|해’형으로 묶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그림에서는 ‘ɛ’나 ‘E’로 표시하여 ‘헤-’와 구분하도록 할 것이다. 또 6. ‘하다|하’형과 7. ‘허다|허’형에 대해 아-계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은 해당 지역에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다|하’형으로 묶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동사 ‘하-’는 <표3>과 같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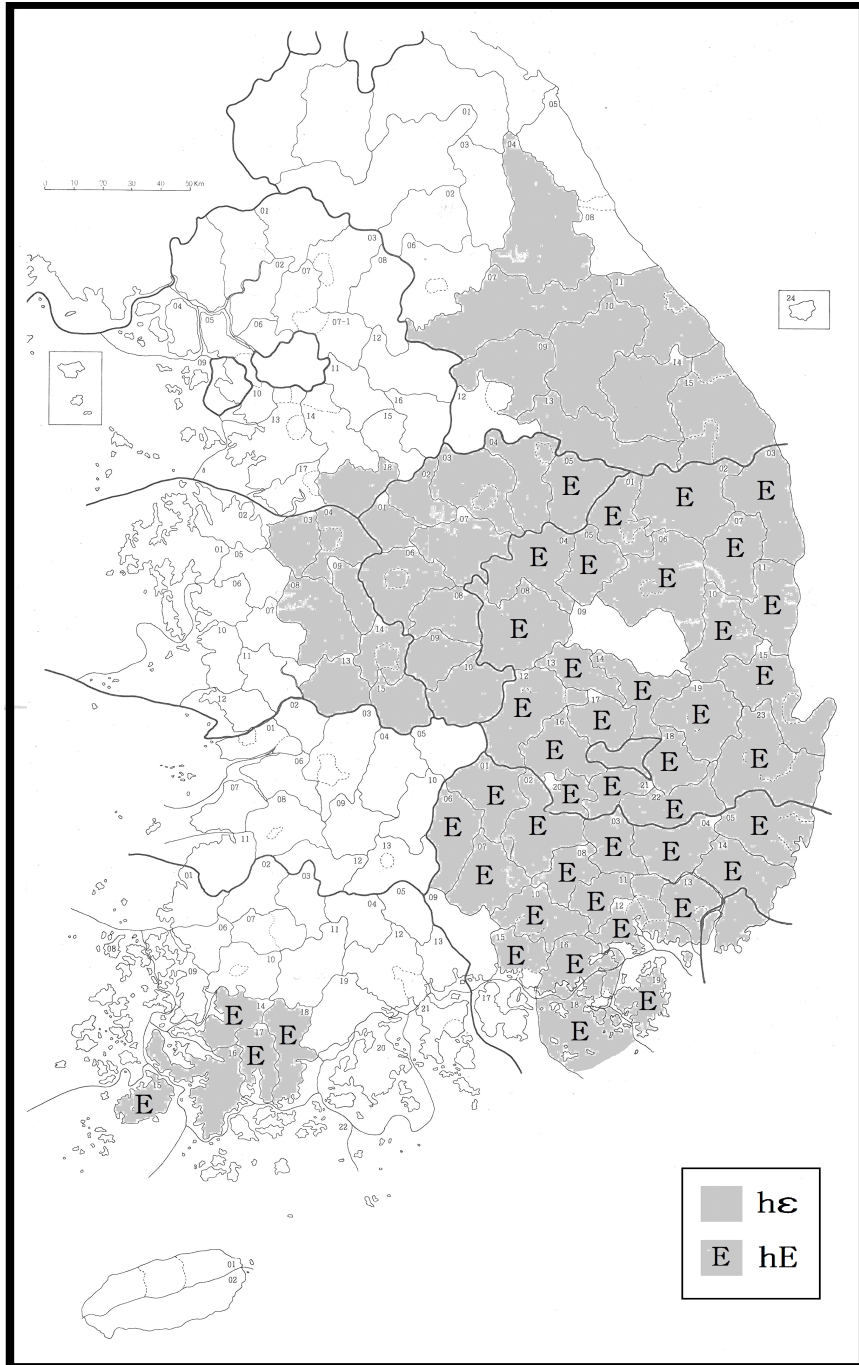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비고
I. ‘하다해’형	하고, 하니	해(:)	《자료집》
II. ‘허다해’형	허고, 허니	헤(:), 해(:)	《자료집》
III. ‘해다해’형	해고, 해니	해(:)	《자료집》
IV. ‘허다히’형	허고, 허니	히(:), 혀	《자료집》
V. ‘하다하’형	하고, 하니; 허고, 허니	하; 허	《자료집》
VI. ‘하다햐’형	하고, 하니	햐야, 햐	《지역어》

<표3>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의 활용 유형

2.2. 지역적 분포

제 I 유형인 ‘하다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하-’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hε-’ 또는 ‘hE-’로, 즉 ‘하고, 하니, 해(:)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hε-’는 /h/와 /k/가 음소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hE-’는 이 두 모음이 대립하지 않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하다해’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1>³⁾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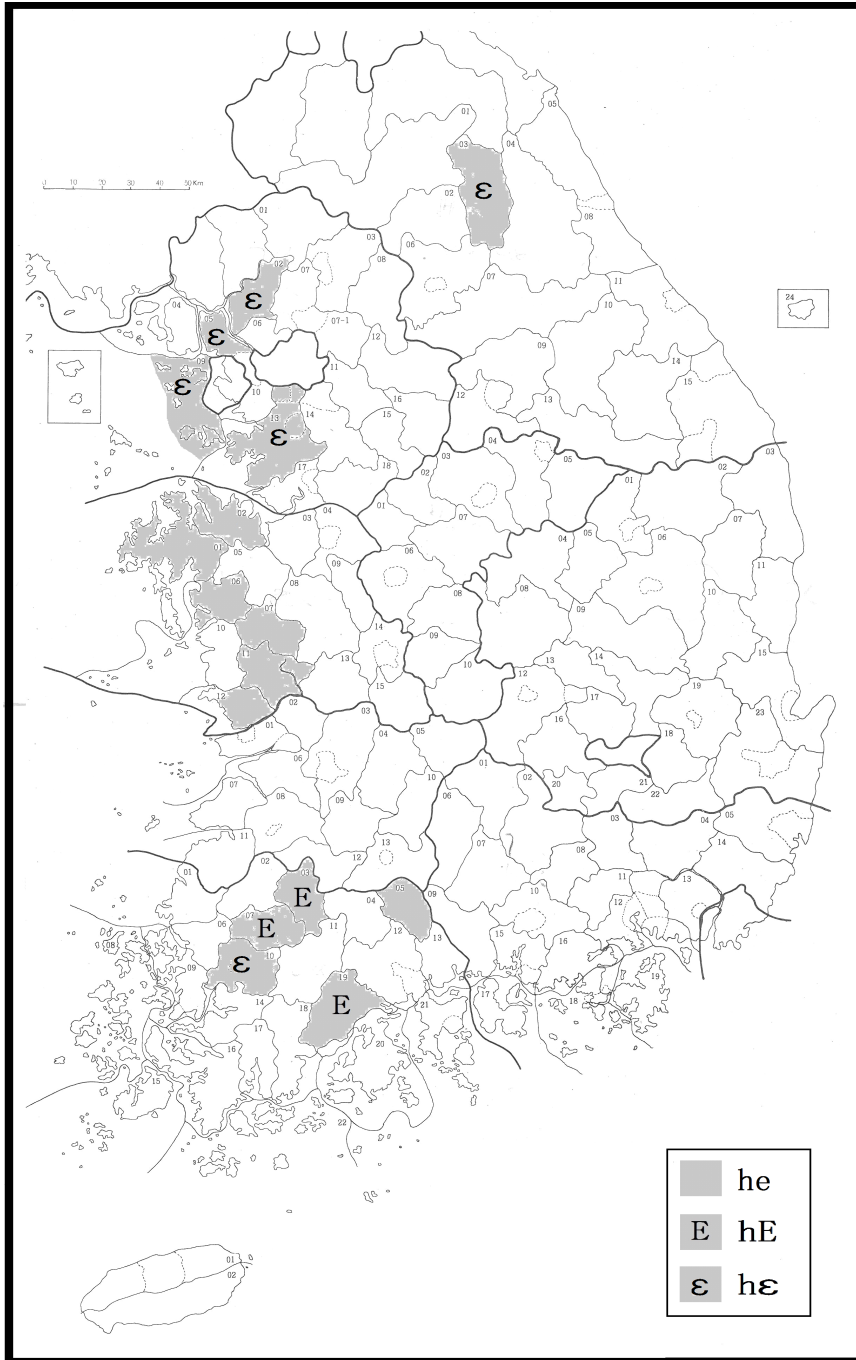
3) 강원도 홍천과 정선은 전체 패러다임 아니라 일부 활용형으로만 조사되어 있다.



<그림1> 동사 ‘하-’ ‘하디해’ 형의 분포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과 강원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동부, 전라남도 남서부에서 ‘하다|해’형이 쓰이고 있으며, ‘E’로 표시된 곳은 /H/와 /k/의 대립이 없어 ‘hE-’로 보고된 지역이다. 전라남도의 서부는 동부와는 달리 /H/와 /k/의 대립이 중화된 곳이다(방언연구회 2003:70).

제Ⅱ유형인 ‘허다|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he-’로, 또는 ‘hε-’나 ‘hE-’로, 즉 ‘허고, 허니, 헤(:)서’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hε-’와 ‘he-’의 차이는 앞선 ‘하다|해’형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유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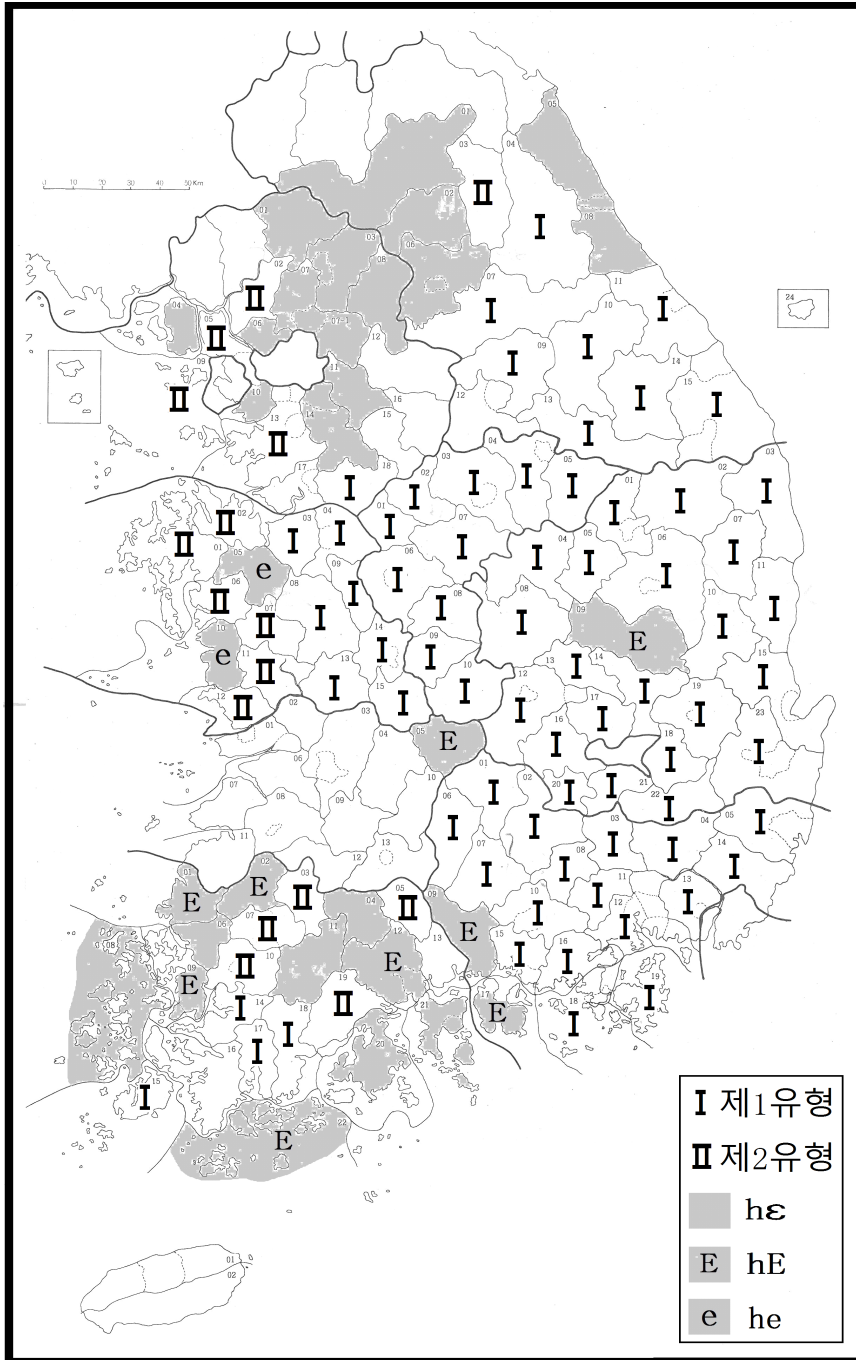
<그림2> 동사 ‘하-’ ‘허다|헤’ 형의 분포

<그림2>를 살펴보면 ‘허다|해’형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서부,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로 표시된 곳은 ‘하다|해’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서 보인다. ‘e’로 표시된 곳은 /h/와 /k/가 음소적으로 대립함에도 불구하고 ‘he-’로 실현된 것이다. ‘he-’로 실현된 것은 ‘· > ㅜ’ 변화와 관련지어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제 I 유형인 ‘하다|해’형과 제 II 유형인 ‘허다|해’형이 섞인 패러다임이 실현되기도 한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1) 하고~허고, 하니~허니, 해서
- 하고~허고, 하니, 해서
- 하고~허고, 허니, 해서
- 하고, 하니~허니, 해서
- 하고, 허니, 해서
- 허고, 하니~허니,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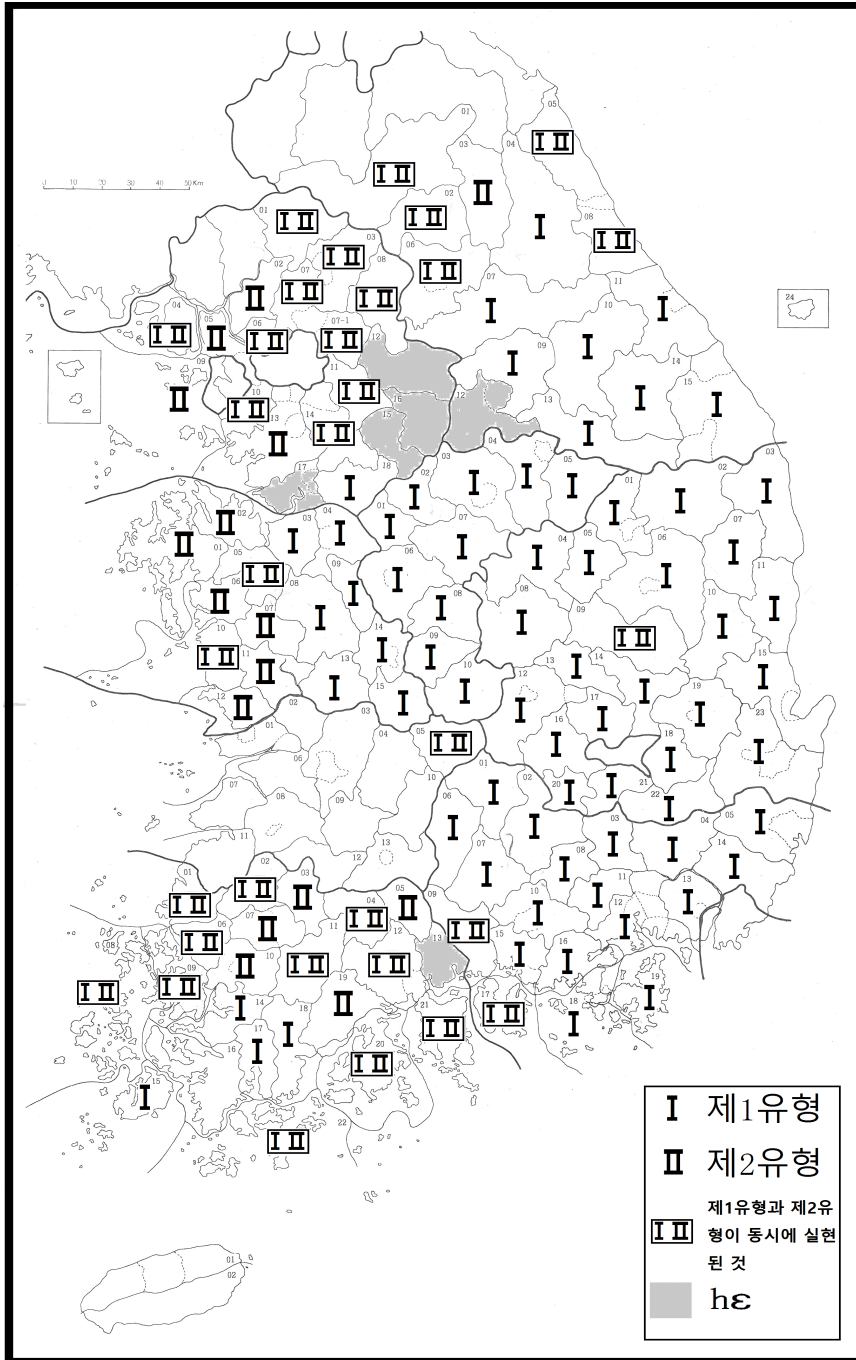
이들이 실현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을 각각 ‘I’과 ‘II’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3>과 같다.



<그림3> 동사 ‘하-’ ‘하다~허다해~헤’ 형의 분포

경기도의 동부는 서쪽의 ‘허다|해’ 형과 동쪽의 ‘하다|해’ 형의 중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는 중간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유형이 혼재된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언 접촉의 양상 중 병존(정승철 2013:218)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전라남도의 ‘hE-’와 충청남도의 ‘he-’는 <그림2>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Ⅲ유형인 ‘해다|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모두 ‘해-’로, 즉 ‘해고, 해니, 해서’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앞에 모두 ‘[he-]’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그림4>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그림4> 동사 ‘하-’ ‘해다해’ 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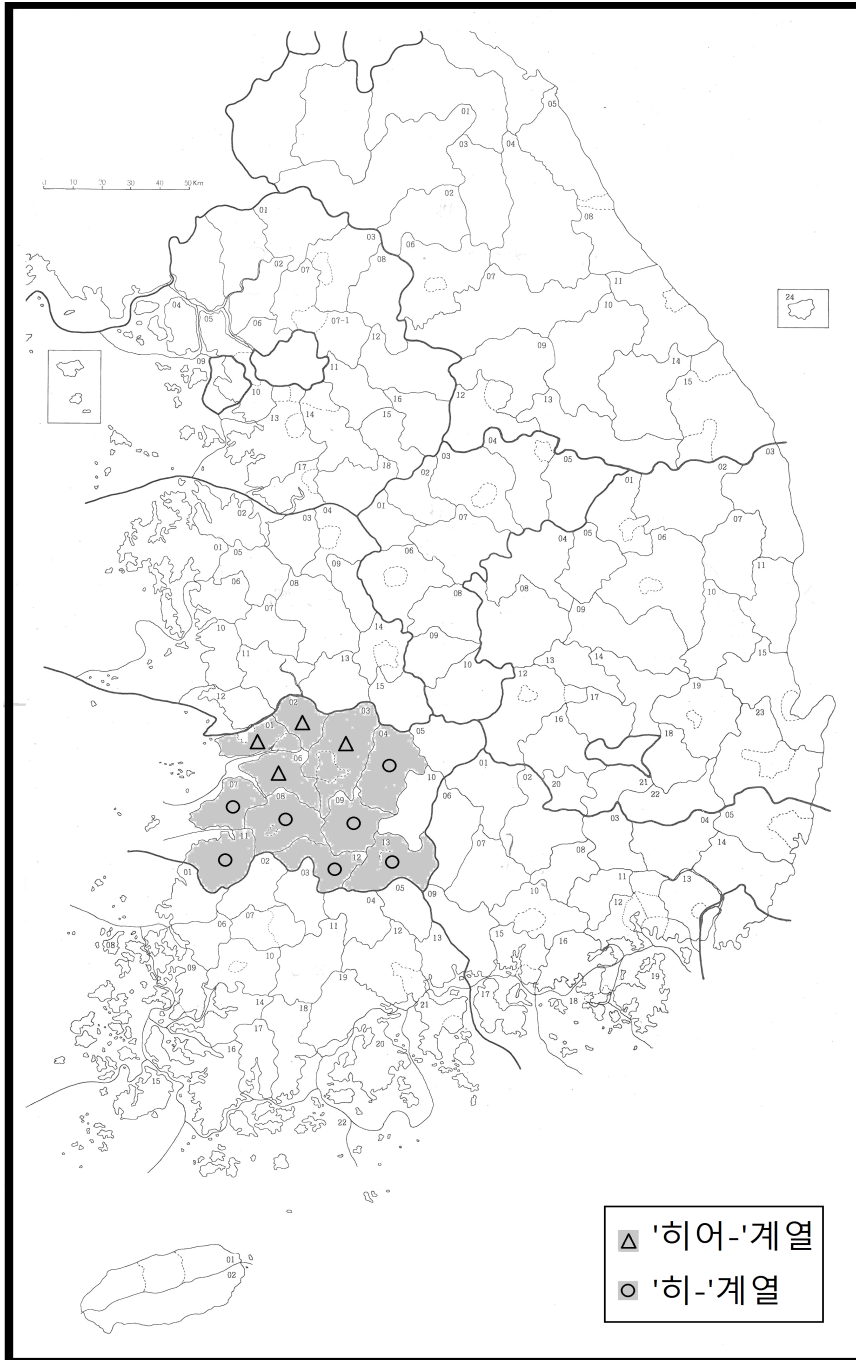
이 유형은 강원도 원성과 경기도 양평, 여주, 이천, 평택, 전라남도 광양에서 보고되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해-’와 함께 ‘하-’도 쓰이고 있고, 광양은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허-’형이 함께 쓰이고 있다. 변화의 기제는 평준화에 있겠지만, 방언 접촉의 양상으로 보면 융합 현상 중 변형(정승철 2013:23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4)

제Ⅳ유형인 ‘허다히’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히:-’ 또는 ‘히어-’로, 즉 ‘허고, 허니, 히: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전라북도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아-계 어미 결합형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군이름	‘히-’ 계열(○)	‘히어-’ 계열(△)
옥구		hjera, hiəra
익산		hjäju, hiəs'yiu
완주		hiəra
진안	hi:nninga, hijagət'a	
김제		hiət'a, hiəra
부안	hi:ra	
정읍	hi:ra	
임실	hi:s'o, hi:ra	
고창	hija	
순창	hi:s'o	
남원	hi:t'a	

<표4> 전라북도 지역 아-계 어미 앞에 ‘하-’의 실현 양상

4) ‘변형’이란 공존하는 방언형 중에 하나의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전혀 다른 어형을 만들거나 도입하는 ‘대체’와는 다른 현상이다.



<그림5> 동사 '하-' '히다히' 형의 분포

‘허다히’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 V 유형인 ‘하다하’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그리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하-’로 실현되거나 ‘허-’로 실현된 유형, 즉 ‘하고, 하니, 하서’ 또는 ‘허고, 허니, 허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동사 ‘하-’에서 이 유형으로 보고된 지역이 적어 다음과 같이 전라도에서만 나타난다.

- (2) ㄱ. 하고, 하니, 해서~하서(전라남도 해남)
- ㄴ. 허고, 허니, 해서~허서(전라북도 장수)

이들은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이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실현되는 매우 드문 예인데, 후술할 바와 같이 ‘ㅎ’ 불규칙 어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보인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 다음과 같은 패리다임이 나타난다.

- (3) ㅎ고~허곡, 허난, ㅎ연~허연~헤연(제주도)

다음 《지역어》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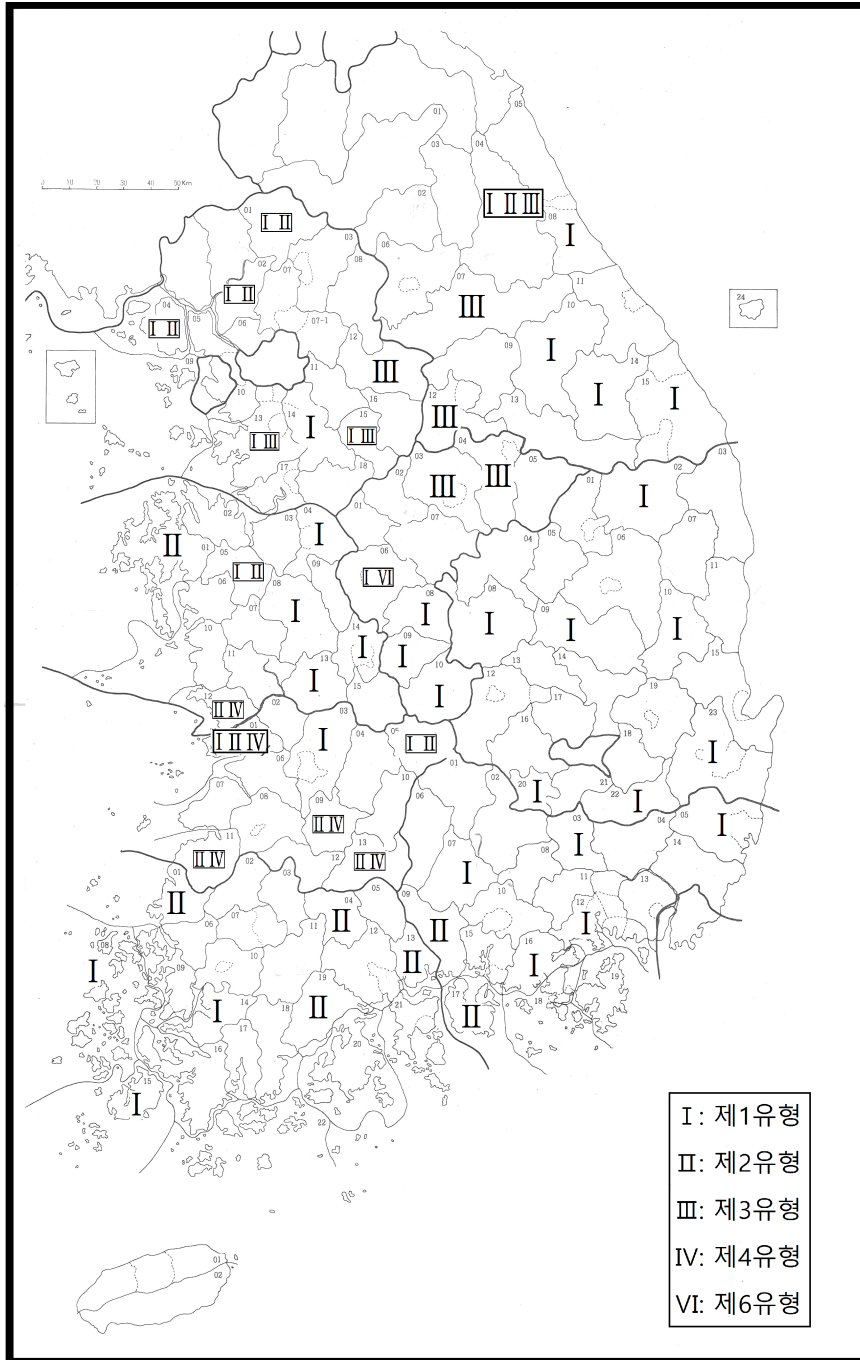
《지역어》⁵⁾에서 나온 동사 ‘하-’의 활용 양상은 여러 지역에서 《자료집》에서 보고된 것보다 더 다양하다.

- (4) 전라북도 무주: 하지, 허지, 해고; 하면, 허면; 하야지, 해서, 해서, 하야되야, 하, 허
- 충청남도 논산: 하지, 허구, 해구; 하면, 허면; 하야, 허야지, 해, 하

5) 경기도 파주, 포천, 강화, 양평, 화성, 용인, 이천; 강원 인제, 홍천, 양양, 평창, 원주, 정선, 삼척; 충청북도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청남도 서산, 천안, 예산, 공주, 서천, 논산, 대진; 전라북도 군산, 완주, 무주, 임실, 고창, 남원; 전라남도 광양, 곡성, 신안, 광양, 영암, 진도, 보성; 경북 봉화, 상주, 의성, 청송, 고령, 청도, 경주; 경상남도 창원, 울주, 산청, 하동, 창원, 고성, 남해 54개 군에서 조사되었다.

갖고, 혀

각 지역에서 나온 유형을 보면 제Ⅰ유형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부, 전라남도 서남부, 경상도에서, 제Ⅱ유형은 충청남도 서부,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에서, 제Ⅰ유형과 제Ⅱ유형이 섞인 유형, 즉 ‘하다~허다|해~헤’형은 경기도, 충청북도 예산에서 나타난다. 제Ⅲ유형은 《자료집》에서 나온 지역보다 넓으며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일부와 강원 일부,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 실현된다. 제Ⅳ유형은 《자료집》과 같이 전라북도에서만 나타난다. 《자료집》과 달리, 《지역어》에서 충청북도 청원에서 제Ⅰ유형과 같이 제Ⅵ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6>에서 보듯이 활용 유형들의 분포는 《자료집》에서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동사 '하-'의 활용 양상(《지역어》)

주요 패러다임이 아니지만 몇몇 지역에서 아-계 어미 앞에서 ‘하야, 하주는데’와 같이 ‘하-’로 나타난다. 특히 ‘-아야’ 어미 결합형에서 ‘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료집》에서 보고된 동사 ‘하-’의 ‘하다하’형, 또는 뒤에 살펴볼 접미사나 ‘하-’와 관련된 동사와 달리 주로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김옥화(2000:117)에서는 전라북도 방언에서 어미 ‘-아야, -아서, -아도, -아라, -아, -았-’을 ‘-으야, -으서, -으도, -으라, -으, -으-’과 같은 ‘으X’형으로 재구하였다. 그리고 정승철(2002:215)에서 ‘-(으)요’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데 전라북도 남부 지역(정읍·임실·장수·고창·남원)과 전라남도 전역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 전라북도 익산, 충청남도 전역(금산 제외), 충청북도 중부 지역(진천·음성·청원·괴산·보은)에서도 ‘정말이유’과 ‘뉘:유’와 같은 ‘-(으)요’형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정승철 2002:217). 비록 서술격조사 ‘-이-’에 주로 붙어서 나타나지만 다른 선행요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는 가능성도 있고 이와 같은 활용형은 《지역어》에서 다음의(5ㄱ, ㄴ)과 같이 확인되었다.

- (5) ㄱ. 충청남도 서산: ‘혼자 허요’
- ㄴ. 충청남도 대전: ‘하요’
- ㄷ. 충청남도 논산: ‘하야’,
- ㄹ. 충청북도 옥천: ‘하야되’, ‘하’
- ㅁ. 충청북도 보은: ‘하서’

또 (5ㄷ, ㄹ, ㅁ)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이 있는데 이는 후에 가서 충청도도 전라북도와 같이 다른 ‘-으X’ 어미로 확대할 수도 있다.

2.3. 통시적 발달 과정

① ‘하다|해’형

이 유형의 패러다임은 중세 시기 이후 ‘으>아’, ‘으야>애:’의 두 변화를 겪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h/와 /k/가 대립을 잃기도 하였고 장음이 단음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으>아’는 ‘으’의 제2단계 변화로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변화이며, 이 영향권에 있지 않았던 제주도 방언은 (3)에서 보았듯이 ‘으’를 유지하거나 이후 ‘어’로의 변화를 겪었다.

중세 한국어의 ‘ㅎ-’는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ㅎ야’로 나타나거나 ‘ㅎ여, 히야, 히여, 히’로 나타났다. ‘ㅎ야’로 실현된 원인에 대해 李崇寧(1988)은 모음 충돌 회피하는 데 기인한다고 하였고, 이광호(1985)는 의미 충돌 해소하기 위해 j가 삽입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李賢熙(1985:228)은 15세기 이전 시기의 형태 “*히”에서 유래한다고 하였고, 정광(1986)은 공시적 기저형 ‘히-’를 설정하였으며, 박종희(2001)에서는 잠재적 j가 있다고 하였다.

‘ㅎ야>히’에 대하여 고광모(2009)는 통시적인 변화인 ‘브암>뱀’을 근거로 ‘h₁ja>haja>hea>he:’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어 ‘해’가 나타난다고 보았고, 崔明玉(1998:120-121)에서는 ‘-아X’ 어미 앞에서 j가 삽입되는 것으로 보고 아-계 어미 앞에서의 ‘ㅎ-’는 ‘히-/h₁j-/’임을 주장하였고, 배영환(2012)는 근대 한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와 언간 자료를 살펴 ‘ㅎ야(ㅎ여)>히야(히여)>히’의 과정으로 ‘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표기 즉 발음’이라는 시각으로 표기가 달라지면 발음도 다르다는 관점에서 ‘ㅎ야>해’의 변화 과정을 추정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 외에 또 한 가지 관점은 ‘표기는 다르지만 음운론적 가치는 같다.’는 것이다.

‘ㅎ야, ㅎ여, 히야, 히여⁶⁾’와 같은 중세 한국어의 V\$jV와 Vj\$jV 구조에 대하여 이상신(1998:39)에서는 활용형과 곡용형의 VjV 연쇄의 V\$jV와 Vj\$jV 두 어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두 어형은 음운론적으로 같은

6) 16, 17세기 문헌에서는 ‘히야(히여)’의 출현빈도가 열세이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공시적으로 공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킨 이상신(2002:394)는 중세 한국어에서 반모음 j가 중성의 한 구성성분이라 보기는 어렵고 특히 모음 사이의 j는 앞뒤 어느 음절에도 속하지 않아 음절 구조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햐’와 ‘햐’는 /hɿja/와 /hɿ(j)a/로, 단지 표기상의 차이만을 드러낼 뿐 동일한 음가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햐, 햐, 햐, 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재구 할 필요없이 ‘hɿja/hɿjə>hɛ:’의 변화 과정만 생각하면 된다.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햐-~햐-’의 혼기가 나타나는 것과 기존 논의를 생각하면 이는 ‘으>아’의 변화로 인해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뒤에 전라북도에서 특수한 활용형 ‘햐:-’ 또는 ‘햐-’로 실현되는 사실은 김현(2016:15)에서 고찰한 ‘IA형’⁷⁾으로 실현된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광모(2009:159)의 기술대로 (6)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6) hɿja > hɿja > hɛa > hɛ:

[hɛa]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전이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거의 [j]와 같기 때문에 [hɛja]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김현 2016:23). [hɛa]에서 [hɛ:]로의 변화는 ‘새알심>쌀:심’, ‘새각시>새악시>색:시’, ‘배알>뱀:’, ‘배안엿>배:넛’, ‘개화주머니>개:주머니’ 등의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현 20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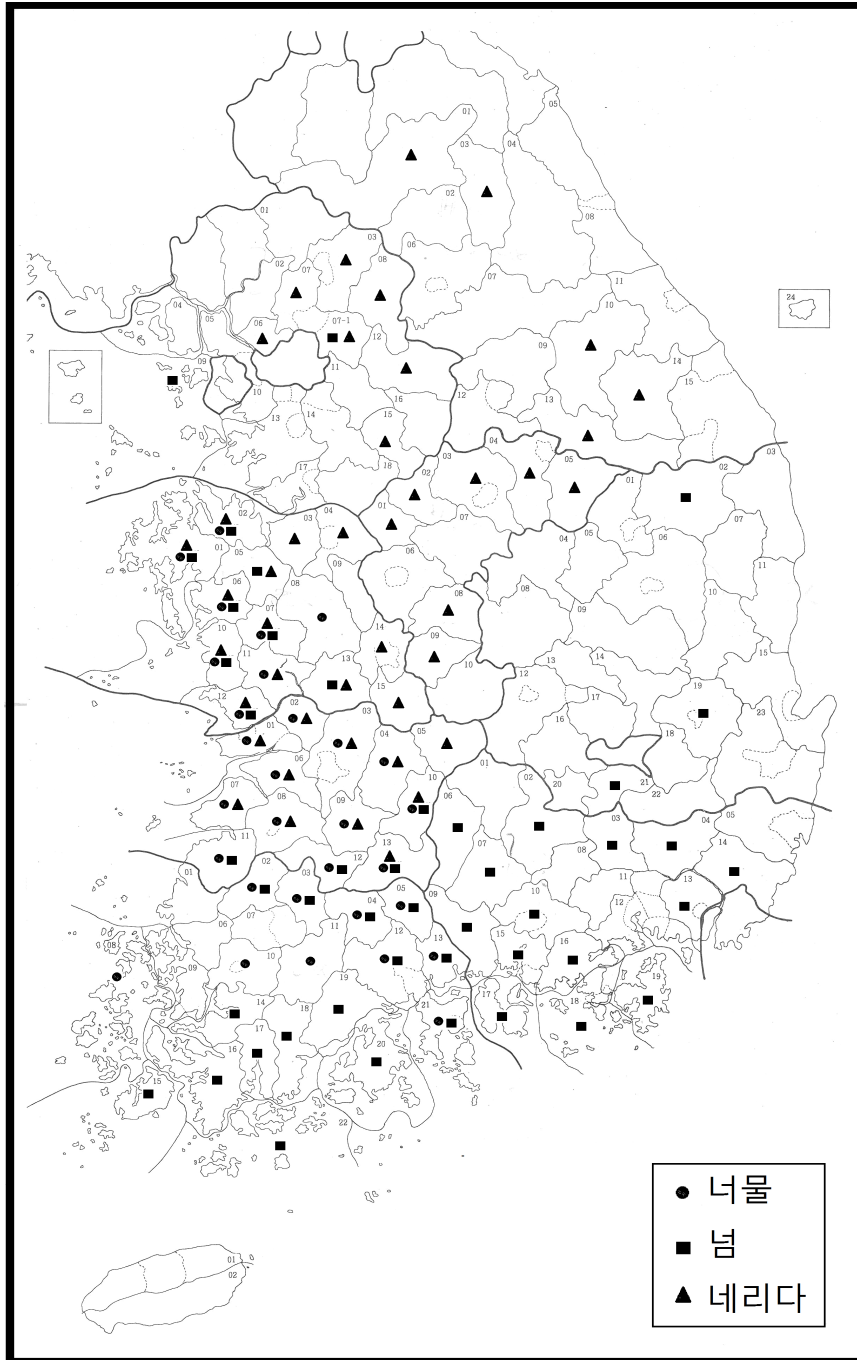
② ‘햐다햐’형

이 유형의 특징은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햐-’가 실현되

7)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된 ‘ㅈ’형과 달리 ‘이야’ 연쇄 후 ‘ㅈ(:)’로 실현되는 어형을 말한다.

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헤-’가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허-’는 ‘으>어’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계 어미 결합형의 ‘헤-’가 여느 어미 결합형에서의 ‘하-’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으>어’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 ‘으’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 중 ‘특’이나 ‘브리다’, ‘드리다’ 등은 전국적으로 ‘으>어’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에 수록된 ‘나물(<느물)’, ‘남(<눔)’, ‘내리다(<느리다)’의 세 단어에 ‘으>어’ 변화를 겪은 지역은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7> ‘으>어’ 변화의 분포

●는 ‘너물’, ■는 ‘넘’, ▲는 ‘네리다’⁸⁾가 보고된 곳인데,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으>어’ 변화가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은 ‘허다|헤’형이 실현되는 지역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아-계 어미 결합형이 ‘헤-’로 실현되는 충청남도 서부에서 유난히 ‘으>어’ 변화가 강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실현되는 ‘헤-’ 또한 ‘으>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헤-’가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으>아’ 변화를 겪은 ‘하고, 하니’ 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7) hɭja > hɔja > hea~heja > he:

아마도 위와 같이 ‘헤-’와 평행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헤아’ 또는 ‘헤야’ 연쇄에서 ‘헤:’로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변화인 ‘으>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쓰다’, ‘춧다’ 등과 같이 어간말에 ‘으’를 지니고 있는 용언 어간들은 ‘으>어’를 겪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허다’가 이들과 달리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고, 하니, 햐야’와 같이 활용을 하여 모든 활용형에 어간말의 ‘으’가 실현된다는 점이 여느 어간들과 다르지만, ‘딛다’와 같은 ‘이’ 말음의 어간도 모든 활용형에 ‘으’가 실현되지만 이들의 ‘으’가 ‘어’로 변하지는 않았다.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으’가 자음 앞에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으’가 활음 앞에서 실현된다는 점은 ‘허다’만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으>어’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으>어’ 변화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다루는 金完鎭(1978:132)에서 그리

8) ‘네리-’로 실현된 지역은 ‘e:ɛ’가 잘 변별되는 지역이므로 ‘내리->네리-’의 변화 과정보다는 ‘느리->너리->네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한 어사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으>어’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金完鎭(1978)에서는 ‘으>어’로 인해 생긴 어사는 거의 전국적으로 실현된 ‘턱, 벌, 일컴-’, 방언에는 ‘넘(<늬, 他人)’과 ‘널개(<놀애, 翼)’, 또 용언 ‘하-/허-(<흐-)(爲)’, ‘갈-/겉-(<곶흐-)(如)’, ‘내리-/네리-(<느리-)(降)’, ‘대리-/테리-(<드리-)(率)’의 예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바, 이들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음운 환경을 갖는 어사들이 ‘어’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부터 ‘아’를 가졌던 어사들은 물론이고, ‘으’를 가졌던 어사들이라 해서 모두 ‘어’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③ ‘해다해’형

이 유형은 복수 기저형이 단일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불규칙 활용을 하는 ‘하-’는 두 개의 기저형을 지니고 있어서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 앞에서는 기저형 ‘하-’가 선택되고 아-계 어미 앞에서는 ‘해-’가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8)

{하다}	하-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 앞)	⇒	해-(모든 환경)
	해- (아-계 어미 앞)		

물론 이것만으로 ‘하-’의 활용을 온전하게 기술할 수는 없다. ‘해-’와 아-계 어미가 결합하였을 경우, ‘해어’가 아닌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모음이 반드시 순행동화를 겪는다는 정보를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어체에서나 쓰이기는 하지만 ‘하여’와 같은 활용형을 전혀 도출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런 공시론적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다해’형은 (8)에서 아-계 어미 앞에서 선택되던 ‘해-’가 그 선택의 환경을 다른 어미

앞에까지 확대함으로써 결국 기저형이 ‘해-’ 하나뿐인 단일 기저형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복수 기저형 중 아-계 어미 앞의 기저형으로 단일화되는 현상은 다른 어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9) ㄱ. 충청북도 보은: 흘르지, 흘르더라; 흘르먼; 흘러서
- ㄴ. 전라북도 진안: 도우고; 도우니개; 도와

(《한국방언자료집》)

물론 이러한 현상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④ ‘허다히’형, ‘하다햐’형

‘허다히’형에서 실현되는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 결합형의 ‘허-’는 ‘으>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이 보고된 전라북도는 <그림7>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음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계 어미 결합형은 ‘히:-’ 계열과 ‘히어-’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히:-’ 계열은 전라북도의 남부에, ‘히어-’ 계열은 전라북도의 북부에서 나타난다. ‘히:-’는 비록 ‘이’ 말음 어간은 아니지만 아-계 어미 결합형임에도 어미의 모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경상도 방언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음 어간의 아-계 어미 결합형(ex. 피고, 피니, 피:서)을 연상시킨다.⁹⁾

‘히:-’는 ‘에:>이:’ 변화의 결과로 여겨진다. 비록 전라북도에서는 아-계 어미 결합형으로 ‘혜:’가 실현되지는 않지만, 충청남도 서부와 함께 ‘으>어’가 활발한 지역이고, 충청남도 서부에서 ‘혜:’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9) 이 지역은 崔明玉(1995:189)에서 2음절 어간인 ‘비비--어’가 ‘비비Y’로 실현된다고 한 지역에 포함된다.

전라북도에도 이전 어느 시기에는 ‘혜:-’가 실현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두 장모음의 ‘에:’가 ‘이:’로 고모음화하는 변화를 겪은 것이 ‘히:-’가 아닐까 싶다.

다만 전라북도가 충청남도 서부에 비해 ‘에:>이:’ 변화가 활발히 일어난 곳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김아름(2008:17)에서는 《자료집》의 ‘개:, 냇:, 셋:, 세:수대야, 떼:다, 매:다, 베:다, 세:다’의 고모음화 지역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 서부의 보령, 서천, 부여에서 고모음화 비율이 70~90%로 나타나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김제, 정읍, 고창의 60~70%가 가장 높은 정도일 뿐이다.

‘히어-’는 그 해석이 더욱 어렵다. 중세 한국어의 ‘햐’는 물론이거니와 현대 한국어의 ‘해’나 ‘하여’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음변화로는 그 설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역어》에서 나온 제VI유형인 ‘하다|해’형의 ‘햐, 햐’를 먼저 보겠다. 이 유형은 충청북도 청원, 보은, 옥천, 충청남도 논산, 대전, 전라북도 무주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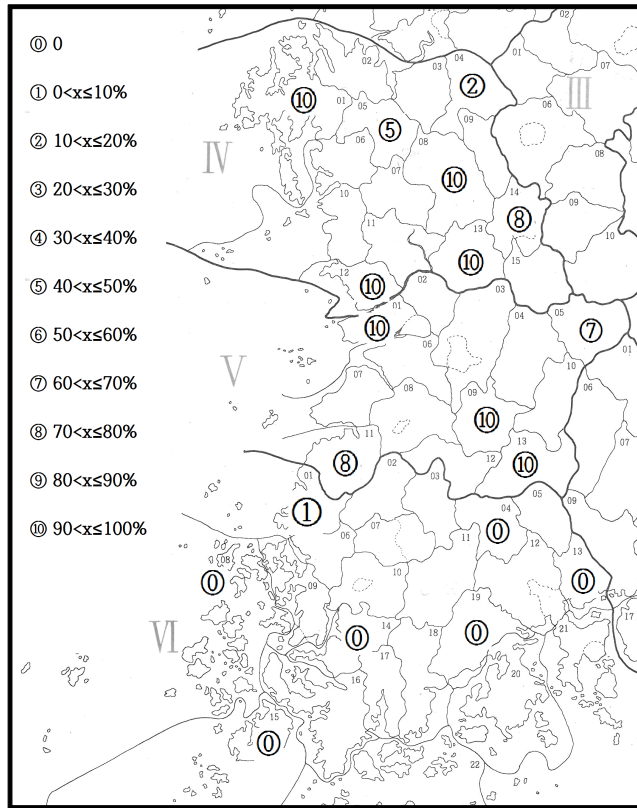
이혁화(2007)에서 충청 지역에서의 ‘애아’ 연쇄를 논의한 바 있다. 충청 지역에서 ‘뺨’은 ‘배암, 뺨:, 비암. 뺨:’과 같이 나타나고, 또한 ‘햐(爲), 샤:(漏), 간다(去)’가 발견되는데, 이는 ‘애’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혁화(2007)은 ‘ㅞ>ㅣ’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애아’ 연쇄의 문제를 생각하면 ‘애아>이아’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형태소 경계에서 ‘햐:’형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애아’ 모음 연쇄와 이에 따른 ‘애아>이아>야:’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히-’로 실현되는 지역은 ‘혀:’로 나타나며, ‘하-’로 실현되는 지역은 ‘햐:’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혀:’형도 ‘혜어>히어>혀:’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현(2016)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비고모음의 활음화라고 하며 그의 음성학적 동인이 앞에 음절 ‘애’가 약화되어 짧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혁화(2005:154)에서 그 지역에서 ‘이아’와 ‘야:’가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아>이아>야:’가 아닌 오히려 ‘애아>야:’로 된

다음 ‘이아’형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 즉 ‘애아>야:~이아’로 해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햐, 히야’가 나타나는 원인은 애아 연쇄의 ‘애아>야:~이아’ 변화로 보겠다.

제Ⅵ유형은 주로 충청북도 남부 지역과 전라북도 동남부, 전라북도 무주에서 실현된다. ‘햐’는 ‘히아’보다 더 많이 실현되며 반말체 종결어미 결합형이어야만 나타난다. 《자료집》에서 ‘혀-’로 실현된 지역이 ‘히어-’보다 적고, 또 반드시 ‘히어-’와 같이 나타난다. 또 《지역어》에서 제Ⅳ유형으로 실현된 지역은 《자료집》보다 더 많지만 충청남도 서부와 남부, 전라북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아-계 어미 앞에서 주로 ‘히-’로 실현되며, 반말체 종결어미 결합형만 ‘혀’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지역 분포상의 특징과 활용 양상들을 감안하면 ‘혀’는 아-계 어미 앞에 기저형 ‘히:-’로 된 지역이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실현된 ‘햐’형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활용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라도에서 반말체 종결어미 ‘-어/아’ 결합형에서 나타나는 ‘혀’ 또는 ‘햐’로 실현된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림8> 충청남도과 전라남도 지역어에서 종결어미 ‘아/어’의 실현 양상

반말체 종결어미 ‘-아/어’ 결합형에 대하여 《지역어》를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대부분 ‘햐/혀’로 실현되었다. ‘햐’나 ‘혀’로 실현된 비율¹⁰⁾은 각각 남원 95%, 군산 94.7%(2007)/89.5%(2012), 고창 49.9%(2008)/100%(2012), 임실 91%, 무주 33.3%(2006)/100%(2012)/50%(2013)로 나타났다. 무주에서는 11.9%의 비율로 ‘하야/하여’가 실현되었다. 남원과 고창에서는 ‘히여’가 각각 5%와 7.7%로 실현되었다. 반말체 종결어미 외의 아-계 어미 앞에서 ‘햐/혀’로 실현되는 것도 흔하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햐/혀’로 실현된 비율도 높다. ‘햐’나 ‘혀’로 실현

10) ‘-아/어야 해’ 구문에서 나타난 ‘해’는 ‘야/여’로 나타나는 것도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다.

된 비율은 각각 논산 100%/91.7%, 서천 85.8%(2007)/100%(2012), 예산 100%(2008)/0%(2013), 서산 93.3%(2009)/100%(2013), 천안 25%(2011)/0%(2013), 공주 94.8%, 대전 77.8%이다. 지도로 정리하면 <그림8>과 같다. 한 번 이상 조사된 지점은 그 수치들의 평균치를 취하였다. 《자료집》에서 ‘히-’형으로 조사되어 있지 않는 충청남도 지역과 전라북도 무주에서도 반말체 종결어미 ‘아/어’의 경우 ‘히-’로 나타난 비율이 높다. 그 외의 아-계 어미 앞에 충청남도 지역어에는 주로 ‘해’이나 ‘헤’로 실현되고 논산과 서천은 ‘혀’나 ‘히’로 실현된 예도 나타나며, 전라북도 지역어에는 아-계 어미 앞에 ‘헤-’와 ‘히-’나 ‘혀-’로 실현된다. 무주에는 주로 ‘해-’로 실현되고 고창에는 ‘헤-’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히-’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머지 전라북도 지역에는 ‘헤-’와 ‘히-’가 수의적으로 교체한다.

3. 접미사 ‘-하-’의 활용 양상

현대 한국어의 ‘하-’는 단독으로 쓰여 본동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접미사로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특히 명사, 부사, 어근과 결합하여 ‘X하-’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장에서는 ‘-하-’ 앞의 요소가 각각 명사, 부사, 어근일 때 ‘-하-’가 어미 앞에서 어떤 활용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¹¹⁾

‘명사+-하-’는 명사로서 쓰인 형태소가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생기는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밥하-, 생각하-, 일하-, 떡하-, 곱하-, 가을하-(추수하-), 나무하-, 가난하-’¹²⁾와 같은 단어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명사에 접미사 ‘-하-’가 결합하게 되면 동사·형용사의 문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는바 이때의 접미사 ‘-하-’는 명사를 동사·형용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사+-하-’는 부사로서 쓰인 형태소가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생기는 단어와 부사와 ‘하-’가 같이 쓰여 구의 성격을 띤 구성을 가리킨다. ‘못하-, 뽀족하-, 안하-’¹³⁾와 같은 단어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명사+-하-’와 마찬가지로 부사에 ‘-하-’가 결합하면 동사·형용사의 품사로 바뀐다.

‘어근+-하-’는 접미사 ‘-하-’가 어근과 결합하여 파생하는 단어를 말한다. ‘깨끗하-, 비슷하-, 시원하-, 험하-, 날감하-’¹⁴⁾가 이 부류에 속한다. ‘어근+-하-’ 구성을 가진 단어들의 품사 또한 대부분 형용사이다.

11) 본고에서는 ‘-하-’ 앞의 요소를 명사인지 부사인지 또는 어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를 것이다.

12) 《자료집》에서 조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밥하고 (있다), 안 생각했다, 일한/일하던, 떡했니, 곱하기, 가을하다, 나무하러, 가난하면도’이다.

13) 《자료집》에서 ‘못한다, 모했습니다, 안하게, 안 해(요), 뽀족하게, 뽀족하아’로 조사되었다.

14) 《자료집》에서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깨끗하게, 깨끗하군요; 비슷하다, 비슷하아서; 시원하다; 험하고, 험한; 날감하게, 날감하아’로 조사되었다. ‘날감하다’는 ‘뽀족하다’의 뜻으로 쓰여 전라도에만 나타난다. ‘날감’은 《전라방언사전》에 표제항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근+-하-’ 부류에 넣었다.

이처럼 명사, 부사, 어간에 접미사 ‘-하-’가 결합하면 동사나 형용사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접미사 ‘-하-’의 의미 특성이 동사 ‘하-’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적 유사성은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지역 분포가 유사하다는 점과 이어질 것이다. 위 세 가지 부류의 활용 패러다임에는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지역 분포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3.2.에서 접미사 ‘-하-’의 지역 분포를 2.2.에서 서술한 동사 ‘하-’의 지역 분포와 비교하여 기술할 것이다.

3.1. 활용 유형

‘X+-하-’는 지역에 따라 그 활용 양상이 다르다. 이는 동사 ‘하-’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들의 활용 양상을 분류하여 보면 <표5>와 같다¹⁵⁾.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게 어미 결합형	아-게 어미 결합형
I. ‘X하다 X해’형	X하고, X하니	X해(:)
II. ‘X허다 X헤’형	X허고, X허니	X해(:), X헤
III. ‘X해다 X해’형	X해고, X해니; X헤고, X헤니	X해(:), X헤
IV. ‘X허다 X히’형	X허고, X허니	X히어, X히:
V. ‘X하다 X하’형	X하고, X하니; X허고, X허니	X하; X허
VI. ‘X하다 X햐’형	X하고, X하니	X히야, X햐

<표5> 현대 한국어에서 ‘X하-’류의 활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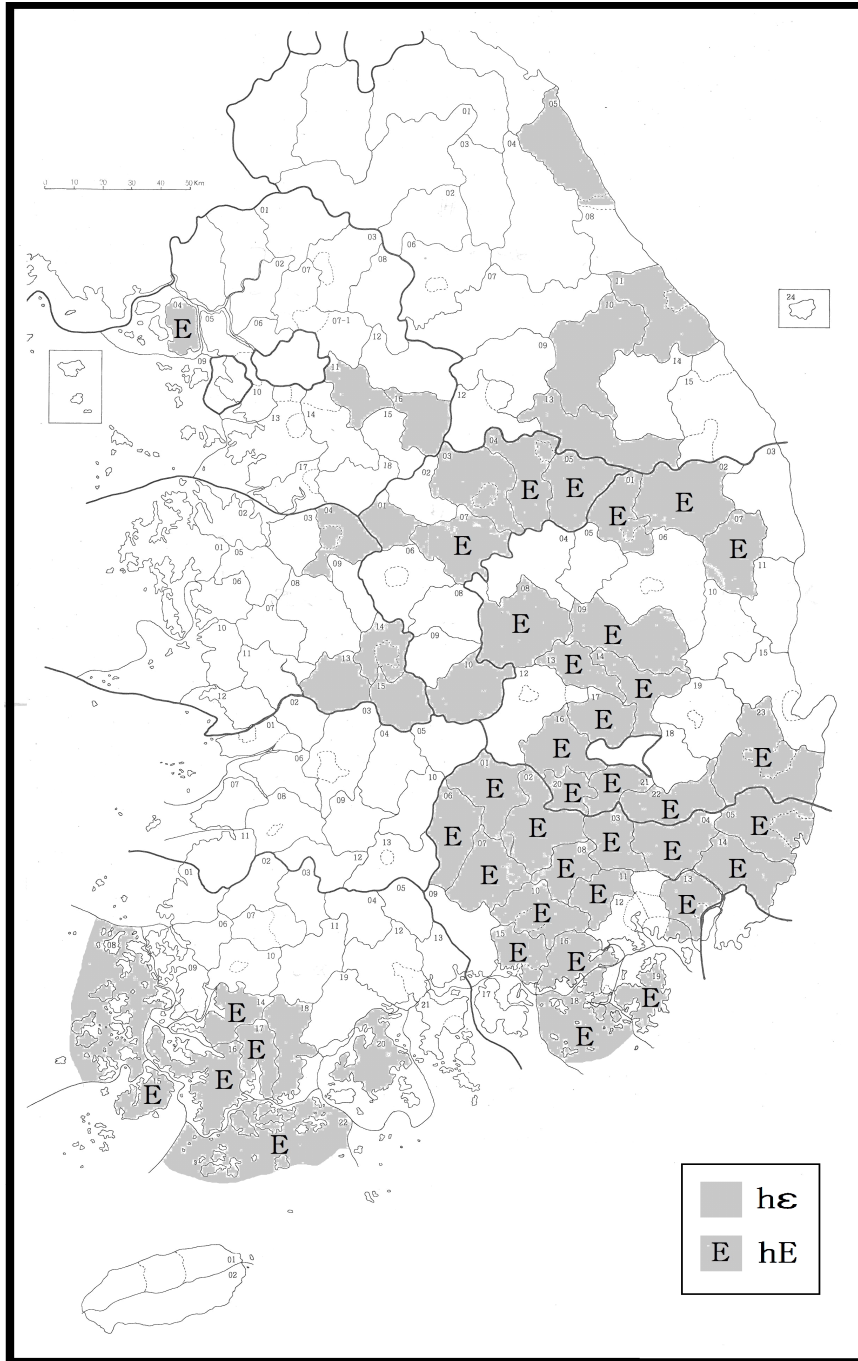
15) 장애음 뒤에서 ‘ㅎ’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ㅎ’으로 처리하겠다. 즉 ‘따뜨타다’가 ‘따뜨다다’로 실현되는 경우, ‘따뜨타다’로 보는 것이다.

X는 ‘-하-’ 앞에 선행하는 요소를 뜻하며 위와 같은 6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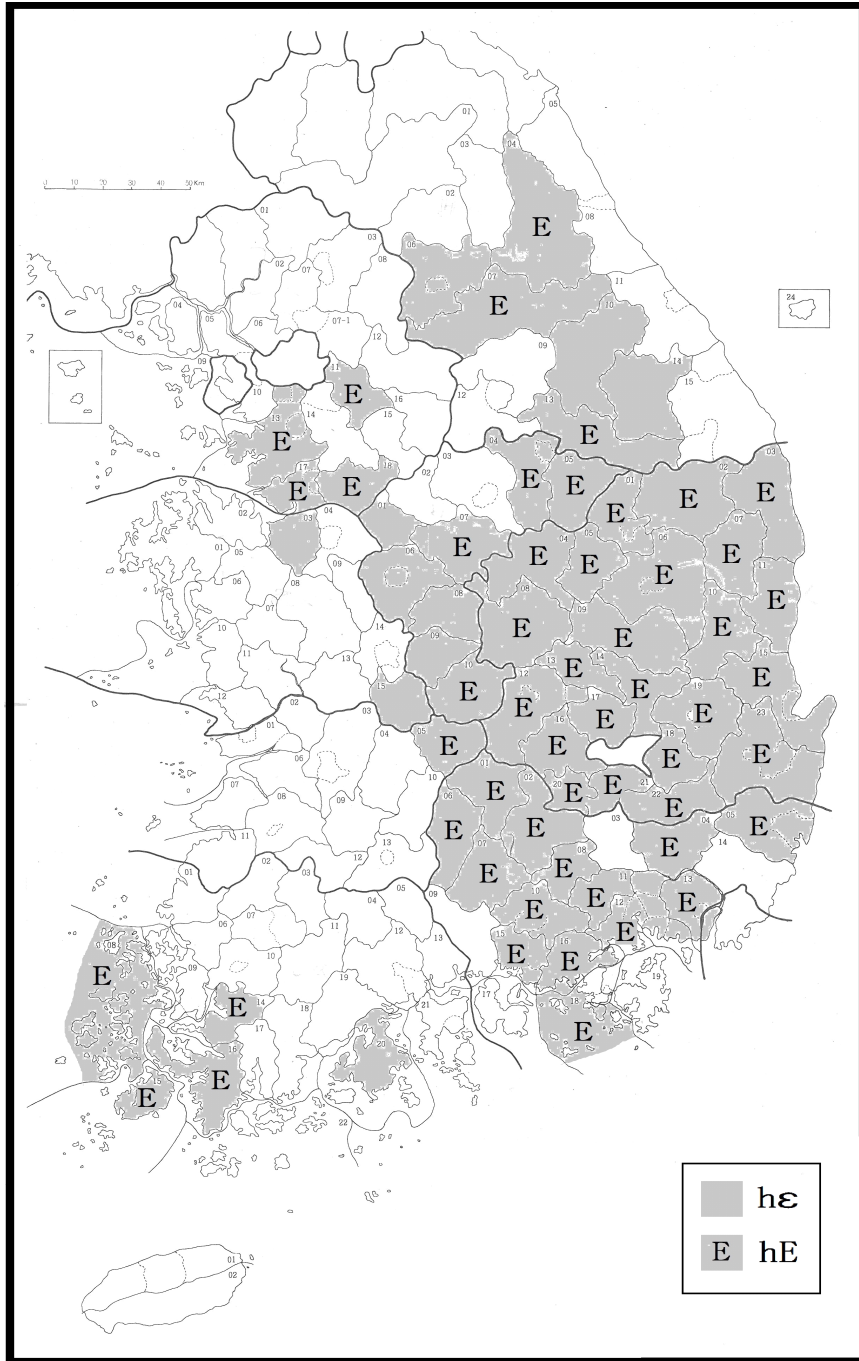
3.2. 지역적 분포

제 I 유형인 ‘X하다|X해’형은 앞 절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는 ‘X하-’로, 아-계 어미 앞에서는 ‘Xhɛ-’ 또는 ‘XhE-’로, 즉 ‘X하고, X하니, X해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X하다|X해’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9>, <그림10>, <그림11>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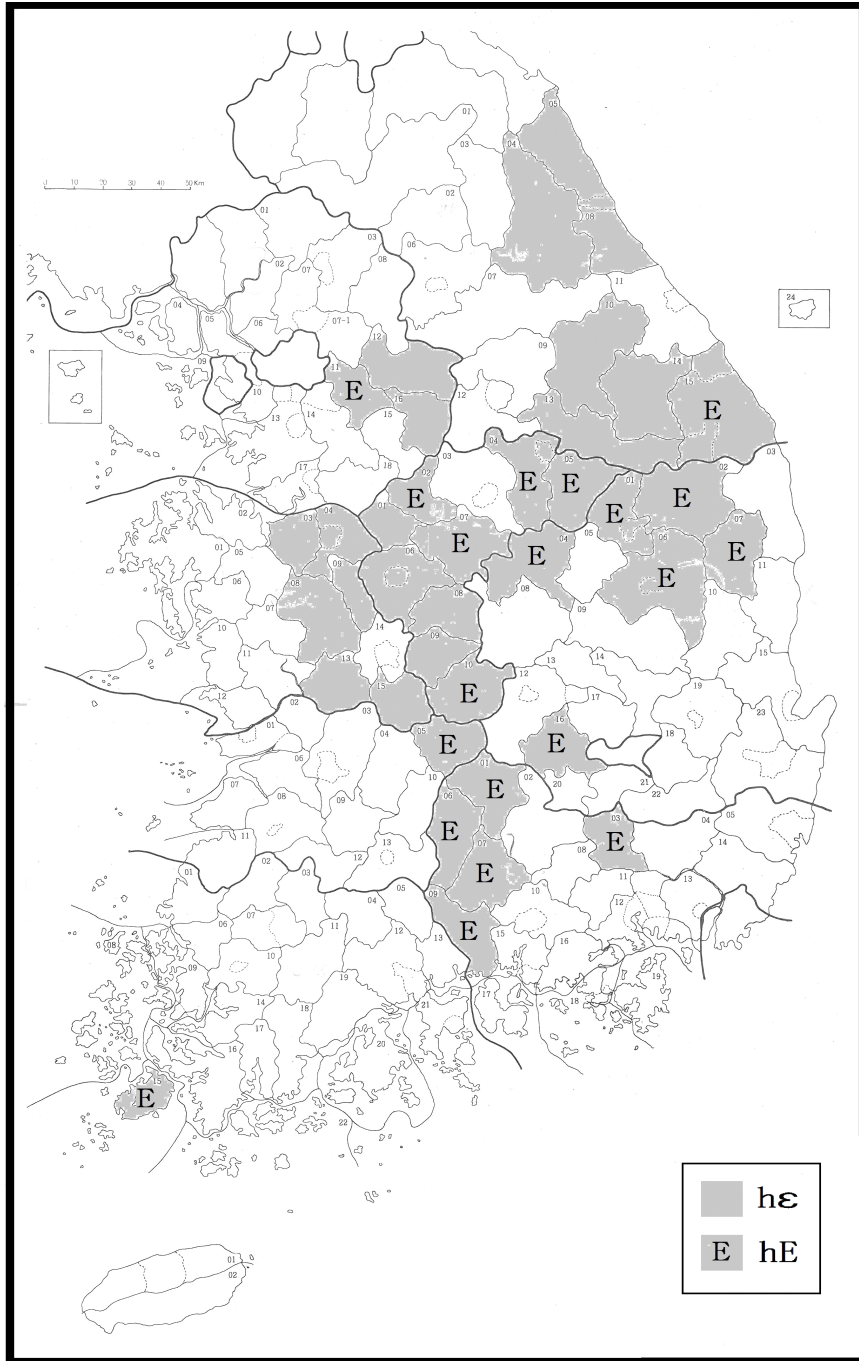
16)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도의 경우 ‘ㄱ’과 ‘ㄴ’의 모음 대립은 제1음절에서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으나, 제2음절 이하에서는 그 변별력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방언학사전 2003: 29;324). 따라서 ‘E’로 표기된 지역은 비어두 ‘에:에’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9> ‘명사+-하-’류 ‘X하다|X해’형의 분포



<그림10> ‘부사+-하-’류 ‘X하다|X해’형의 분포



<그림11> ‘어근+-하-’류 ‘X하다|X해’형의 분포

<그림9, 10, 11>을 살펴보면 ‘명사+-하-’류는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과 경상북도의 남쪽과 북쪽, 충청북도 동쪽, 강원도의 남부, 경기도의 동남쪽, 충청남도의 동북쪽과 동남쪽, 그리고 전라남도의 남서부에서 ‘X하다|X해’형이 쓰이고 있으며, ‘부사+-하-’류는 경상도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¹⁷⁾와 충청북도, 경기도의 남동부, 충청남도의 아산, 전라남도 남서부에서 ‘X하다|X해’형이 쓰이고 있고, ‘어근+-하-’류는 충청북도 대부분 지역과 경상남도 서부,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동부, 경기도 동남부, 충청남도 동부에서 ‘X하다|X해’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활용의 유형은 동사 ‘하-’가 ‘하다|해’형으로 실현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보다 좁게 실현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표6> 접미사 ‘-하-’와 동사 ‘하-’의 ‘X하다|X해’형 지역 분포

○는 해당 도에서 제 I 유형으로 실현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이고, ◐는 해당 도에서 제 I 유형이 실현되는 지역과 실현되지 않는 지역이 모두 있는 것이며, ●는 해당 도에서 90%이상 제 I 유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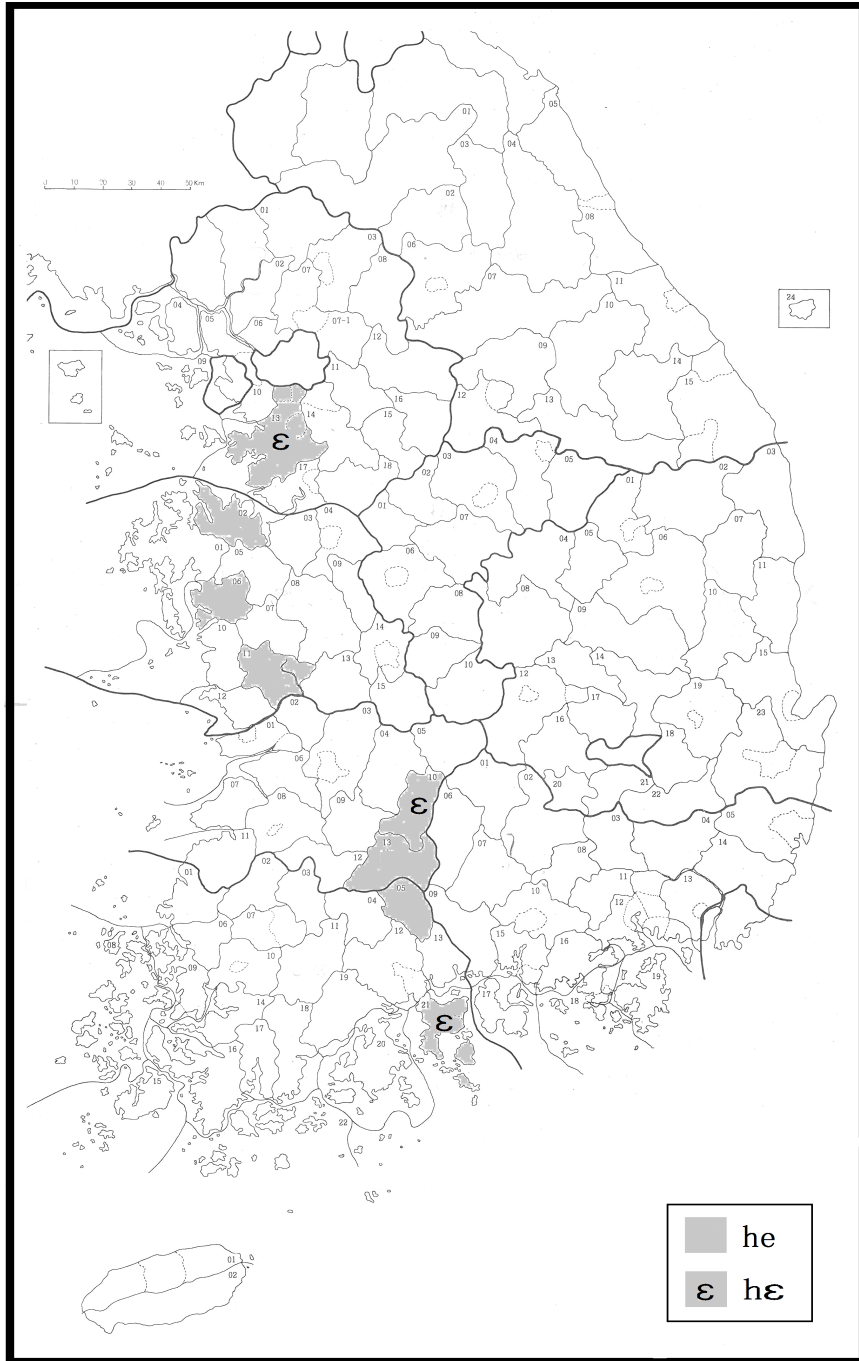
이 세 부류 중 동사 ‘하-’의 활용의 유형과 가장 유사한 것은 ‘부사+-하-’류로,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 강원도, 전라남도 남서부에서 모두 ‘X하다|X해’형으로 실현되는 점이 같다. 그러나 충청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17) 강원도 동부 해안 지역인 고성, 양양, 명주, 삼척에서 아-게 어미 결합형이 조사되어 있지 않다. 자음어미 앞에 ‘X하-’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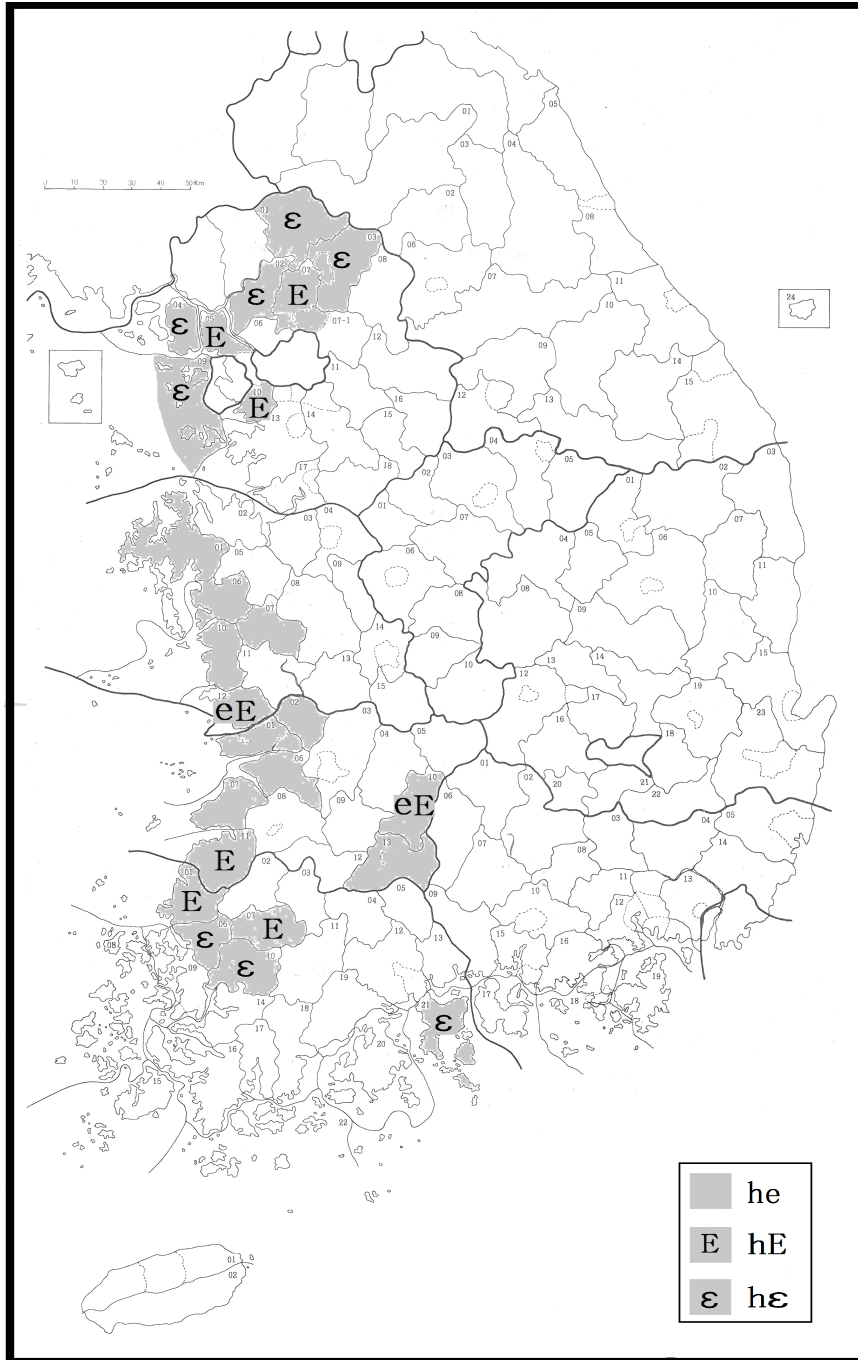
‘하다|해’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동사 ‘하-’와 차이가 있다.

한편 ‘명사+-하-’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이 유형으로 실현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어근+-하-’는 전라도와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동사 ‘하-’의 패러다임이 제 I 유형으로 실현되었던 지역이 접미사는 다른 유형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비어두에서 ‘ㄹ>어’ 변화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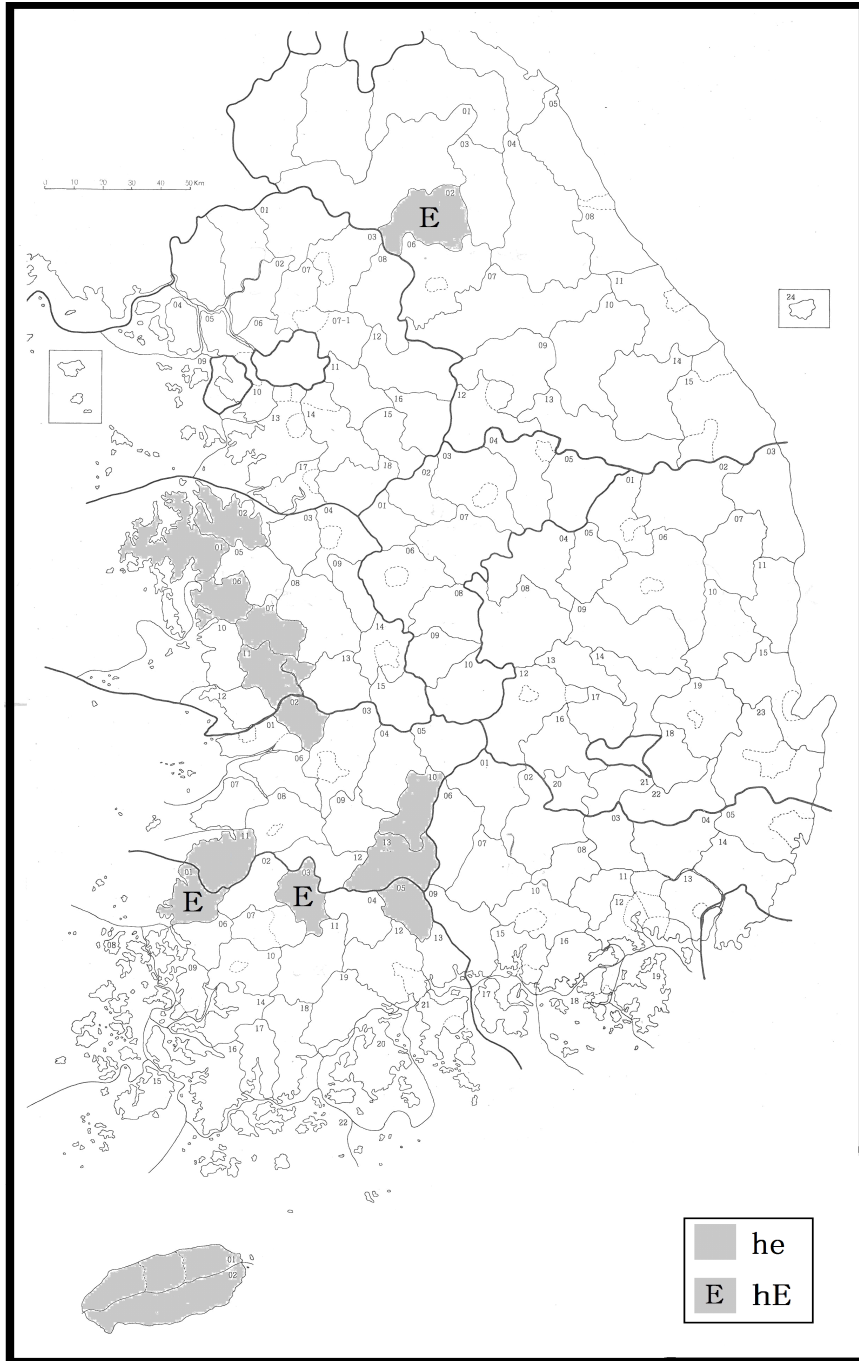
제 II 유형인 ‘X허다|X헤’형도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X허-’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Xhe-’나 ‘XhE-’, 또는 ‘Xhe-’로, 즉 ‘X허고, X허니, X헤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12>, <그림13>, <그림14>와 같다.



<그림12> ‘명사+-하-’류 ‘X허다|X헤’형의 분포



<그림13> ‘부사+-하-’류 ‘X허다|X헤’형의 분포



<그림14> ‘어근+-하-’류 ‘X허다|X헤’형의 분포

<그림12, 13, 14>를 살펴보면 ‘명사+-하-’류는 경기도 남동부, 충청남도 서부, 전라북도 남서부, 전라남도 북동부에서, ‘부사+-하-’류는 경기도 북서부, 충청남도 서부, 전라북도 서부와 동부, 전라남도 북서부에서, ‘어근+-하-’류는 충청남도 서부, 강원도 화천, 전라북도 남부, 전라남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ㄷ:ㅌ’ 변별적 기능이 아직 유지하는 지역과 제2음절 이하에서 ‘ㄷ:ㅌ’의 변별이 점차 없어진다고 보고된 지역에서 ‘ㄷ’로 실현된 것이다.¹⁸⁾ ‘Xhe-’로 실현된 지역은 동사 ‘하-’가 아-계 어미 앞에 ‘헤-’로 나타난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표7> 접미사 ‘-하-’와 동사 ‘하-’의 ‘X허다|X헤’형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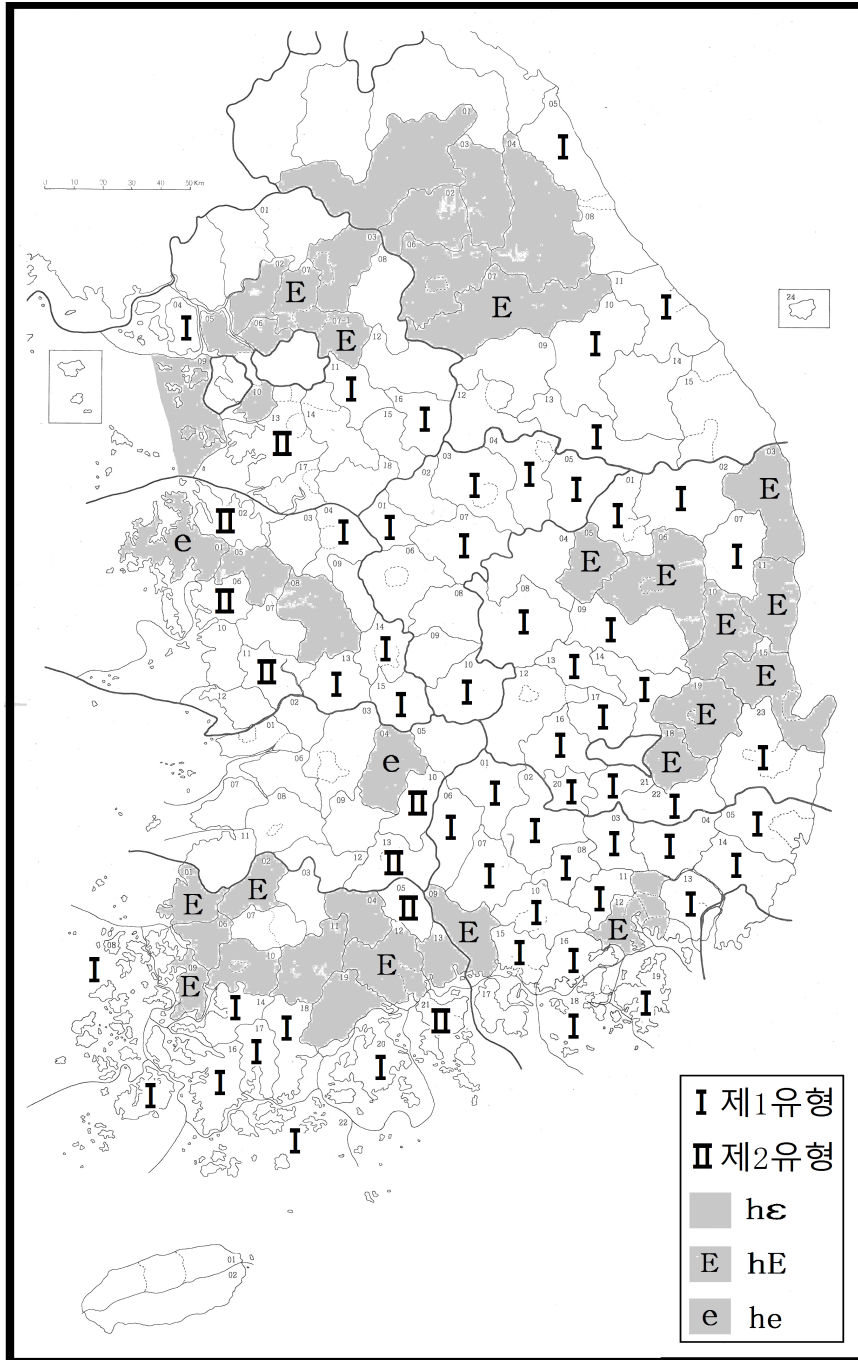
이 세 가지 부류가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남도 북부 지역에서 ‘X허다|X헤’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동사 ‘하-’의 제Ⅱ유형의 분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부류가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실현되는 것과 ‘명사+-하-’류와 ‘어근+-하-’가 경기도에서 ‘X허다|X헤’형으로 거의 실현되지 않다는 점은 동사 ‘하-’의 분포와 다르다.

한편 동사 ‘하-’와 마찬가지로 제Ⅰ유형인 ‘X하다|X해’형과 제Ⅱ유형인 ‘X허다|X헤’형이 섞인 패러다임이 실현되기도 하는바 그 대표 활용형은 ‘X하고~X허고, X하니~X허니, X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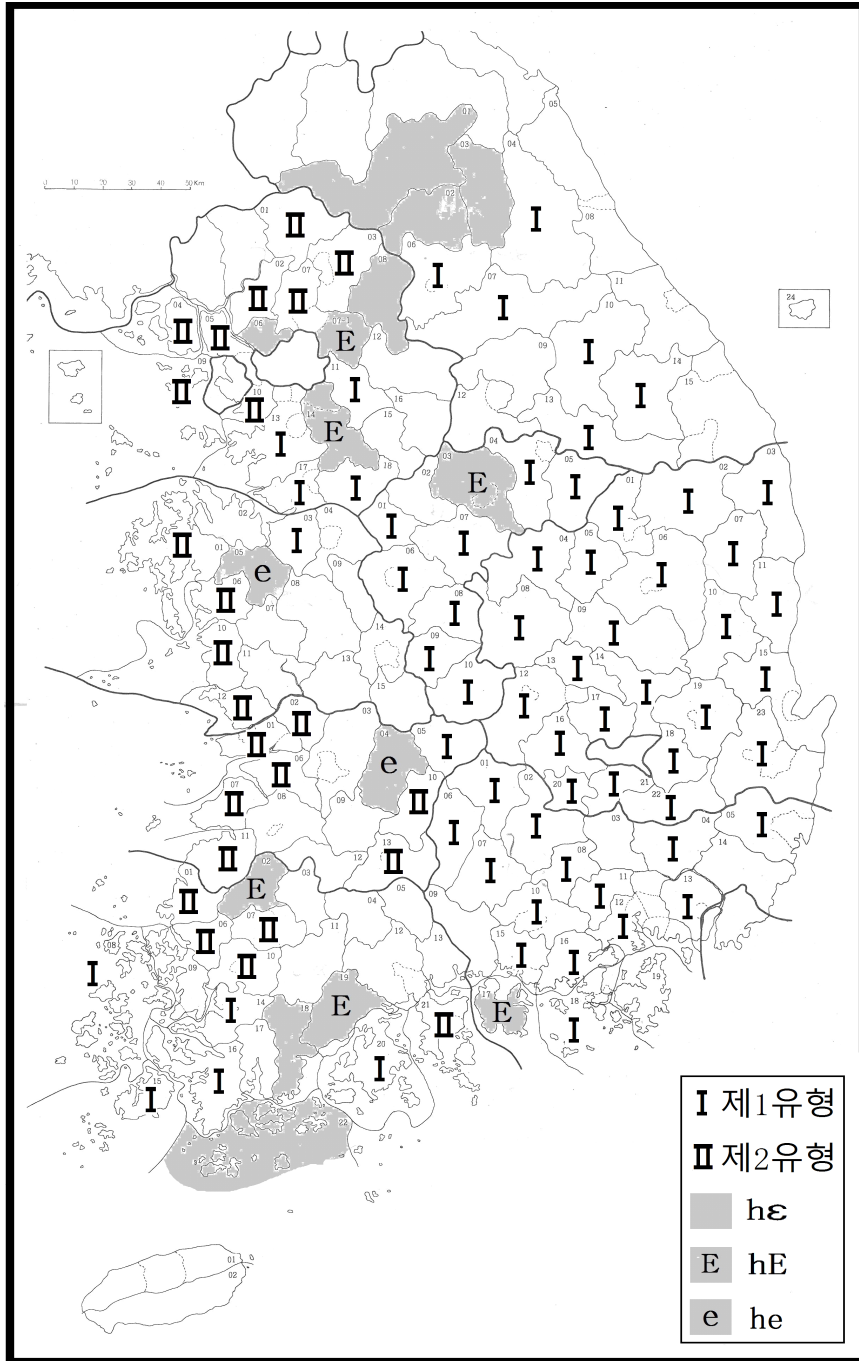
이들이 실현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제Ⅰ유형과 제Ⅱ유형을

18)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ㄷ:ㅌ’가 서로 변별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어근+-하-’류에서 만은 ‘ㄷ’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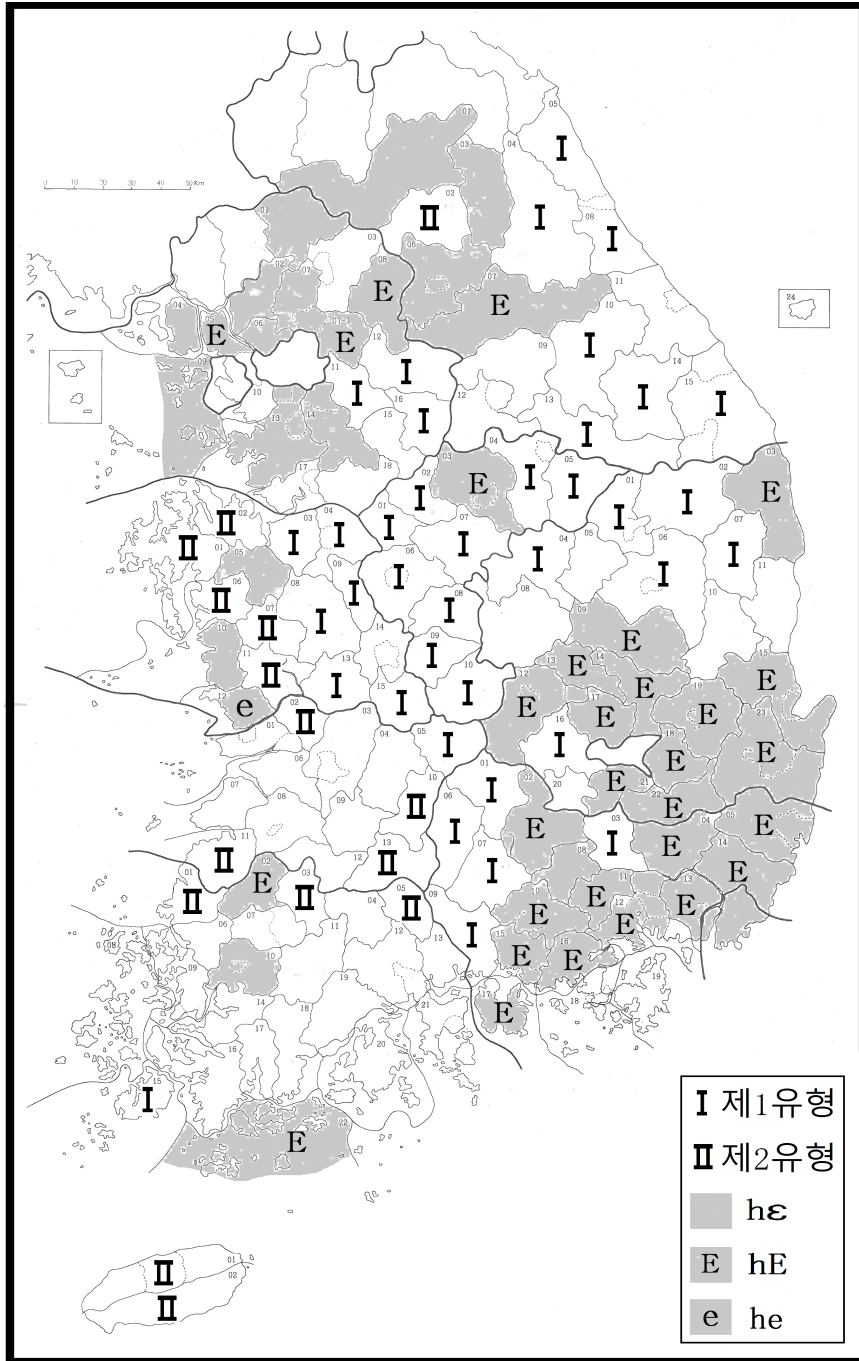
각각 'I'와 'II'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15>, <그림16>, <그림17>과 같다.



<그림15> '명사+-하-'류 'X하다~X허다|X해~X헤'형의 분포



<그림16> '부사+-하-'류 'X하다~X허다|X해~X헤'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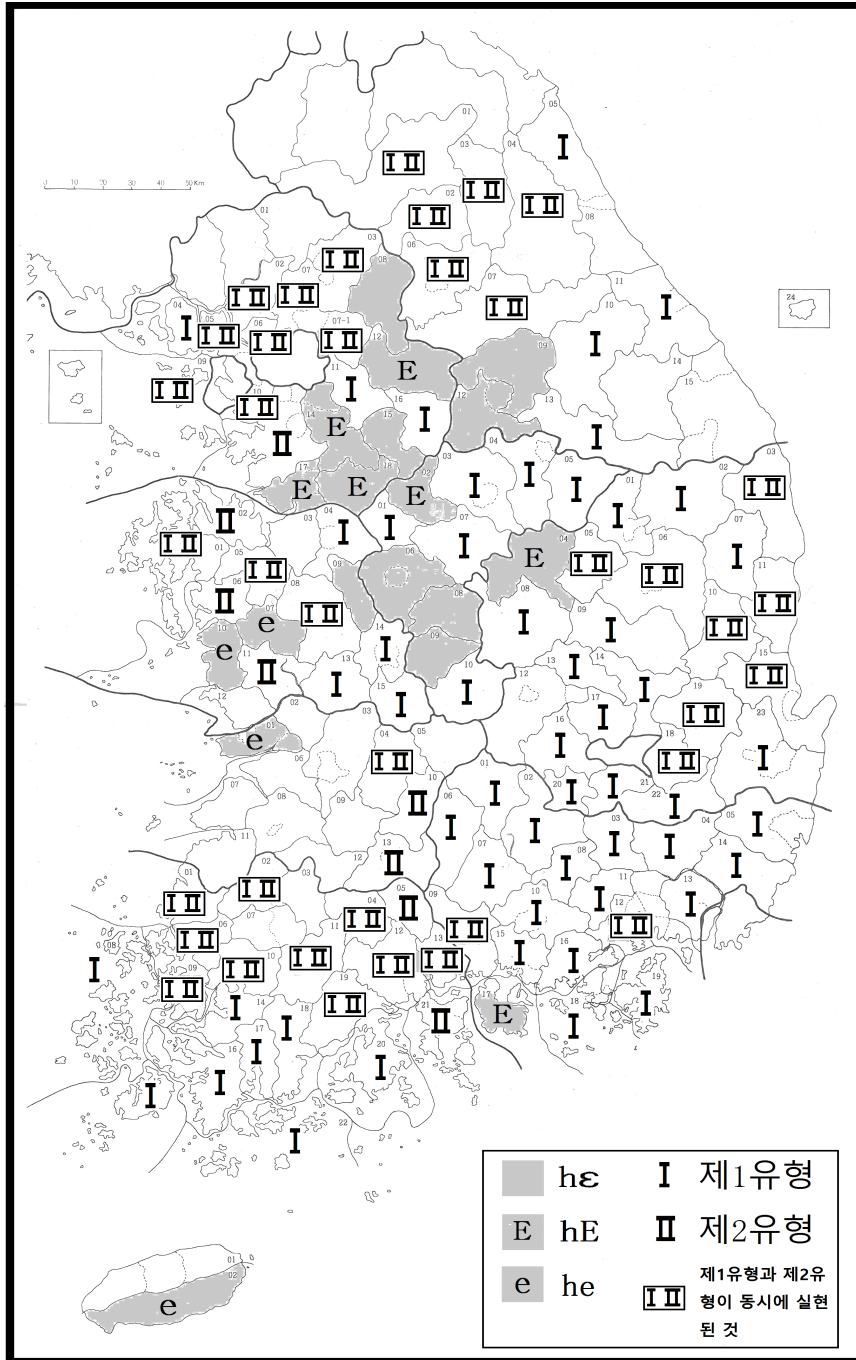
<그림17> '어근+-하-'류 'X하다~X허다|X해~X헤'형의 분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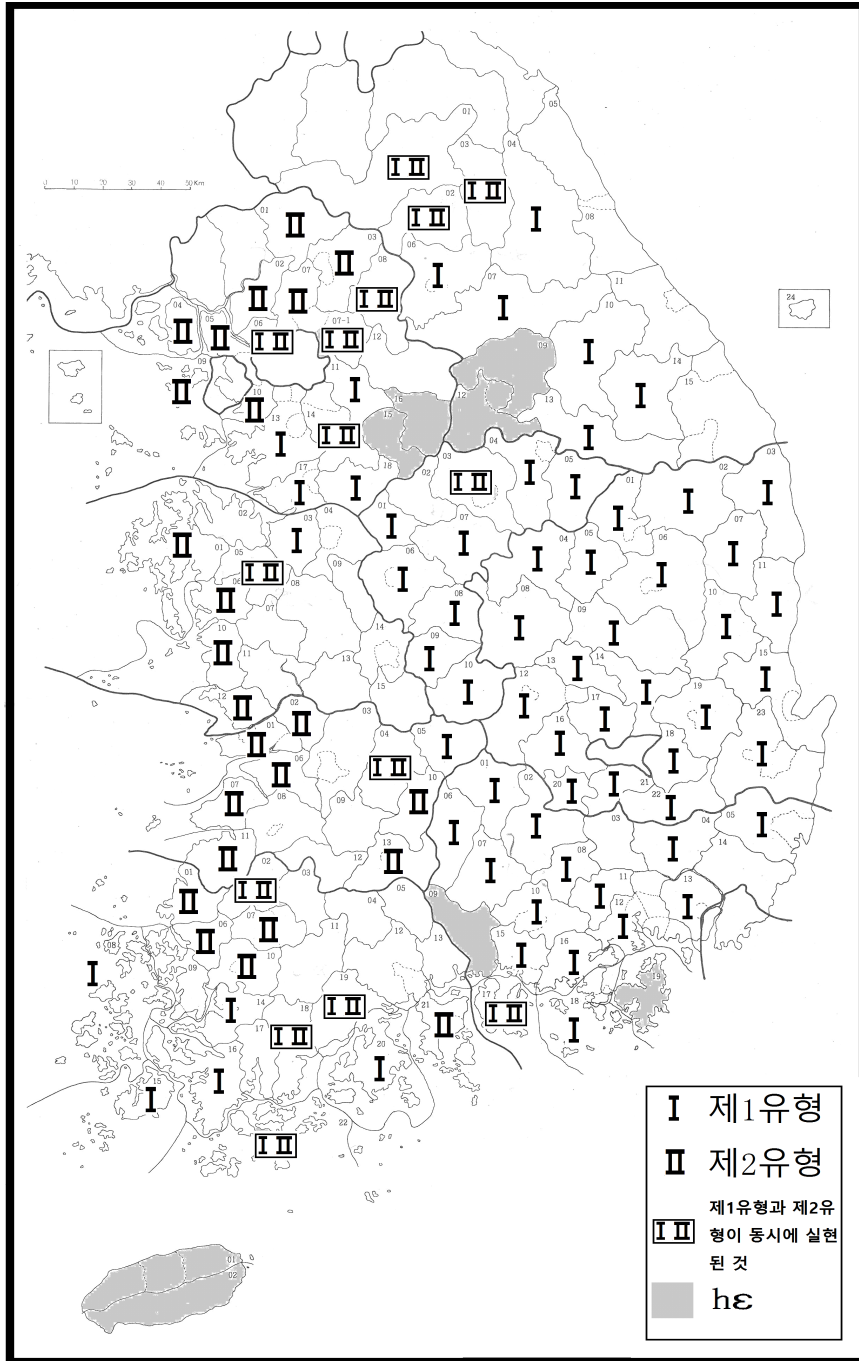
<표8> 접미사 ‘-하-’와 동사 ‘하-’의 ‘X하다~X허다|X해’형 지역 분포

세 가지 부류의 분포는 모두 동사 ‘하-’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부사+-하-’가 동사 ‘하-’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동부와 강원도 북부는 서쪽의 ‘허다|해’형과 동쪽의 ‘하다|해’형의 중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는 두 유형이 혼재된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 충청남도 예산, 전라남도 진안도 이와 유사한 지역이다. ‘명사+-하-’와 ‘어근+-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동사 ‘하-’보다 넓게 실현될 뿐더러 경상도에서도 실현되는 점이 동사 ‘하-’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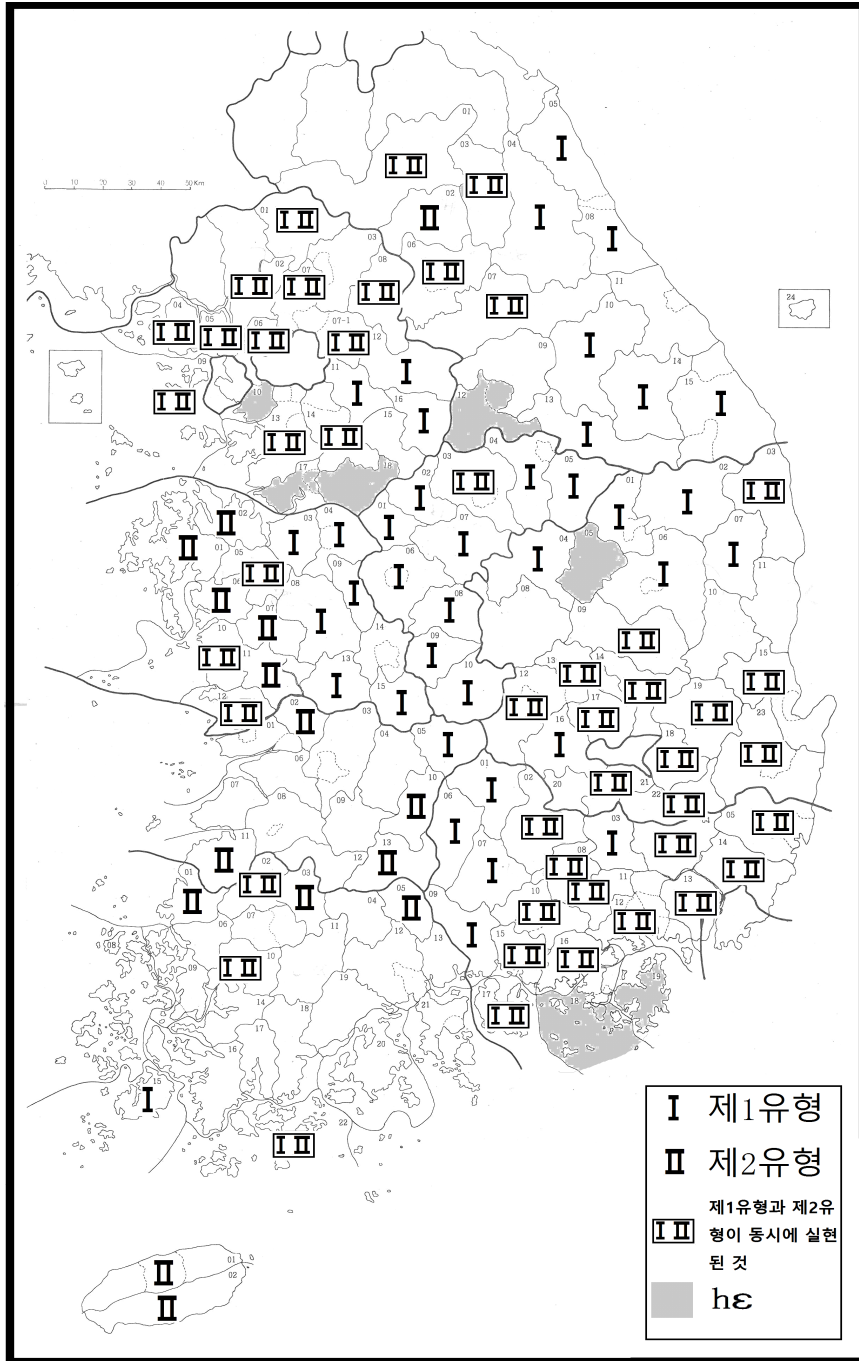
제Ⅲ유형인 ‘X해다|X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모두 ‘X해-’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동사 ‘하-’의 제Ⅲ유형과 달리 접미사의 제Ⅲ유형은 앞에 ‘[hɛ]’뿐만 아니라 ‘[he]’나 ‘[hE]’로 실현되기도 한다. 대표 활용형은 ‘X해고, X해니, X해서’이다. 이 유형은 <그림18>, <그림19>, <그림20>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림18> ‘명사+-하-’류 ‘X해다(~X하다~X허다)|X해’형의 분포



<그림19> ‘부사+-하-’류 ‘X해다(~X하다~X허다)|X해’형의 분포



<그림20> ‘어근+-하-’류 ‘X해다(~X하다~X허다)|X해’형의 분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표9> 접미사 ‘-하-’와 동사 ‘하-’의 ‘X해다(~X하다~X허다)|X해’형 지역 분포

‘부사+-하-’는 동사 ‘하-’의 활용의 유형과 비슷하다. ‘명사+-하-’는 이 세 가지 부류에서 ‘해다(~하다~허다)|해’형으로 실현된 지역이 가장 많다. 경기도 남동부와 강원도의 남서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 경상도 남해에서 모두 ‘해다(~하다~허다)|해’형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조사된 단어수가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Ⅳ유형인 ‘X허다|X히’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X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X허어-’나 ‘X히:-’로, 즉 ‘X허고, X허니, X히서’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어간+-하-’ 부류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부사+-하-’와 ‘명사+-하-’도 전라북도 완주만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제Ⅱ유형인 ‘허다|해’형과 제Ⅳ유형인 ‘허다|히’형인 섞인 패러다임이 실현되기도 한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X허-, X해-~X혀(:)-’
‘X허-, X해~X혀:-’
‘X허-, X혀~X혀:-’
‘X허-, X혀~X혀-’

이 4가지 패러다임의 실현은 모두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북도에 있으며 동사 ‘하-’의 ‘허다|히’형과 ‘허다|해’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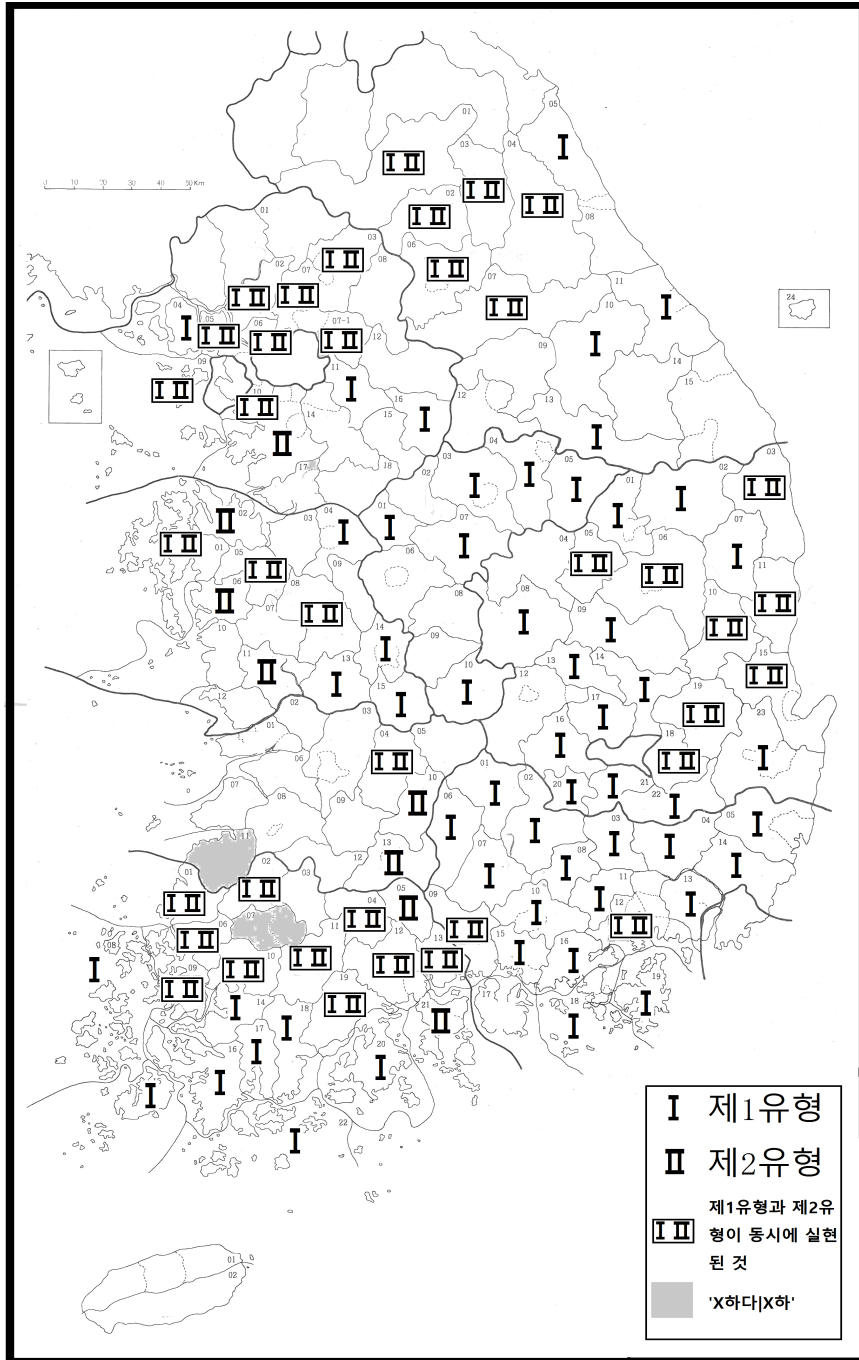
한편 이 유형으로 실현된 지역은 그 수가 적지만 ‘하’, ‘혀’로 실현된

지역이 동사 ‘하-’보다 많다. ‘X하-’는 동사 ‘하-’와 달리 충청남도 동부 지역에서는 ‘X햐(/안햐/, /모햐/, /깨까햐/)'로, 서부 지역에서는 ‘X혀(/안혀/, /모터/, /밥혀:/)'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 활용형이 실현된 지역을 살펴보면 ‘X혀-’가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북도에서 실현되며 이는 동사 ‘혀-’로 실현된 지역과 일치하고 ‘X햐-’는 모두 충청남도 동부에서만 나타나며 이는 동사 ‘하-’로 실현된 지역과 같다. ‘X햐’, ‘X혀’가 실현되는 것은 2.3.에서와 같은 해석으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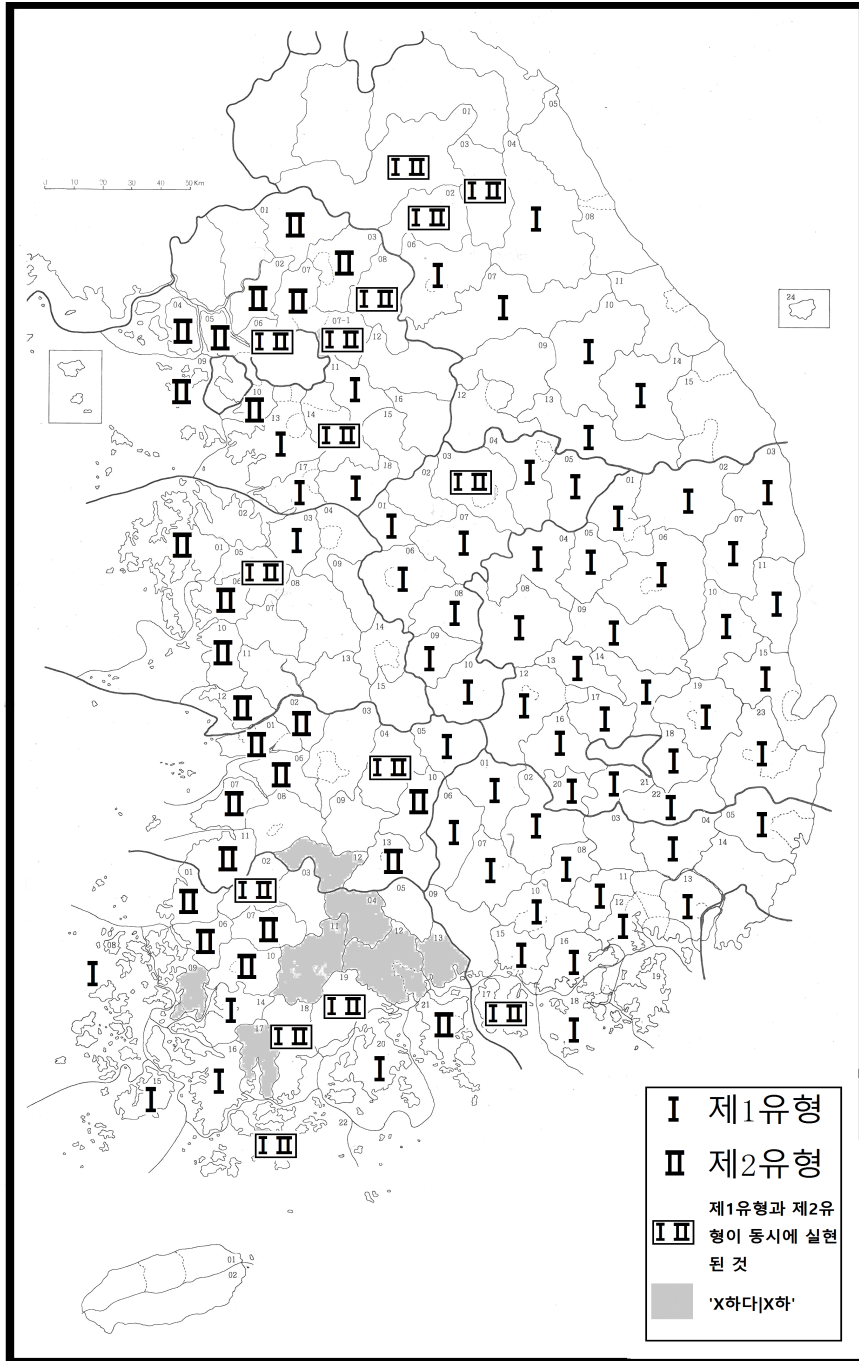
동사 ‘하-’의 경우 활용형 ‘히어-’와 ‘히:-’는 반말체 종결어미 앞에서나 선어말어미 ‘-았-’과 결합할 때만 나타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야, -여’형이 반말체 명령형 종결어미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종결어미에서만 아니라 연결어미에도 확인되었다. ‘-아서’와 결합한 예는 다음과 같다.

- (2) 전라북도 정읍, 임실: /비스디서/
 전라북도 완주: /비슬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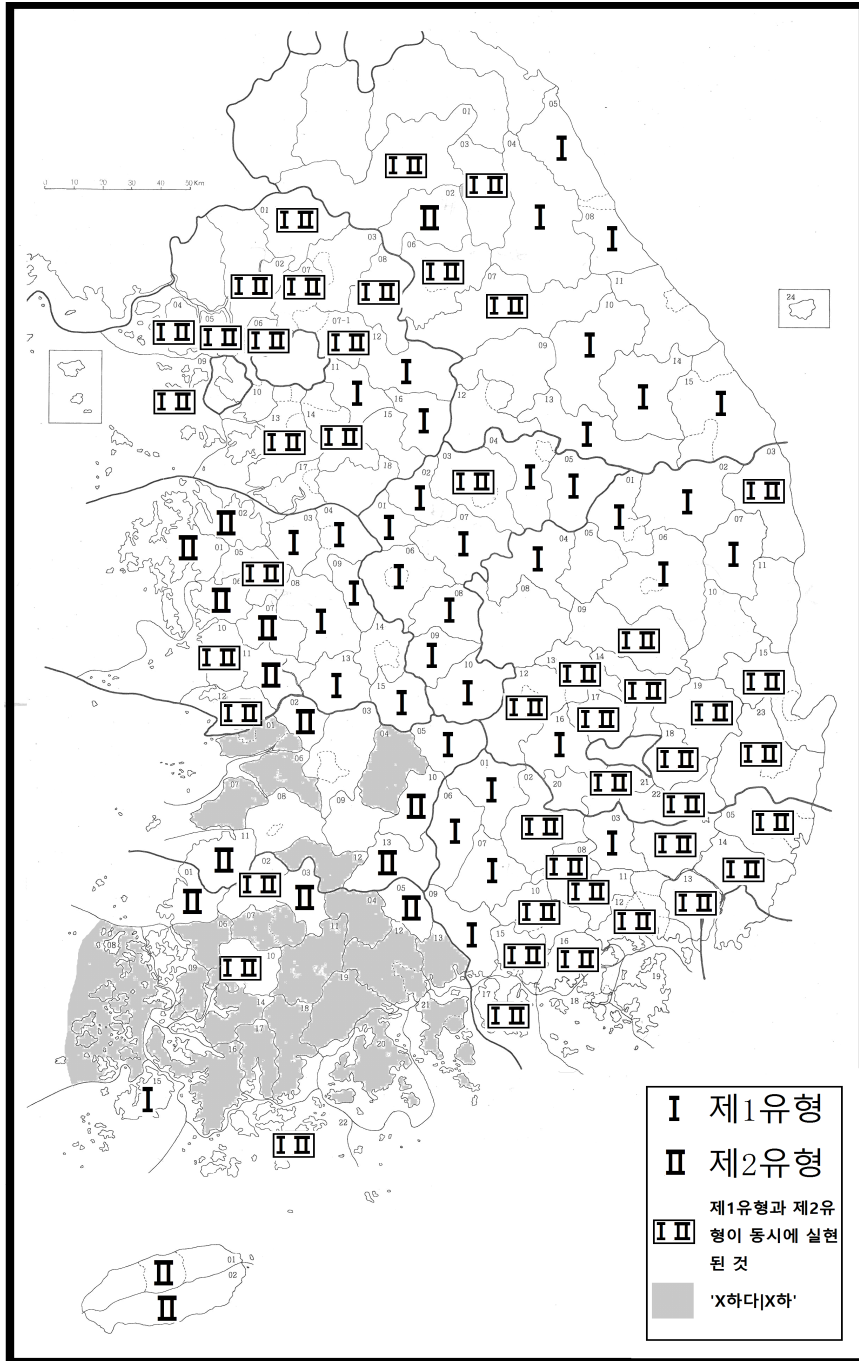
제 V 유형인 ‘X하다|X하’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 또는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X하-’나 ‘X혀-’로 실현되는 유형, 즉 ‘하고, 하니, 하서’ 또는 ‘혀고, 혀니, 혀서’를 말한다.



<그림21> '명사+-하-'류 'X하다|X하'형의 분포



<그림22> '부사+-하-'류 'X하다|X하'형의 분포



<그림23> '어근+-하-'류 'X하다|X하'형의 분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표10> 접미사 ‘-하-’와 동사 ‘하-’의 ‘X하다|X하’형 지역 분포

‘명사+-하-’는 전라도의 소수 지역에서 실현되며 동사 ‘하-’와 비슷하다. ‘부사+-하-’는 전라남도 동북부와 전라북도 남부 지역에서 실현된다. ‘어근+-하-’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과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실현된다. 이 유형으로 실현된 지역이 가장 많은 부류는 ‘어근+-하-’이다. 또 모두 전라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VI유형은 충청도에서 나타난다.

- (3) ㄱ. ‘부사+-하-’: ‘X하-, X해-~X하-’ 충청북도 음성, 충청남도 천원, 공주, 연기
 ㄴ. ‘어근+-하-’: ‘X하-, X해-~X하-’ 충청남도 대덕

다음 《지역어》에서 나온 활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접미사의 경우도 동사 ‘하-’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자료집》에서 반영된 활용 양상보다 더 다양하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어》에서 나온 동사 ‘하-’의 활용 유형과 거의 비슷하다.

활용형만 비교하자면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 ‘X해-’로 나타나는 지역과 아-계 어미 앞에서 ‘히:-, 혀’로 또는 ‘하-’, ‘허-’로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아-계 어미 앞에서 ‘히(야), 햐’로 나타나는 지역은 동사 ‘하-’보다 적으며 그에 벗어나지 않는다.

3.3. 통시적 발달 과정

① ‘X하다~X허다|X해’형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접미사 ‘-하-’는 동사 ‘하-’와 비슷한 방언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동사 ‘하-’에서 ‘하다|해’형으로 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접미사 ‘-하-’에서 ‘X하다~X허다|X해’형으로 실현되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유형으로 바뀌는 것은 자음어미 앞에 ‘X허-’형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X허-’형이 나타나는 것은 ‘으’의 음절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鄭仁浩(2006:353)에서는 비어두에서 일어난 ‘으>어’ 변화에 대해 ‘으>어’는 ‘으’의 모음도 상에서의 위치에 기인한 것, 즉 ‘으’는 음성적으로 가까운 모음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으’는 다른 저모음과 같이 제2음절에서 음성적으로 상승하며, ‘어’는 ‘어’의 저설화 현상에 의해 매우 넓은 음역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의 저설화 정도가 클수록 ‘으>어’의 변화가 더 활발하다고 밝히며 제2음절에서의 ‘으>어’의 변화는 의존형태소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하-’와 ‘갈-’처럼 ‘아’형과 ‘어’형이 공존하는 것은 모두 자립형태소이면서도 체언 뒤에서 의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아’형은 자립형태소로서의 제1음절 변화형이고 ‘어’형은 제2음절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¹⁹⁾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동사 ‘하-’가 ‘허-’로 실현되는 지역, 즉 어두 ‘어’보다 더 넓게 실현되며 어두 ‘어’ 지

19) 이 기술에 따르면 동사 ‘하-’가 ‘허-’로 실현되는 것은 제2음절 이하의 ‘Xㅎ-’가 ‘X허-’로 변화하는 데에 유추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자료집》에서 Ⅱ.55 ② ‘하니까’, Ⅱ.56 ‘하느라고’, Ⅲ.13-7 ‘하고/하니까/하아서/하오//소’에 조사된 어형을 이용한 연구이므로 조사된 어형이 과연 어두에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어두 ‘으>어’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은 충청남도 서부와 전라북도에서 ‘어’형으로 실현되는 일이 많다. 이는 동사 ‘하-’의 ‘허-’로 실현된 지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으>어’는 음운환경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징과도 관련있지 않을까 싶다.

역을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으>어’ 변화는 비어두에서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어두로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하-’가 전라북도에서 ‘허다|히’형으로 정연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X하-’는 전라북도에서 패러다임이 복잡하고 아-계 어미 앞에 ‘X헤-’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 ‘X히:-’나 ‘X혀-’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X하-’는 전라북도에서 아-계 어미 앞에 ‘X헤-’로 실현되는 지역이 많다. 이는 비어두에서 장음이 실현되지 않아 ‘에>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아름(2008:54)에서도 전라북도에서는 비어두 ‘ㄱ>ㅣ’의 고모음화가 그리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비어두 ‘X하-’가 아-계 어미 앞에서 ‘X히-’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사+-하-’류는 ‘안 해’와 같은 구 구성으로 나타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모두 ‘X헤-’로만 실현된다. 이 경우에 ‘하-’가 어두에 있지만 아-계 어미 앞에서는 모두 단음 ‘헤-’로만 실현되기 때문에 ‘히-’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② ‘X하다|X하’형

동사 ‘하-’가 아-계 어미 앞 기저형으로만 평준화하는 것과 달리 접미사 ‘-하-’의 경우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 기저형으로 평준화된 예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김현(2006:109)에서는 평준화가 꼭 어느 한 쪽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평준화에 의해 생긴 패러다임과 기존의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패러다임도 있다.

- | | |
|-----------------|------------------|
| (4) ㄱ. X허-, X혀- | 전라남도 광양 (부사+-하-) |
| X허-, X혀- | 전라북도 진안 (어근+-하-) |
| X하-, X하- | 전라남도 고흥 (어근+-하-) |

- ㄴ. X하-, X해-~X허- 전라북도 고창 (명사+-하-)
 X하-, X해-~X하- 전라남도 강진 (부사+-하-)
 X허-, X해-~X허- 전라북도 부안, 전라남도 광산, 승
 주, 보성 (어근+-하-)
 ㄷ.X하-~X허-, X해-~X허-~X허- 전라북도 김제 (어근+-하-)
 ㄹ.X허-~X허-, X허어- 전라북도 완주 (어근+-하-)

4. ‘하-’ 관련 용언의 활용 양상

4.1. 활용 유형

중세 한국어에서도 ‘하-’가 어근이나 부사에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생성한다. 그 중에 일부분의 단어가 통시적인 변화를 걸쳐 ‘하-’와 결합해서 온 흔적을 감추었다.

(1) 많다<만흐다; 같다<곶흐다; 파랗다<파라흐다

이 부분의 단어가 현대 한국어에서 ‘ㅏ’ 규칙활용이나 ‘ㅎ’ 불규칙활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 {많다} 만허지~망코, 마는, 마네따 전라북도 남원

(2005년 전라북도지역어전사보고서)

본 절에서는 ‘하-’와 관련된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집》에서 이에 해당된 용언은 ‘많다, 같다, 노랗다, 그렇다’가 있다. 이 중에 전체 패러다임으로 조사된 용언은 ‘많다, 같다, 노랗다’뿐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어》를 2차 자료로 사용한다. 《지역어》에서 조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많다, 같다, 귀찮다, 팬찮다, 앓다, 파랗다/퍼렇다, 노랗다/누렇다, 빨강다/벌짙다, 까맣다/거멓다, 동그랗다/둥그렇다, 커다랗다, 길다랗다, 기다랗다’ 등이 있다.

크게 중부 방언에서 규칙활용 용언인 ‘ 많-, 같-’과 불규칙활용 용언인 ‘노랑-’ 두 부류로 나누고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 다른 활용 양상을 하고 있는 용언들이 ‘하-’의 활용 양상과 얼마나 유사하고 차

이 나는지 살펴보겠다.

이 절에서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도
록 할 것이다.

- (3) I. ‘C타|Cㅎ’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ㅎ’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ㅎ’로 또 ‘ㅎ’가 탈
락하는 어형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 ‘만코, 마느니, 마나서’

- II. ‘C타|C해’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ㅎ’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애’나 ‘에’로 나타
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 ‘만코, 마느니, 마내서’

- III. ‘C타|C히’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ㅎ’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이’나 ‘여’로 나타
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 ‘만코, 마느니, 마니서’

- IV. ‘C하다|C해’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아’
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애’나 ‘에’로 나
타나는 유형이다. 이는 동사 ‘하-’나 접미사 ‘-하-’
의 제 I 유형과 비슷하지만 아-계 어미 앞에 ‘에’로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대표 활용형: ‘마나고, 마나니, 마내서’

- V. ‘C허다|C해’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어’
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애’나 ‘에’로 나
타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 ‘마너고, 마너니, 마네서’

- VI. ‘C허다|C히’형: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어’
로, 아-계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은 ‘이’나 ‘여’로 나
타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 ‘마너고, 마너니, 마니서’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각 절에서 기술하겠다.

4.2. 지역적 분포

4.2.1. 규칙 용언

《자료집》에 수록된 ‘하-’와 관련되는 규칙 용언은 ‘땡-’, ‘갈-’이 있다. 《지역어》에서 나온 자료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귀찮-’와 ‘괜찮-’는 ‘귀하지 않-’, ‘공연하지 않-’에서 온 말이므로 ‘-지 않-’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① 땡다

《자료집》에서 조사된 ‘땡-’²⁰⁾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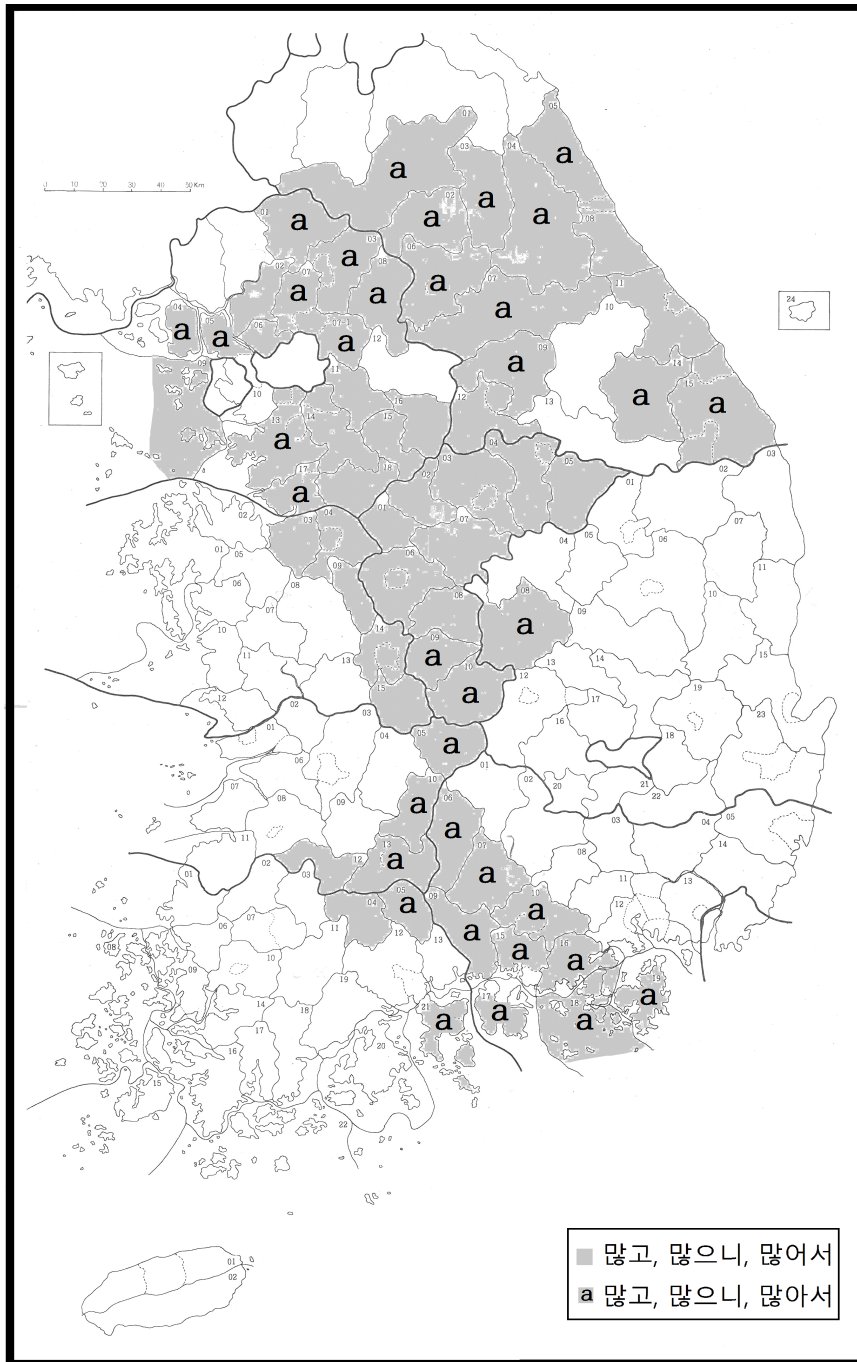
20) 《자료집》에서 ‘땡다’에 대해 ‘땡기느’와 ‘땡아도’로 조사되었다.

	자음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비고
I. 'C타 Cㅎ'형	만코, 마느니	마나, 마너	《자료집》, 《지역어》
II. 'C타 C해'형	만코, 마느니	마내, 마네, 만혜	《자료집》, 《지역어》
III. 'C타 C히'형	만코, 마느니	마니, 마너	《자료집》, 《지역어》
IV. 'C하다 C해'형	마나고, 마나니	마내, 마네	《지역어》
V. 'C허다 C해'형	마너고, 마너니	마내, 마네	《지역어》
VI. 'C허다 C히'형	마너고, 마너니	마니, 마너	《지역어》

<표11> '닿-'의 활용 유형

먼저 《자료집》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닿-'은 제 I 유형, 제 II 유형, 제 III 유형으로만 보고되었다. 즉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 '하-' 또는 '만하-', '만허-'로 나타나지 않고 '만쿠, 망쿠'와 같은 활용형만 보고된 것이다.

제 I 유형인 'C타|Cㅎ'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닿-'으로, 아-계 어미 앞에서는 '마나-'나 '마너-', 또는 '만하-'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C타|Cㅎ'형이 실현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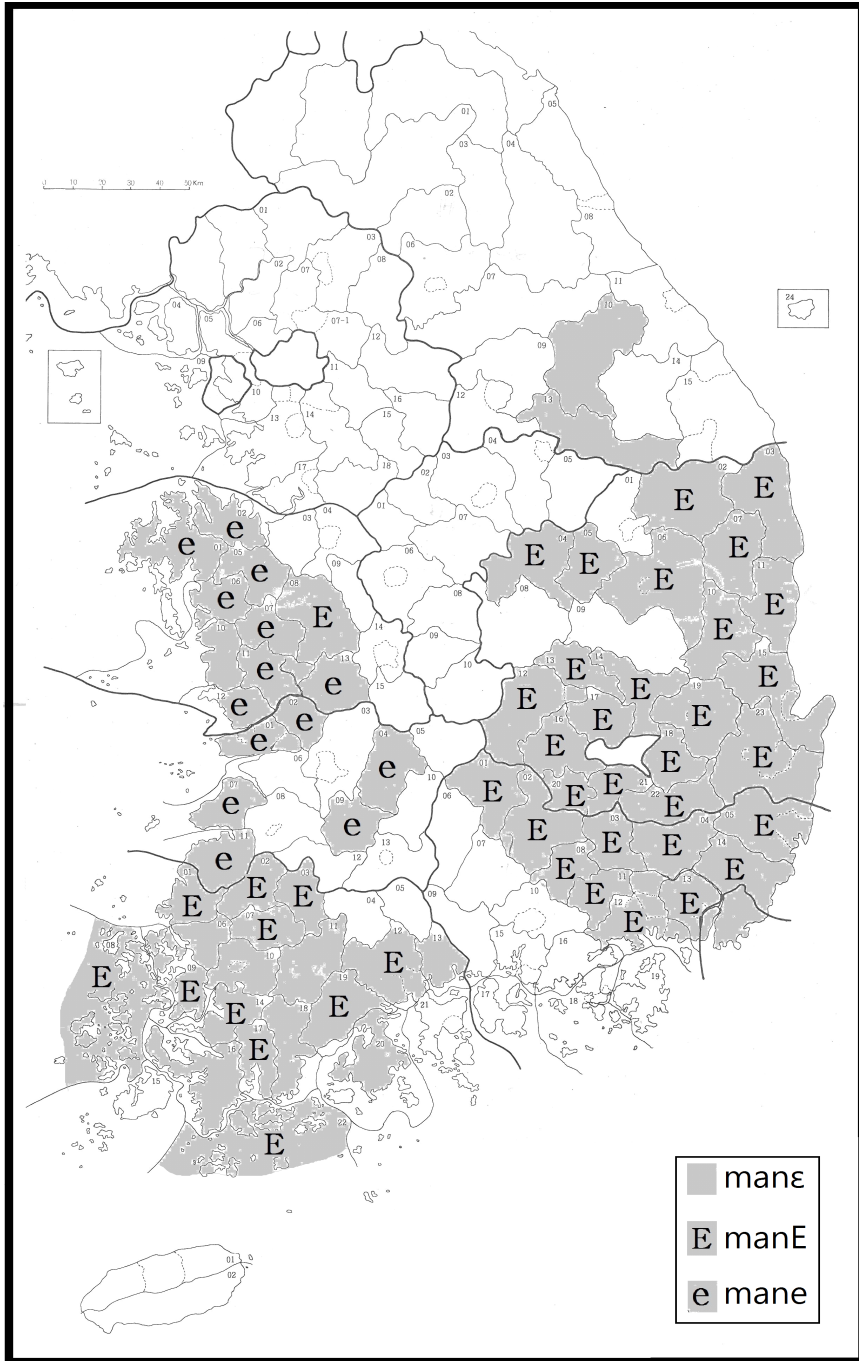


<그림24> '많다' 'C타|Cㅎ'형의 분포

‘C타|Cㅎ’형은 경기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 충청북도, 충청남도 동부 지역, 전라북도 동부 지역, 전라남도 북동쪽, 경상남도 서남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로 표시된 곳은 ‘마나-’로 실현된 지역이며 이는 김아름(2011:15)²¹⁾에 따르면 모음조화에 의해 생긴 활용형이다.

제Ⅱ유형인 ‘C타|C해’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닿-’으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마내-’나 ‘마네-’, 또는 ‘만해-’, ‘만해-’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C타|C해’형이 실현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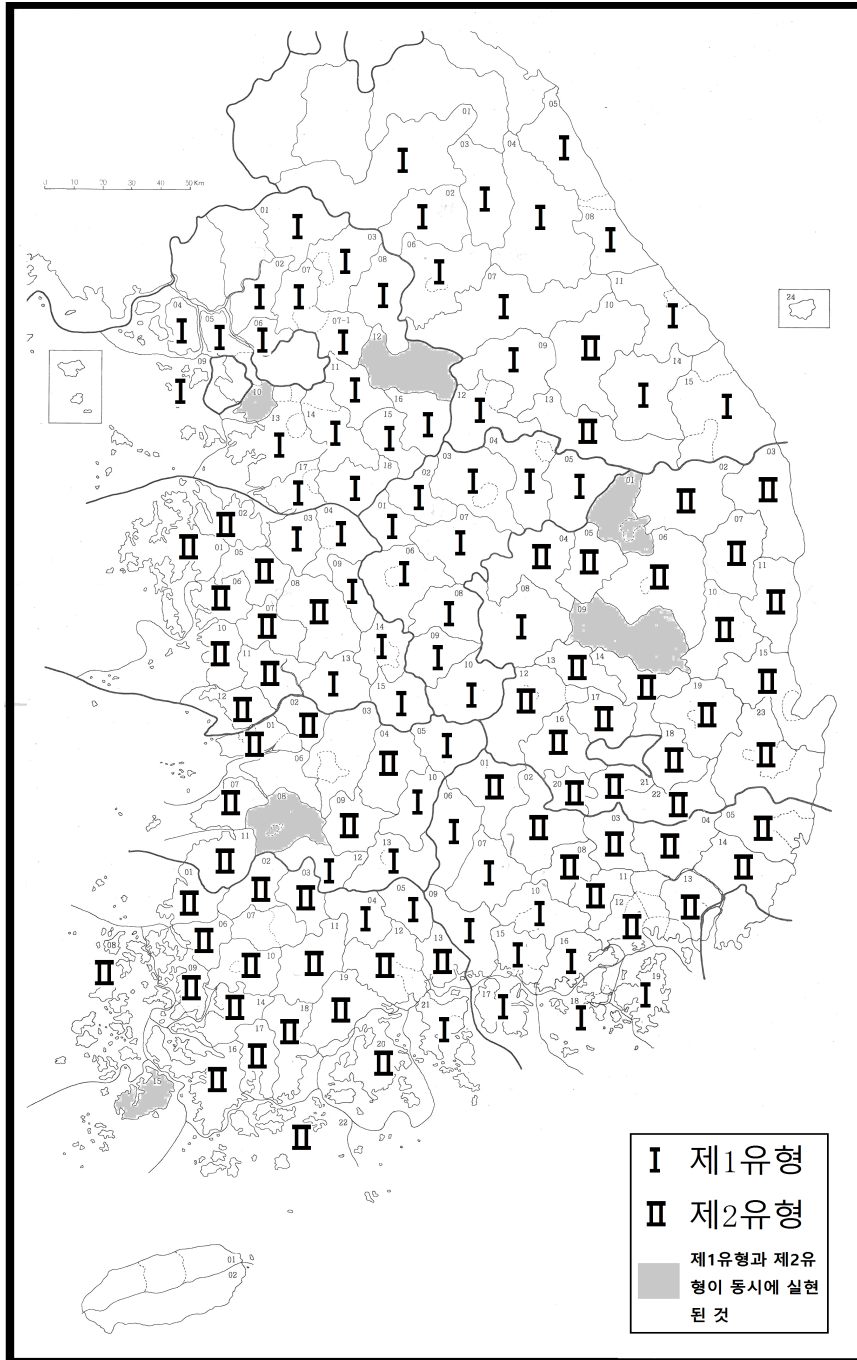
21) 김아름(2011:15)에서 어간말 모음이 ‘ㅏ’인 1음절 및 폐음절 용언 어간의 경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과 전라도의 동부지역, 제주도에서 ‘-아’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고, 경기도 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는 ‘-어’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다고 밝혔다.



<그림25> ‘많다’ ‘C타|C해’형의 분포

‘C타|C해’형은 경상북도 대부분 지역, 경상남도 북부, 강원도 일부 남부 지역, 충청남도 서부, 전라북도 일부 지역,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난다. ‘E’로 표시된 지역은 제2음절 이하에서 /기/와 /히/가 변별되지 않는 지역이다. ‘e’로 표기된 지역은 ‘마네-’로 실현되는 지역이다.

한편,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26>과 같다.



<그림26> ‘ㄹㅏㄷㅏ’ ‘C타|Cㅎ~C해’형의 분포

‘C타|Cㅎ~C해’형은 산발적인데, 이는 개신파와 잔재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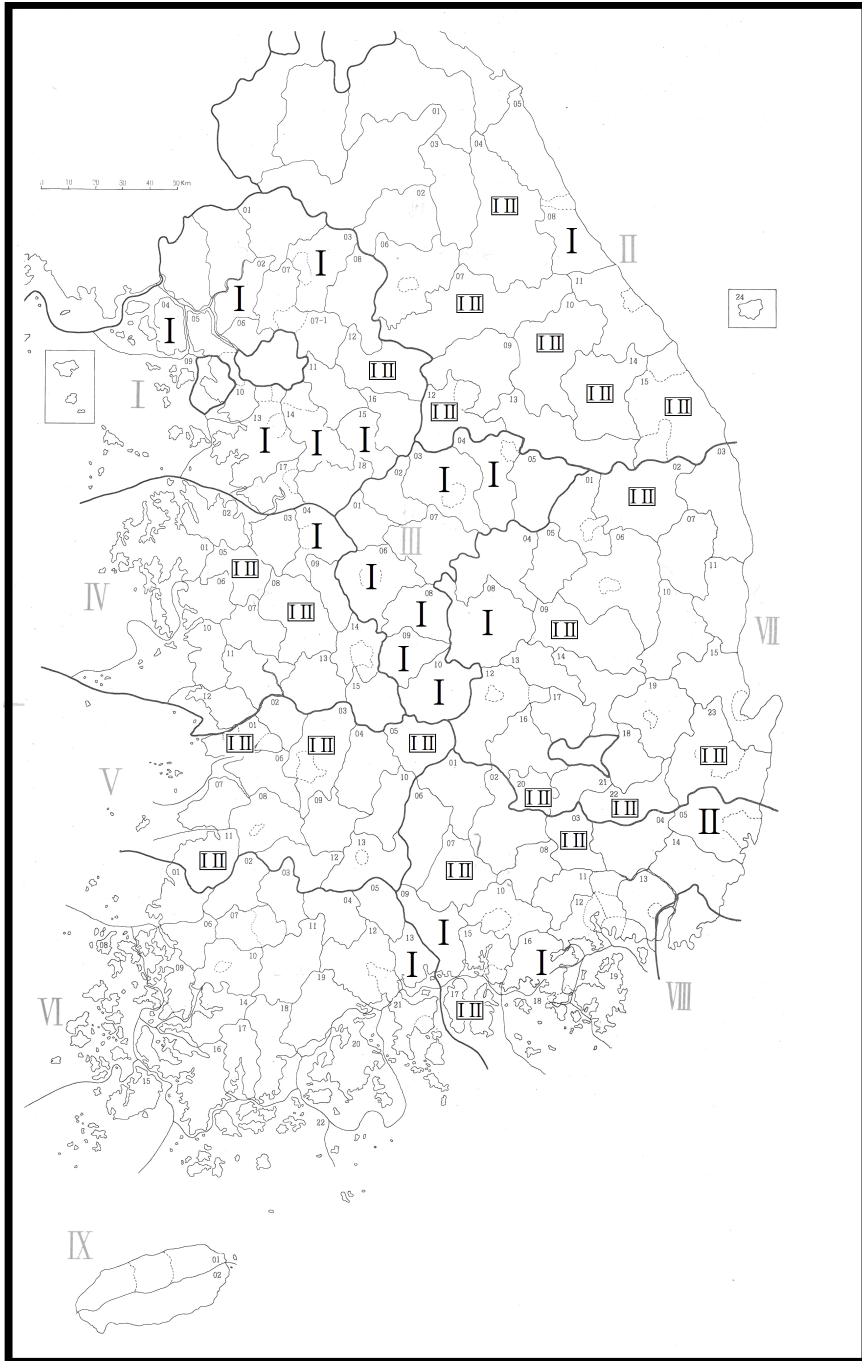
제Ⅲ유형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제Ⅱ유형과 같이 전라북도 완주와 김제에서 실현된다.

- (4) 전라북도 완주: 많-/만해도, 마니도
전라북도 김제: 많-/만해도, 만히어도

《지역어》에서는 ‘많다’가 “Ⅳ.‘C하다|C해’형, Ⅴ.‘C허다|C해’형, Ⅵ.‘C허다|C히’형”으로 실현된 지역도 보고되었다.

제Ⅳ유형인 ‘C하다|C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마나-’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마내-’나 ‘마네-’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제Ⅴ유형인 ‘C허|C해’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어간 말음은 ‘마너-’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어간 말음은 ‘마내-’나 ‘마네-’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제Ⅵ유형인 ‘C허다|C히’형은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마너-’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마니-’나 ‘마녀-’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지역어》에서 조사된 활용 양상은 《자료집》과는 차이가 보인다. 더 다양한 활용형이 나타나 그에 따른 유형 변화도 생긴다.



<그림27> ‘땡-’의 활용 양상(≪지역어≫)

<그림27>에서 볼 수 있듯이 제Ⅰ유형은 거의 경기도, 충청북도,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며 제Ⅱ유형은 경상남도 울주에서 나타난다. 제Ⅰ,Ⅱ유형이 같이 실현되는 곳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도이다. 그 중에 일부 지역은 《자료집》에서 제Ⅰ유형 또는 제Ⅱ유형으로만 실현된다.

제Ⅲ유형은 충청남도 서천, 전라북도 군산, 경상북도 청송에서 제Ⅰ유형, 제Ⅱ유형과 같이 나타난다. 제Ⅳ유형은 전라남도 신안, 영암, 진도,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Ⅰ유형과 같이 실현된다. 제Ⅴ유형은 전라남도 곡성에서 제Ⅰ유형과 같이, 영광, 보성에서 제Ⅱ유형과 같이 실현된다. 제Ⅵ유형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제Ⅰ,Ⅳ유형과 같이, 전라북도 임실에서 제Ⅰ,Ⅴ유형과 같이, 남원에서 제Ⅱ,Ⅴ유형과 같이 실현된다.

- (5) ㄱ. 전라북도 군산: ‘만치, 마테; 마느니까, 마는; 마녀, 마넛쫂, 마넛썩썩, 만히썩’
- ㄴ. 전라남도 신안: ‘만하제, 만체; 만향께, 마낭께, 마능께, 만헌, 마년, 마너먼; 마너썩, 마네썩라우, 만혜제, 마네라’
- ㄷ. 전라남도 영광: ‘망크던, 만타, 마너자나요; 마는, 마너먼; 마네, 마네꼬, 마네도’
- ㄹ. 전라북도 남원: ‘만던지, 만허지; 마는, 만헌디, 마년, 마너먼; 마니썩, 마네썩’

제Ⅳ유형, 제Ⅴ유형, 제Ⅵ유형은 충청북도, 전라도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 제Ⅲ유형은 경상북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자료집》에서 보고된 것과 다르다. 관형사형어미 ‘-은’과 결합할 때 ‘마년’으로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아-계 어미 앞에 ‘마내-’로 실현되는 활용형도 확인된다.

또 다음과 같은 활용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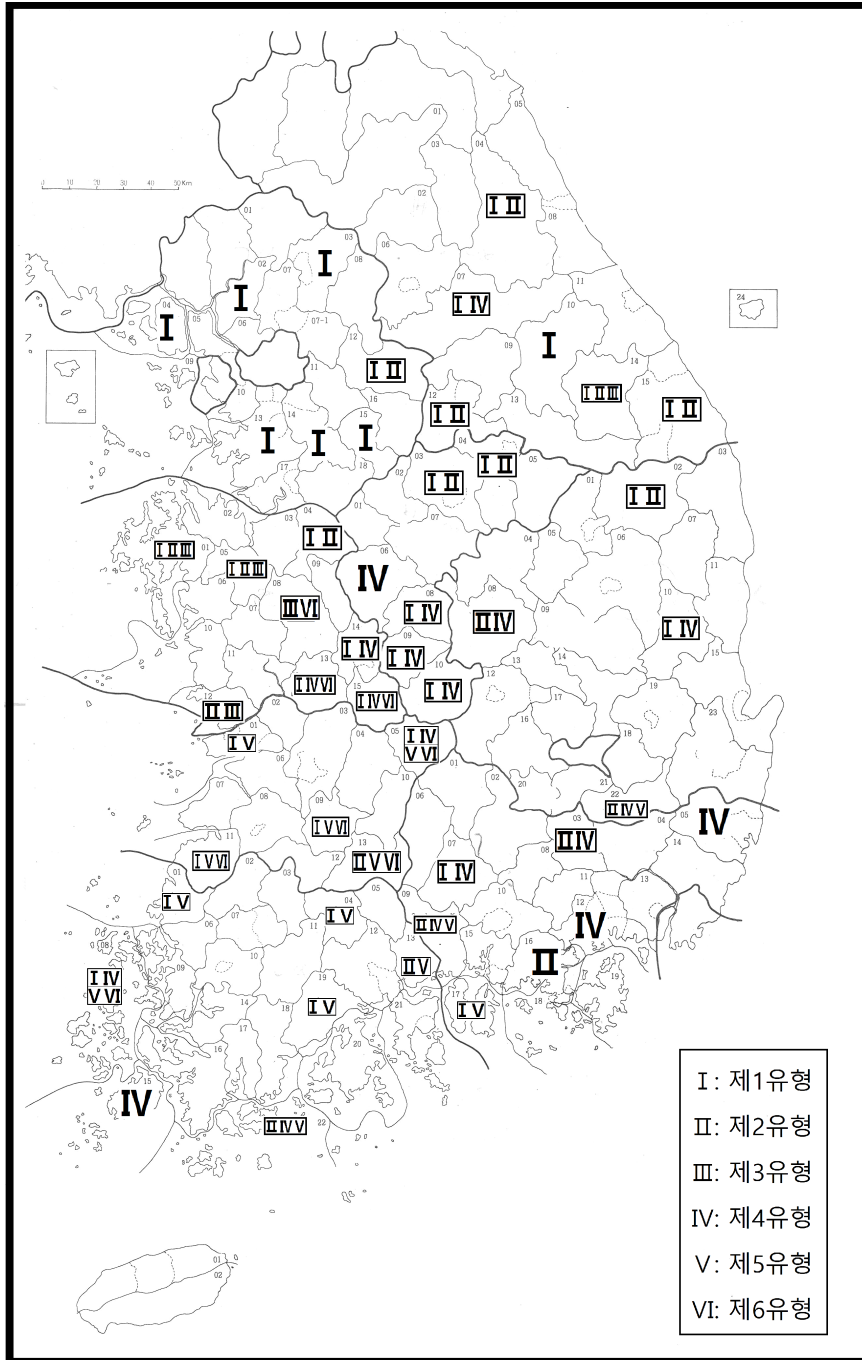
- (6) 강원도 홍천 ‘만해믄(많으면)’

충청북도 청원	‘마느냐(많아야)’
충청남도 대전	‘마느냐(많아)’
전라북도 무주	‘마녕께(많으니까)’
전라북도 임실	‘마느냐고, 마느냐제(많고, 많지)’
경상북도 봉화	‘마넌(많은)’
경상북도 고령	‘마느냐크덩(많거든)’

다음으로 《지역어》에서 나온 ‘(-지)않다, 귀찮다, 괜찮다’의 활용 패턴다임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와 같은 6가지 유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음어미나 으-게 어미 결합형	아-게 어미 결합형
I. ‘C타 Cㅎ’형	안코, 아느니	아나, 아너
II. ‘C타 C해’형	안코, 아느니	아내, 아네
III. ‘C타 C히’형	안코, 아느니	아냐, 아녀
IV. ‘C하다 C해’형	아나고, 아나니; 안하고, 안하니	아내, 아네, 안해, 안혜
V. ‘C허다 C해’형	아너고, 아너니; 안허고, 안허니	아내, 아네, 안해, 안혜
VI. ‘C허다 C히’형	아너고, 아너니; 안허고, 안허니	안혀, 아니

<표12> ‘(-지)않-’의 활용 유형



<그림28> ‘(-지)않-’의 활용 양상(《지역어》)

<그림28>에서 볼 수 있듯이 ‘(-지)않-’은 한 지역에서 여러 유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제 I 유형은 주로 경기도에서 나타나며, 제 II 유형은 경상남도, 제 IV 유형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나타난다. 제 I 유형, 제 II 유형은 주로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제 III 유형은 주로 충청남도에서 나타났으나 강원도 정선에서도 나타난다. 충청북도 남부와 경상북도 남부, 전라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제 IV 유형, 제 V 유형, 제 VI 유형으로도 나타난다. 제 V 유형은 주로 전라북도와 일부 전라남도 지역에서 실현되며 제 IV 유형은 주로 이외의 지역에서 실현된다. 제 VI 유형은 주로 전라북도에서만 나타난다.

- (7) 강원도 정선: ‘안코, 안치만; 아느면, 안하면, 아니하면; 아네요, 아나요, 아녀요, 아나따구, 아나’
 충청북도 영동: ‘안치요. 아나조; 아낭, 아녕, 아느만; 아내씨, 아내요, 아나요’
 전라북도 무주: ‘안코, 아나고, 아너고, 아너자네요; 아는데, 아널; 만튼 아니도(많지는 앓아도), 아내서, 아내요, 아네요, 아나요, 아네, 안햐. 아냐, 안혀, 아녀’

강원도 정선에서 ‘아니하면’과 같이 축약되지 않은 활용형이 나타난다. 강원도 홍천과 전라북도 임실에서 ‘아느지’와 ‘아느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아내니까’와 같은 활용형도 나타난다.

‘(-지)않-’은 ‘많-’보다 제 IV 유형이나 제 V 유형, 또는 제 VI 유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더 넓으며 제 III 유형이나 제 VI 유형으로 실현되는 지역도 더 많다.

‘괜찮-’와 ‘귀찮-’는 지역마다 서로의 활용 패러다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같은 지역에서 ‘(-지)않-’만큼 활용 패러다임이 다양하지 않다. 이는 모두 ‘(-지)않-’에서 온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서 ‘괜찬하-’나 ‘귀찬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않-’보다 적다.

- (8) 충청남도 논산: ‘갠찬터라고; 꺾차능계; 갠차내서, 갠차냐’, ‘귀창코, 귀차나다드라(귀촬다고); 구차나냐(귀촬으냐); 귀차내’
 (‘안쿠, 아나구; 아느면, 아낭계; 아냐. 아나도, 아내씨’)

‘맑-, (-지)얹-, 꺾촬-, 귀촬-’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각각의 제Ⅳ유형과 제Ⅴ유형이 모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과 제Ⅲ유형, 제Ⅵ유형이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서 집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② 같다

《자료집》에서 조사된 ‘같다’²²⁾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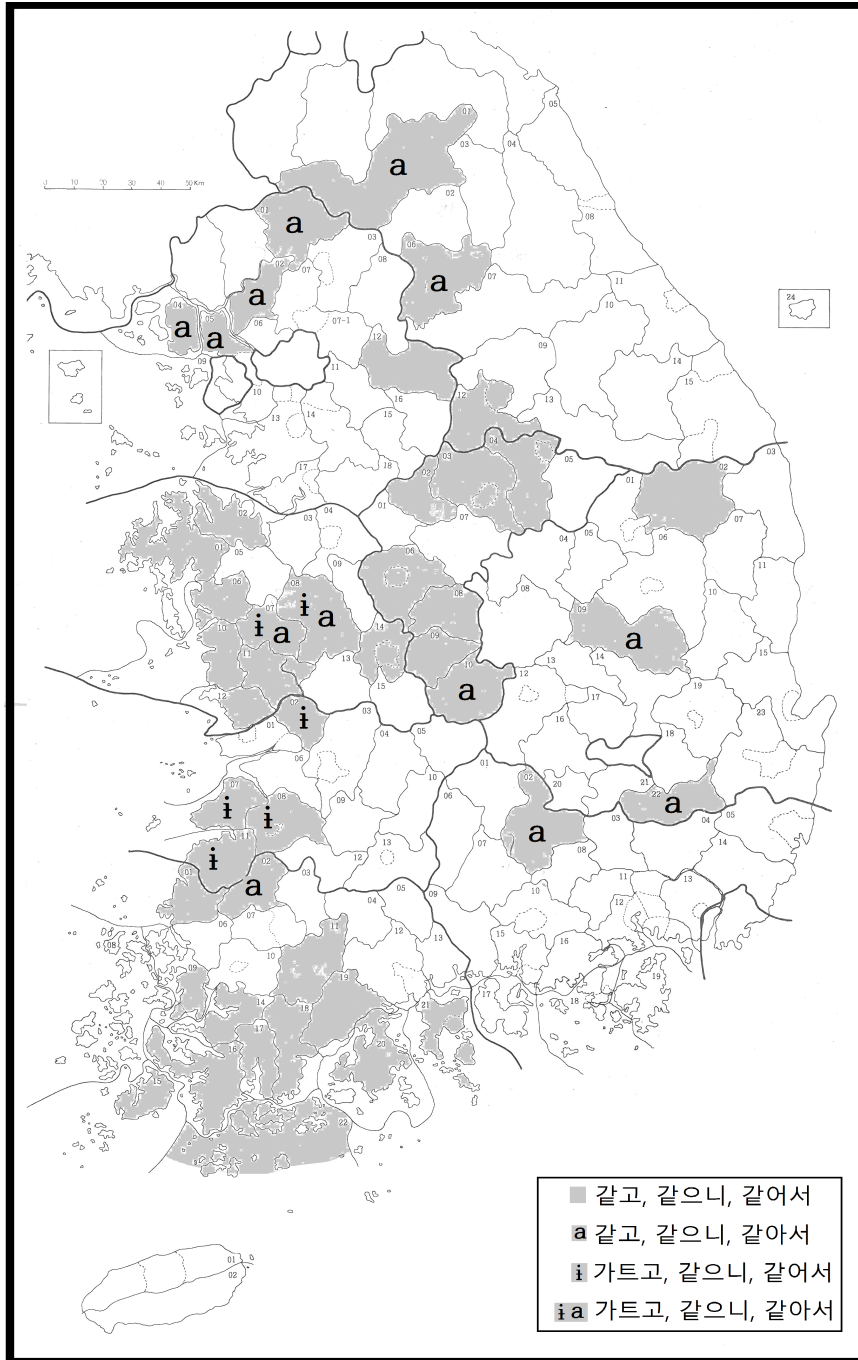
	자음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I. ‘C타 Cㅎ’형	같고, 가트고	가타, 가터
II. ‘C타 C해’형	같고, 곁고, 거트고	가태, 가테, 거태
III. ‘C타 C히’형	같고, 가트고	가티
IV. ‘C하다 C해’형	가타고	가태
V. ‘C허다 C해’형	가터고	가태, 가테
VI. ‘C허다 C히’형	가터고	가티

<표13> ‘같다’의 활용 유형

제 I 유형인 ‘C타|Cㅎ’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같-’ 또는 ‘가트-’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가타-’, 또는 ‘가터-’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가트-’는 어간 말음 축소를 하여 ‘같-’이 생기므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같-’과 같이 논의하겠다. ‘같-’의 어간 말음 축소 현상에 대해서는 후술하겠

22) 《자료집》에서 ‘같다’는 ‘같다’와 ‘같아서’로 조사되었다.

다. 'C타|Cㅎ'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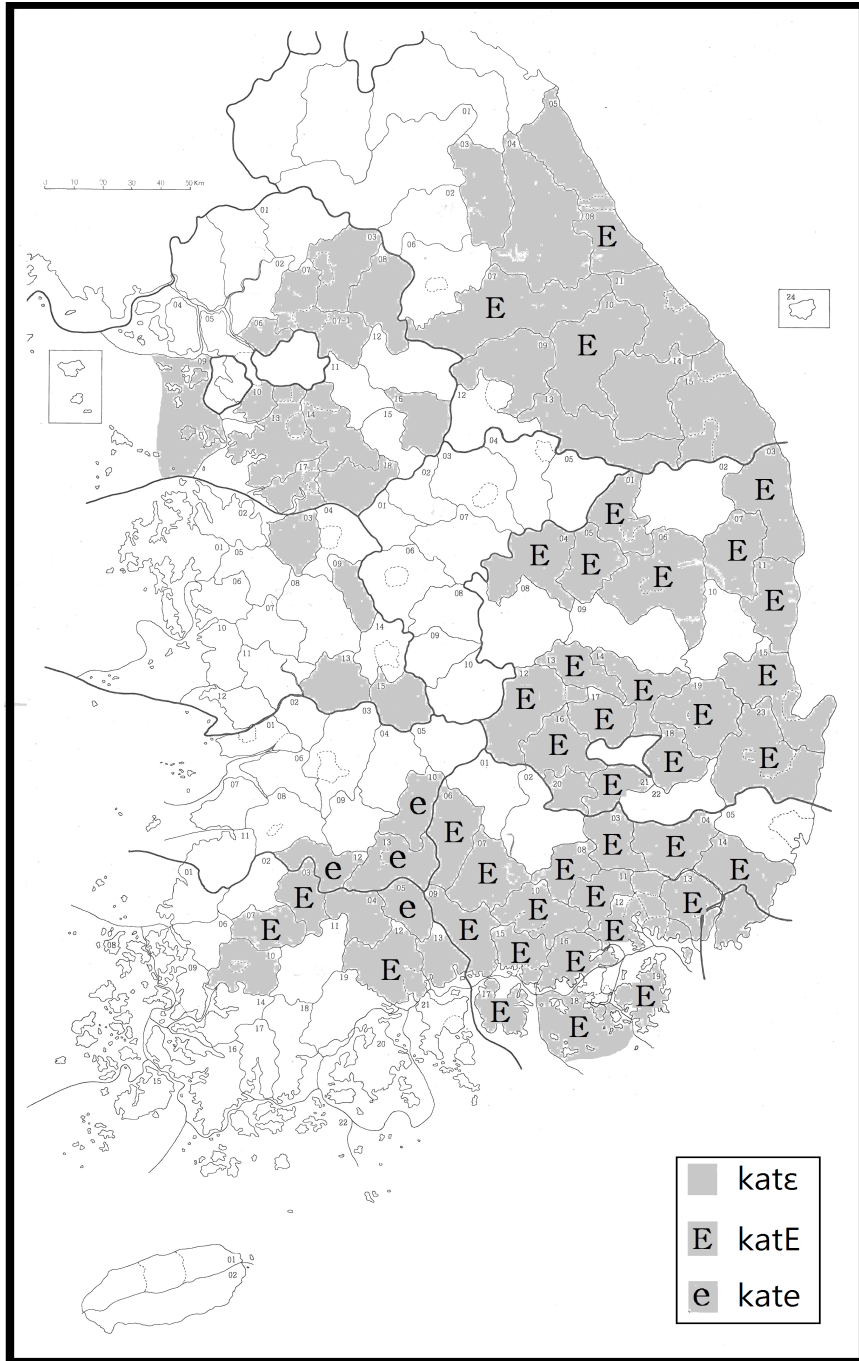


<그림29> '갈-' 'C타|Cㅎ'형의 분포

‘C타|Cㅎ’형은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일부 지역, 충청북도 대부분 지역, 충청남도 서부, 전라북도 서남부, 전라남도 서남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실현된다. ‘맏다’의 ‘C타|Cㅎ’형의 분포와 차이가 많이 난다. ‘a’로 표시된 곳은 아-계 어미 앞에 ‘가타-’로 실현된 지역이며 이는 김아름(2011:15)²³⁾에 따르면 모음조화에 의해 생긴 활용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로 표시된 지역은 자음어미 앞에 ‘가트-’로 실현된 지역이다.

제Ⅱ유형인 ‘C타|C해’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갈-’나 ‘겉-’, 또는 ‘거트-’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가태-’나 ‘거태-’, 또는 ‘가테-’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3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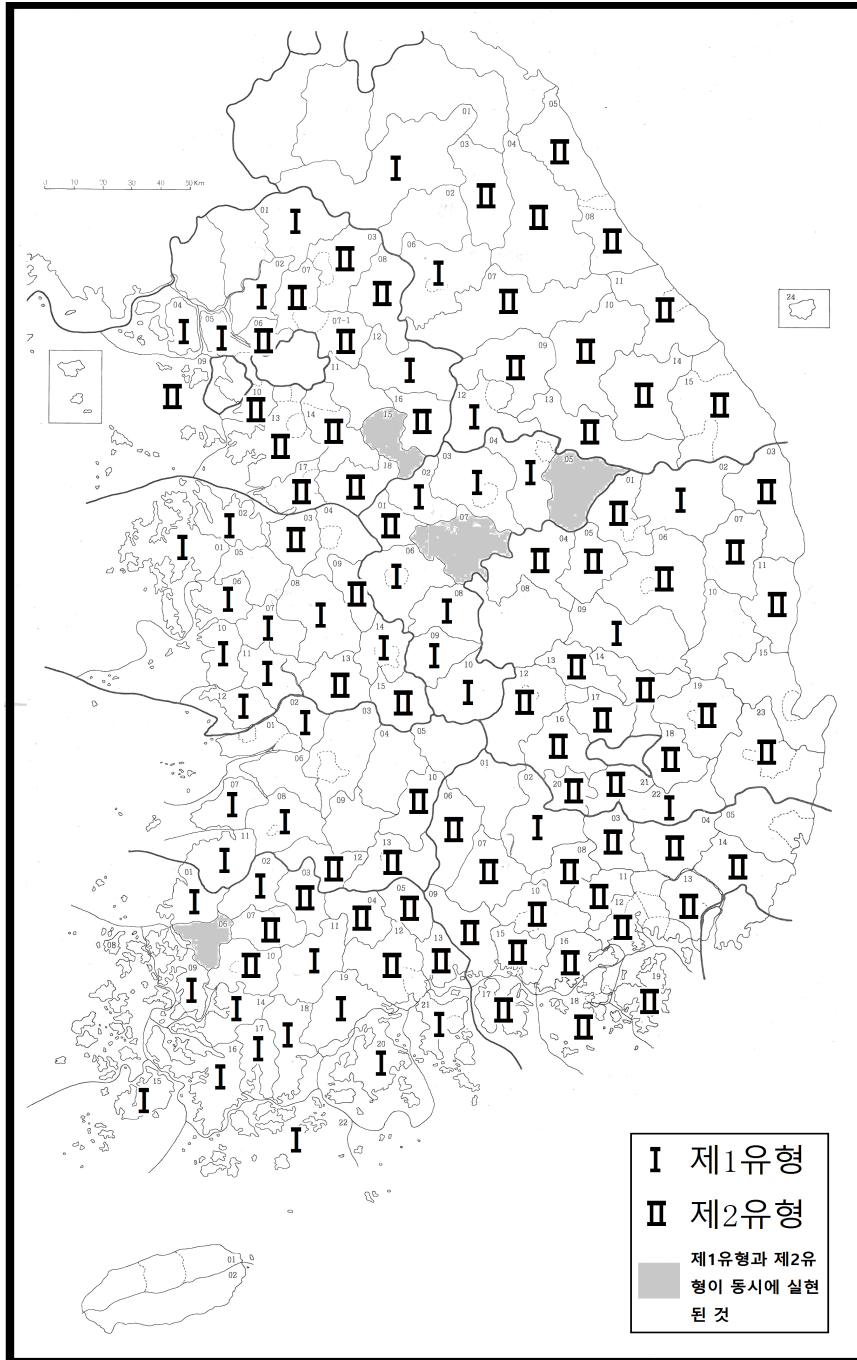
23) 김아름(2011:15)에서 어간말 모음이 ‘ㅏ’인 1음절 및 폐음절 용언 어간의 경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과 전라도의 동부지역, 제주도에서 ‘-아’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고, 경기도 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는 ‘-어’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다고 밝혔다.



<그림30> '갈다' 'C타|해'형의 분포

‘C타|C해’형은 강원도 대부분 지역, 경기도 대부분 지역, 경상도 대부분 지역, 전라북도 동남부, 전라남도 동북부,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E’로 실현된 지역은 /꺀/와 /꺈/를 변별하지 않는 지역이며 ‘e’로 표시된 지역은 아-계 어미 앞에 ‘가테-’로 실현된 지역이다.

한편,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31>과 같다.



<그림31> ‘갈다’ ‘C타|Cㅎ~C해’형의 분포

‘C타|Cㅎ~C해’형은 산발적이며 주변 지역 특성을 생각하면 이 지역들이 전이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Ⅲ유형인 ‘C타|C히’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갈-’, 또는 ‘가트-’로 실현되며,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가타-’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라북도 옥구와 김제에서 나타난다.

제Ⅳ유형인 ‘C하다|C해’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가타-’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가태-’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충청남도 천원에서만 나타난다.

제Ⅴ유형인 ‘C허다|C해’형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가터-’로, 아-계 어미 앞에서는 ‘가태-’나 ‘가테-’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경상남도 거창, 전라북도 진안에서만 나타난다.

제Ⅵ유형인 ‘C허다|C히’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가터-’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가타-’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라북도 완주, 임실에서만 나타난다.

한편 제Ⅰ유형과 제Ⅲ유형이 섞인 패러다임인 ‘가타다, 가터서’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실현되며, 제Ⅱ유형과 제Ⅲ유형이 섞인 패러다임인 ‘가따, 가테서/가티서’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나타난다.

정리하면 규칙 용언은 제Ⅰ유형과 제Ⅱ유형이 많은 지역에서 실현되며, 제Ⅲ유형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서 실현되고, 제Ⅳ유형은 충청도, 전라남도, 경상도에서 나타나며, 제Ⅴ유형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많은 지역에서 실현되고, 제Ⅵ유형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어》를 살펴보면 제Ⅰ유형은 주로 충청북도에서, 제Ⅱ유형은 주로 경상남도에서 나타난다. 제Ⅰ유형과 제Ⅱ유형이 섞인 유형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지역, 충청남도 북부 지역,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같이 나타난다. 제Ⅲ유형은 충청북도 남부 지역에서, 제Ⅵ유형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제Ⅴ유형 또는 제Ⅵ유형은 충청북도 영동과 전라북

도 남원, 고창에서 다른 유형과 같이 나타난다. 충청북도 보은에서 ‘그티여’, 영동에서 ‘가티요’, 옥천에서 ‘거티두, 거티여’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갈-’만의 현상이고 ‘맴-’과 ‘(-지)얹-’의 경우 비슷한 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사와 접미사도 ‘햅’로 나타나므로 이는 격음 뒤에서 잘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9) 충청남도 서산: ‘간깨; 가튼, 가튼디, 가트믄; 가테요. 똑까튬(똑같아요), 또까타거든(똑같아야하거든), 또까트우 데고(똑같아도 되고)’

충청북도 영동: ‘가꼬, 끄지, 가트네요, 똑가터고; 가튼, 꺼튼, 그턴; 가타서, 가터서, 거티요, 가티유, 가태요, 가타요’

‘가터-’와 ‘가타-’ 등의 활용형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만 나타난다. 자음어미 앞에서 ‘가트-’는 많은 지역들에서 실현되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이 활용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가치, 거코, 거트라고, 가타, 가치도 안쿠’와 같은 활용형이 있는바 이 활용형들은 산발적이지만, 충청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외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가트요’, 천안에서 ‘가태조’, 강원 원주에서 ‘거튼한’, 삼척에서 ‘야담하튼(야담같은), 고향하튼(고향같은)’와 같은 활용형도 나타난다.

이러한 ‘갈-’의 활용 양상은 《지역어》에서 조사된 ‘맴-’에 비해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이 섞인 유형으로 많이 실현되고, 기저형이 ‘C하-’로 나타나는 지역이 적고, ‘C햅-’ ‘C혀-’로 나타나는 지역도 충청도, 전라북도에서 실현되는 ‘맴-’과 달리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또 규칙 용언의 경우 으-계 어미 결합형, 특히 관형사형어미 결합형이 더 다양한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10) 충청북도 옥천: ‘망꼬; 마느민, 마넌; 마나, 마너, 마나씨’

‘가꼬, 거꼬; 가트먼, 거트먼, 그튼, 그팅; 가태여, 가
티두, 거티여, 거터’

충청남도 논산: ‘가트고, 각꼬; 가트먼, 거터먼, 가뜰, 가편; 같어여,
가터’

4.2.2. 불규칙 용언

‘하-’와 관련된 불규칙 용언은 ‘ㅎ’ 불규칙 용언과 ‘ㄴ’ 불규칙 용언이 있다. ‘ㅎ’ 불규칙 용언에는 ‘노랗다, 파랗다’등 색채 형용사 등이 있고, ‘그렇다, 저렇다’ 등 지시 형용사도 있다. ‘ㄴ’ 불규칙에는 ‘그러다’ 등이 있다. 《자료집》에서는 색채어인 ‘노랗다’만 그 활용 패러다임이 조사되어 있으며, ‘그렇다’와 ‘그러다’는 모두 아-계 어미 결합형만 조사되어 있을뿐더러 현대 한국어에서 두 용언이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모두 같은 활용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노랗다’의 패러다임만 살펴 보겠다.

색채어는 중세 한국어 시기에 ‘-어 ㅎ다’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어간으로 보이는데 중세 한국어부터 동사 ‘하-’, 조동사, 접미사로 쓰인 ‘-하-’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가 탈락하고,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는 ‘ㅎ’가 탈락하며²⁴⁾,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는 동사 ‘하-’의 변화와 동궤한 변화가 일어나 ‘-히’로 나타나다.

(11) {누러 ㅎ다} 누러꼬, 누런, 누러 ㅎ야

지금은 본말이 소멸하고 ‘거똥다, 누렇다, 벌췌다, 퍼똥다, 허엿다’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하-’와의 활용 패러다임 분포와 차이가

24) 정경재(2015:189)에서는 15세기 중엽~19세기 중엽은 ‘누러 ㅎ리라, 누러 ㅎ, 누런’이라는 활용 형들이 조사되었는데 19세기 중엽에는 ‘누러리라’도 조사되었다는 점에 의해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에서 ‘ㅎ’ 탈락이 시작하여 으-계 어미 결합형까지 확대된다고 파악하였다.

많이 나지만 동사 ‘하-’와 접미사 ‘하-’와 비슷한 평준화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색채어의 공시적 방언 분포를 보기 전에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다. 색채어류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李賢熙(1985)에서 시작하여 李賢熙(1986), 宋喆儀(2004), 정경재(2015) 등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현희(1985, 1986)에서는 ‘누러하다’류와 ‘그러하다’류 형용사의 15세기 활용 양상을 정리하고, 이들의 형태 실현이 ‘하다’와 조동사나 접미사적으로 사용된 ‘하다’와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宋喆儀(2004)에서는 해당 어휘들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과 변화 시기를 정리하였다. 정경재(2015)에서는 ‘엿’ 불규칙 활용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휘 유형별로, 결합 어미별로 살펴보았다. 윤예진(2016)에서는 문헌에서 나온 해당된 어사들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유형화시켰다. 공시적인 방언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정인호(1999) 등이 있다. 정인호(1999)는 전라남도 방언의 색채어를 대상으로 색채어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또 공시적으로 형태론이나 어휘론 분야에서 관련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자료집》은 색채어류인 ‘노랗다’의 조사 항목으로 어미 ‘-고, -(으)니까, -아서, -오/소’와 결합한 방언형을 조사하였다. 《자료집》에서 조사된 ‘노랗다’는 아래의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랗다’인 색채어들이 으-계 어미 결합형과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각각 활용형의 어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음 어미와 구분해서 같이 제시하겠다. 8가지 유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또 제Ⅶ유형인 ‘노허다|노해’형을 추가되었다.

	자음어미 결합형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I. 'C타 Cㅎ'형	노라코, 누러코	노라니, 누러니	노라서, 누러서
II. 'C타 C해'형	노라코, 누러코, 놀코	노라니, 누러니	노래, 누래, 노래
III. 'C타 C히'형	노라코	노라니	노려, 노리
IV. 'C하다 C해'형	놀하고	놀하니	놀해
V. 'C허다 C해'형	놀허고	놀허니	놀해, 놀헤
VI. 'C허다 C히'형	놀허고	놀허니	놀히, 놀혀
VII. 'ㄴ허다 ㄴ해'형	노란허고	노란허니	노란해, 노란히
VIII. 'C하다 C하'형	놀하고	놀하니	놀하

<표14> '노랑다'의 활용 유형

《자료집》에 나타나는 활용 양상을 정리해 보면 각각 '노랑-, 누령-; 노란하-, 노란허-; 놀하-, 놀허-, 놀하-, 놀허-; 노르-, 노러-, 노리-, 노루-'등으로 나타나는바 '노랑-'만이 아닌 몇몇 단어에서 활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노랑-, 누령-'와 같은 'ㅎ'말음 어간은 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며, '노란하-, 노란허-'는 주로 충청남도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실현된다. '놀하-, 놀허-, 놀허-'는 전라도에서만 나타난다. '노르-, 노리-, 노러-, 노루-'는 '노르-'에서 변화한 것이므로 'ㅎ-'와 관련 없는 어형인데, 주로 전라남도 남동부와 경상남도 남서부에서 나타난다.

'노르-'는 비어두 '으>으'의 변화를 겪은 어형이며 '노루-'는 그의 원순모음화 결과이다. '노리-'의 경우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 나타나는 '노리-'로, 전라북도 진안, 전라남도 남동부와 경상남도 남서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는 '히'로 실현된 지역이 아니므로 '노리-'는 '놀히-'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겠다. '누르다, 푸르다'가 '리' 불규칙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와 'X르>X리'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다. 최전승(1992)에서는 ‘X르-’>‘X리-’의 변화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방언에 다 발견된다고 했다. 경상도는 고유의 특질로 보고 전라도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방언 차용의 결과로 보았다. 이는 ‘르’ 불규칙에 대한 설명이지만 ‘X르-’>‘X리-’ 변화를 겪은 지역은 ‘노르-’가 ‘노리-’로 실현된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 《자료집》에서 ‘리’ 규칙 용언의 방언적 활용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르’ 불규칙 용언의 활용 양상을 확인한 결과 경상도 서남부와 그에 인접한 전라남도 지역은 ‘X리-’형으로 많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경상 서남부와 남동부에 실현된 ‘노리-’는 ‘노르->노리-’의 변화로 인해 생긴 어형으로 보겠다. 경상남도의 경우 ‘노리고, 노린, 노리서’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경상도에서 ‘노리-’는 ‘이’ 말음 어간으로서 뒤에 어미 ‘-이서’가 실현되어 ‘노리서, 노리요’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아-계 어미 앞에서 ‘노려-’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리-’에 ‘-어서’가 붙어서 ‘노려’로 실현될 수도 있고, ‘놀혀-’가 ‘놀혀’로 실현되는 가능성도 있다. 또 전라남도에서 가끔씩 아-계 어미 앞에 ‘노리서’로 실현된 지역도 있는데, 이는 앞에 살피본 바와 같이 전라남도 지역이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앞에 기저형으로 평준화가 잘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이다. ‘노려-’는 경상남도에서 ‘노려-[norɾɨ-]’로 실현되는데 이는 경상남도가 ‘으’와 ‘어’를 변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다고 생각한다.

제 I 유형인 ‘C타|C하’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노랑-’, ‘누렁-’로,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라-’, ‘누러-’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라’, ‘누러’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대표 활용형은 ‘노라코, 노라니, 노라서’, 또는 ‘누러코, 누러니까, 누러서’이다. 주로 경기도 파주, 평택, 충청남도 서산, 천원, 서천과 경상남도 거창, 창녕, 양산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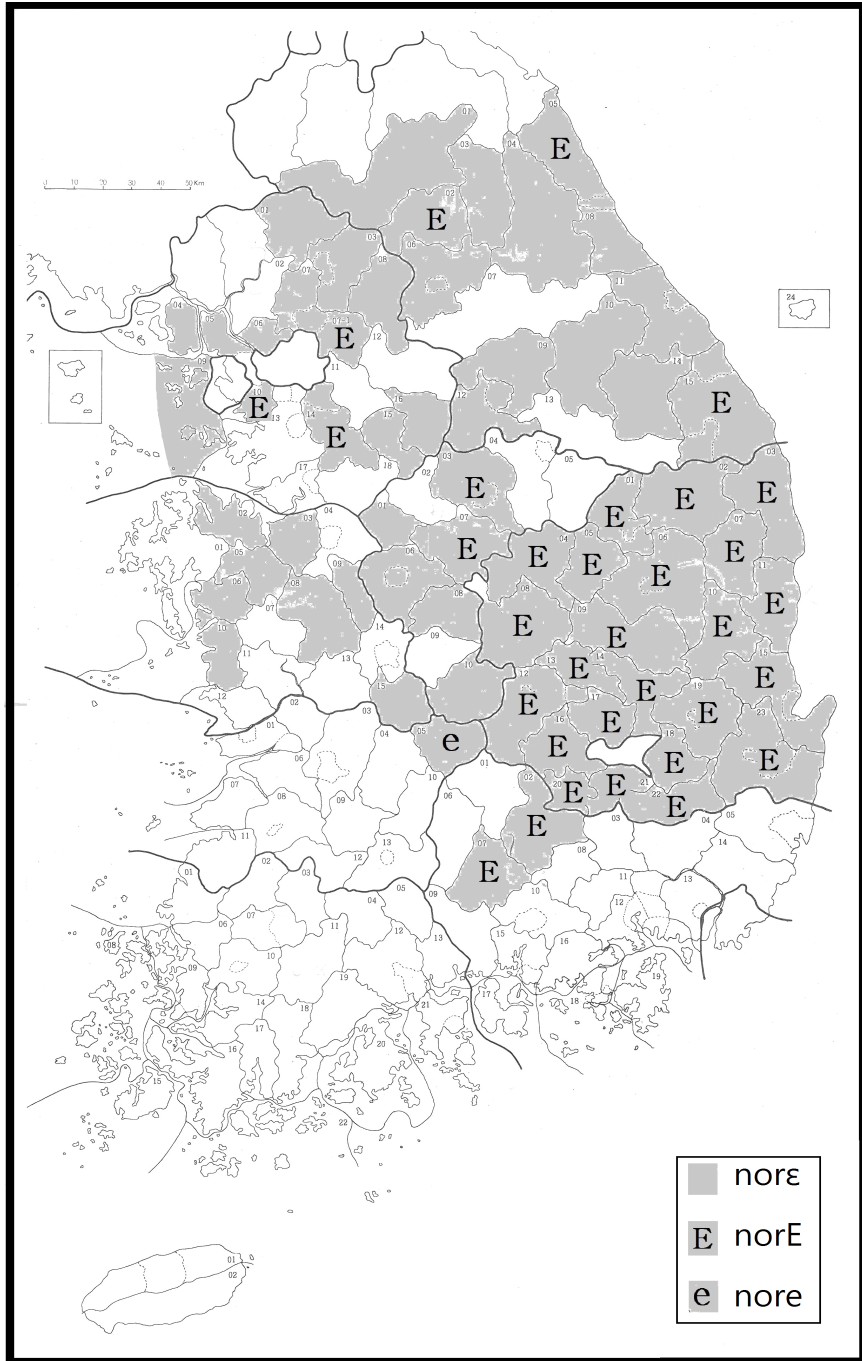
제 II 유형인 ‘C타|C해’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랑-’, ‘누렁-’, 또는 ‘놀ㅎ-’로,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라-’, 또는 ‘누러-’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래’, ‘누래’, 또는 ‘노래-’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대표 활용형은 ‘노라코, 노라니, 노래서’, 또는 ‘누러코, 누러니, 누래서’이

다. 자음어미와 결합해서 ‘놀코’로 실현된 지역은 강원도 명주뿐이다.

(12) 강원 명주: ‘놀코, 노르니, 노래서’

정경재(2015:189)에서는 ‘누리히’에서 추가적인 융합을 통해 ‘노리’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활용형 ‘노레-’는 동사 ‘하-’와 마찬가지로 ‘히>해’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C타|C해’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음영으로 표시하면 <그림32>²⁵⁾와 같다.

25) 경기도 광주11, 양평12, 화성13, 안성18, 강원도 홍천07, 영월13, 충청북도 음성02, 제원04, 단양05, 전라북도 옥구01, 임실09, 고창11, 전라남도 구례05는 전체 활용 패러다임으로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림32> ‘노랑다’ ‘C타|C해’형의 분포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역,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과 전라북도 무주에서 ‘C타|C해’형이 쓰이고 있으며, ‘E’로 표시된 곳은 제2음절 이하 /ㅈ/와 /ㄱ/의 대립이 없이 /norE-/로 보고된 지역이다.

제Ⅲ유형인 ‘C타|C히’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노랑-’로 실현되고, 으-계 어미 결합형에 ‘노라-’로,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려’ 또는 ‘노리’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대표 활용형은 ‘노라코, 노라니까, 노려서’이다. 전라북도 익산, 완주가 있다. 경상남도 울주와 사천에서 ‘노라코, 노라니까, 노리서’로 실현되지만 이 지역들에서 아-계 어미 앞에 ‘이’ 발음 어간일 경우 ‘-이서-’와 결합한다. 또 경상남도는 ‘으>어’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리서’는 ‘놀히-’가 아니라 어간 ‘노리-’가 ‘-이서-’와의 결합형으로 보겠다.

제Ⅳ유형인 ‘C하다|C해’형은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하-’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해-’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은 ‘노라고, 노라니까, 노래서’이다. 전라남도 담양, 영암, 진도, 해남, 장흥, 고흥, 완도에서 실현되며 담양 외에 기타 지역은 모두 전라남도 남쪽에 있다.

제Ⅴ유형인 ‘C허다|C해’형은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해-’나 ‘놀헤-’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은 ‘노려고, 노러니까, 노래서’이다. 전라북도 순창과 전라남도 영광, 곡성, 함평, 나주, 화순에서 이 유형으로 실현된다.

제Ⅵ유형인 ‘C허다|C히’형은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허-’나 ‘놀히-’로 실현되고,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놀히-’, 또는 놀혀-’로 실현되는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은 ‘노려고, 노러니, 노리서’이다. 전라북도 부안, 정읍, 장수, 남원에서 이 유형으로 실현되며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제Ⅳ유형과 같이 이 유형도 나타난다.

제Ⅶ유형인 ‘ㄴ허다|ㄴ해’형은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결합형에 ‘노란허-’ 또는 ‘노랑허-’로, 아-계 어미 앞에 ‘노라내-’ 또는 ‘노랑해-’로 실현된

유형이다. 대표 활용형은 ‘노란허고, 노란허니, 노라내서’이다. ‘-언/안 흐-’ 또는 ‘-엉/양 흐-’는 제주도, 전라북도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정인호 1999:64). 이 유형은 충청남도 청양, 대덕과 제주도에서 나타난다.

제Ⅱ유형인 ‘C타|Cㅎ’형과 제Ⅶ유형인 ‘ㄴ허다|ㄴ해’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자음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랑-’로,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는 ‘노란하-’로, 아-계 어미 앞에서는 ‘노란해-’로 실현된다. 이 유형은 충청남도 부여, 논산에서 실현된다.

충청남도 서부 지역인 청양, 부여와 달리 동부 지역인 논산과 대덕에서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 결합형에 ‘노란하-’로 실현된다. 이는 동사 ‘하-’에서 ‘하-’, ‘허-’의 실현 양상과 일치한다. 이 유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한 유형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제Ⅲ유형인 ‘C타|C히’형과 제Ⅶ유형인 ‘ㄴ허다|ㄴ해’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노랑-/노란허-, 노라-, 노려-’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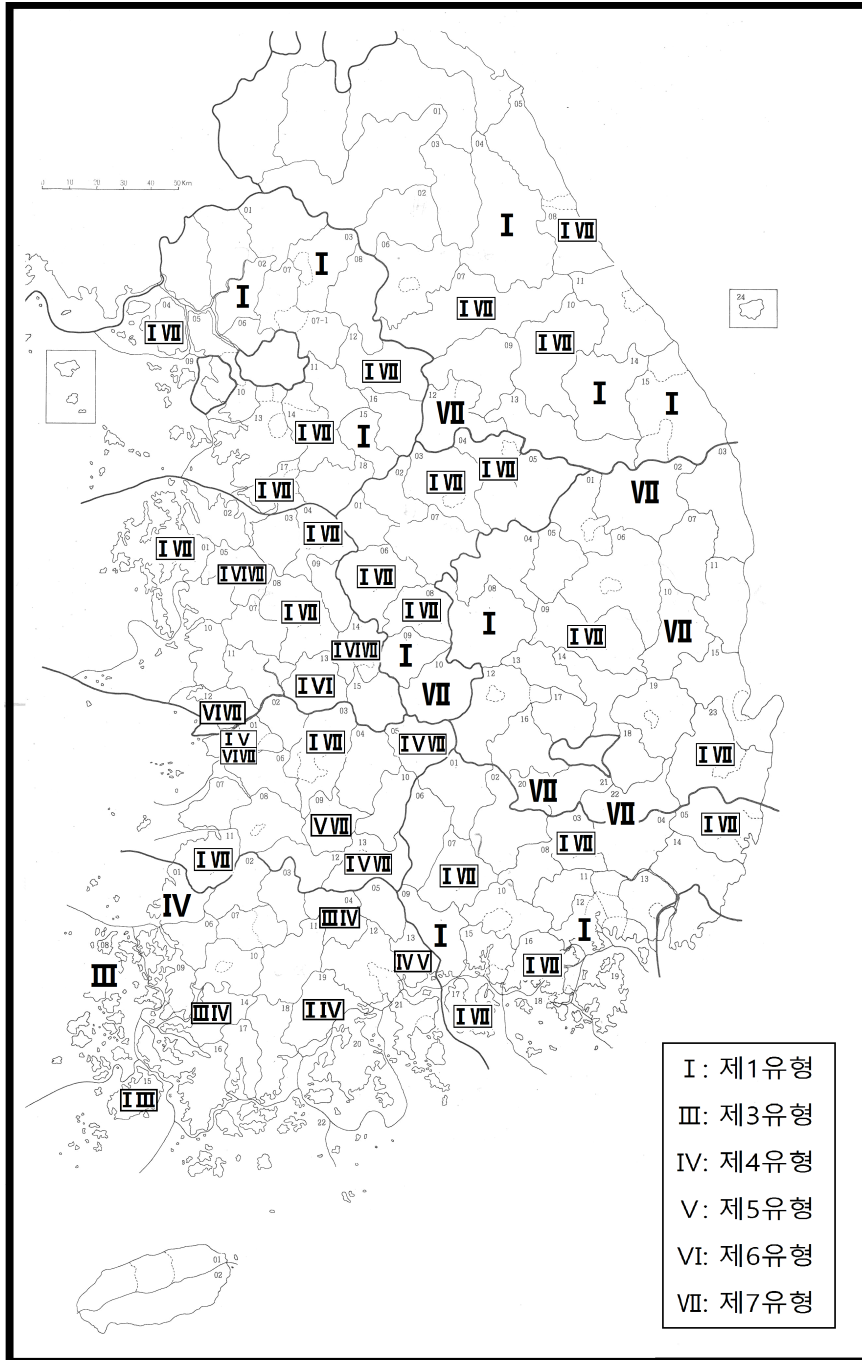
제Ⅷ유형인 ‘C하다|C하’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노라-, 노려-’로 실현되고, 으-계 어미 결합형에서 ‘노라-, 누려-, 노려-’ 등으로 실현되며,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노라-, 누려-, 노려-’로 실현되는 유형을 말한다. 대표 활용형은 ‘놀하고, 놀하니까, 놀하서’이다. 주로 전라남도에서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불규칙 용언의 ‘C타|C하’형은 주로 경기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서 나타나며, ‘C타|C해’형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며, ‘C타|C히’형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서, ‘C하다|C해’형이 전라남도, ‘C허다|C해’형이 전라도, ‘C허다|C히’형은 전라북도, ‘ㄴ허다|ㄴ해’형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C하|C하’형은 주로 전라남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지역어》에서 나온 ‘빨강-’, ‘노랑-’, ‘파랑-’, ‘까맣-’, ‘하얗-’ 등 색채

어와 ‘동그랑-’, ‘X다랑-’ 등의 단어를 살펴보겠다.

제Ⅱ유형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나타난다. 제Ⅷ유형인 ‘노랑-, 노라-, 노라-’는 다른 유형과 같이 전라남도 외에 여러 지역에서 실현된다. 각 유형과 그로 실현된 지역은 <그림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33> 색채어 활용 양상(《지역어》)

<그림33>에서 보다시피 제Ⅱ유형은 전역에서 골고루 나타나며, 제Ⅷ유형은 다른 유형과 같이 전라남도 외의 지역에서 실현된다. 제Ⅳ유형과 제Ⅴ유형은 전라남도에서 나타나며, 제Ⅵ유형은 주로 전라북도에서 다른 유형과 같이, 제Ⅶ유형은 충청남도에서 다른 유형과 같이 나타난다.

- (13) ㄱ. 전라남도 곡성: - ; 호건, 호간; 히게서, 호개서
 ㄴ. 전라북도 무주: 새파라코, 새퍼러코; 새파라이; 새파랫-, 새파랏-, 새파라
 ㄷ. 충청남도 서천: 노라쿠, 노란허구, 노란쿠; 노란헌, 노란; 노라서
 하얀코, 하에녀이, 하얀, 하야닌; 하야내, 호연네서
 호연케 ; 호연 ; 호연허여, 허여냈-

강원도 홍천에서 ‘빨개쿠’, 삼척에서 ‘허예쿠’, 충청북도 제천에서 ‘파래치’, 충청남도 천안에서 ‘하예쿠’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지역들은 동사나 접미사의 경우 ‘해디해’형으로 실현되었다. 또 충청북도 보은과 옥천에서는 각각 ‘허연하고, 허연하개, 둥구란하고, 뽀얀하지요’와 ‘빨가나이, 노라내서, 빨가내서, 하야내서’와 같은 활용형도 나타난다.

충청남도 논산과 대전에서 아-계 어미 앞에서 ‘노란햐’, ‘빨가냐’, ‘보안햐’²⁶⁾도 조사되었다. 이 활용형들은 《지역어》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전라북도 무주에서도 아-계 어미 앞에 ‘노란혀서, 빨가녀, 새파랴(무주)’와 같은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또 무주에서 ‘노라히, 빨간히, 허연히, 부연히’ 등을 ‘노랑게, 빨강게, 허영게, 부영게’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임실에서 ‘노리서’와 같이 ‘퍼리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르->노리’와 동궤한 현상으로 보겠다.

전라남도에서 조사된 활용형은 ‘껌허-, 팔허-, 놀허-, 빨허-, 흑허-, 둥그롭허-, 지덴허-’ 등으로 ‘팔하드라, 팔한, 팔해서’²⁷⁾, ‘빨하드라, 빨간, 빨

26) 뒤에 모두 반말체 종결어미가 오는 경우이다.

27) 《지역어》에서는 ‘키’와 ‘히’가 변별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키’로 전사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중시하여 ‘히’로 전사하겠다.

개서’, ‘놀허게, 놀헌, 놀혔다’와 같은 활용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 ‘-하-’의 실현은 동사 ‘하-’에서 살펴본 ‘하’ ‘히’의 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빨가나코, 똥그라나타, 뿌어나코’와 같은 활용형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충남에서 나타난다.²⁸⁾

4.3. 통시적 발달 과정

① ‘C타|Cㅎ’형

이 유형의 패러다임은 ㄴ말음 또는 ㅌ말음 어간의 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 즉 기저형이 ‘ㄹ-’, ‘ㄱ-’인 것이다. 아-계 어미 결합형 ‘마나-/마너-’, ‘가타-/가터-’에 대해 김아름(2011:15)²⁹⁾에서 보고된 모음조화 지역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유형에 속한 패러다임은 ‘ㄱ’ 규칙활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같다’의 경우 자음어미 앞에 ‘가트-’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ㄱㅎ-’와 함께 ‘ㄱㅌ-’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정아(1998:84)에서 이를 두고 ‘ㄱ-ㅎ다’인 ‘ㄱㅎ다’의 표기가 16세기를 거쳐 근대 한국어로 오면서 점점 ‘ㄱㅌ다’ 계통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음어미 결합형인 ‘가트고’는 음변화에 의해 생긴 것으로, ‘같-’은 ‘가트-’에서 어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지역어》에 조사되어 있는 ‘바라다~바래다’, ‘나무라다~나무래다’, ‘놀라다~놀래다’, ‘만나다~만내다’, ‘모자라다~모자래다’, ‘떠나다~떠내다’, ‘보타다~보태다’, ‘보차다~보채다’ 등 단어쌍을 확인한 결과, ‘ㅈ’형의 지역적 분포는 단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나무라다~나무래다’, ‘놀라다~놀래다’, ‘만나다~만내다’, ‘모자라다~모자래다’는 거의 모든 조사된 지역에서 ‘ㅈ’형으로 실현되고, ‘떠나다~떠내다’는 경기도 포천에서만 ‘떠내가구’라는 예가 나타나며, 나머지 단어들은 도마다 ‘ㅈ’형으로 실현된 지역이 있다.

29) 김아름(2011:15)에 따르면 어간말 모음이 ‘ㄱ’인 1음절 및 폐음절 용언 어간의 경우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과 전라도의 동부지역, 제주도에서 ‘-아’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고, 경기도 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는 ‘-어’계 어미의 실현율이 높다.

② 'C타|C해'형

이 유형은 자음어미 결합형이 중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맏-’, ‘갈-’, ‘노랑-’으로 유지한 것이고, 아-계 어미 앞에 ‘마네-’, ‘가태-’, ‘노래-’로 실현되는 것은 중세 한국어에서 ‘만희-’, ‘간희-’, ‘노라희-’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李賢熙(1993/1998:272)에서는 ‘파래-’, ‘마네-’, ‘가태-’는 각각 그들 동사의 15세기 어간형 ‘파라흐-, 만흐-, 곧흐-’가 ‘아’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통합 과정에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이들은 ‘만흐야>마네’, ‘곧흐야>가태’, ‘노라흐야>노래’의 변화 과정을 겪어 형성된 것이다. 정경재(2015:189)에서는 ‘누러히, 그러히’에서 추가적인 융합을 통해 ‘노리, 그리’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라히>노리>노래’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것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맏다’, ‘갈다’, ‘노랑다’는 이 유형에 활용 양상이 서로 다르지만 아-계 어미 결합형 ‘마네-’, ‘가태-’, ‘노래-’로 실현되는 지역이 동사 ‘하-’의 제 I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 자음어미 앞에 ‘마네-’, ‘가태-’, ‘노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라북도에서 실현되며, ‘마네-’는 충청남도 서부 지역에도 실현되는 점이 동사 ‘하-’와 같다. 따라서 ‘마네-’, ‘가태-’, ‘노래-’가 실현되는 것은 동사 ‘하-’가 아-계 어미 앞에서 ‘해-’로 실현되는 것과 동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음어미 앞에서 ‘갈다’는 ‘갈-’도 나타나는데 이는 어두 ‘으>어’의 변화를 걸쳐 ‘갈-’로 실현된 결과이다. 저 앞의 <그림3>과 <그림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으’가 ‘어’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다. ‘노랑다’는 ‘놀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어근 ‘놀-’이 접미사 ‘-흐-’와 결합하여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으’가 탈락하여 나타나는 어형이다.

③ 'C타|C히'형

이 유형이 실현된 지역은 모두 전라북도이다. 이는 동사 ‘하-’나 접미사 ‘X하-’의 아-계 어미 결합형 ‘히:-’와 ‘혀-’가 나타나는 지역과 같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아-계 어미 결합형도 ‘C타|C해’형과 같이 중세 한국어 ‘아’로 시작되는 어미와의 통합 과정에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동사 ‘하-’와 동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④ ‘C하다|C해’형

‘C하다|C해’형에 해당되는 단어는 ‘같다’와 ‘노랗다’ 밖에 없다. 이 유형에 대해 중세 한국어 시기 기저형을 으-계 어미 앞 기저형으로 잡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대 한국어에서 아-계 어미 기저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같-, 많-, 노랗-’은 으-계 어미 결합형으로 실현되는 사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 시기에 기저형을 으-계 어미 앞 기저형으로 잡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곶ㅎ다’를 예로 들면 ‘곶고, 곶ㅎ면, 곶ㅎ야’에서 으-계 어미 앞 기저형 ‘곶ㅎ-’를 자음어미 앞까지 확대하여 ‘곶ㅎ고, 곶ㅎ면, 곶ㅎ야’로 실현된다. 후에 와서 음변화에 의해 ‘가터고, 가터면, 가테-’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라-’의 경우 전라남도 고흥에서 자음어미 결합형 ‘놀하다’로 나타나는 예가 있으며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잘 탈락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하-, 놀해-’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타-’도 마찬가지로 ‘ㄷ’이 ‘ㅎ’과 축약하여 유기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간하-, 간해-’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유형은 동사 ‘하-’가 제 I 유형으로 실현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 제 I 유형과 동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C허다|C해’형, ‘C허다|C히’형

‘C허다|C해’형은 ‘가터-, 가테-’, ‘노러-, 노래-/노레-’로 모두 전라남도

북부에서 실현되며 ‘C허다|C히’형은 ‘가터-, 가티-’, ‘누리-, 누리-’로 모두 전라북도에서 실현된다. 이런 지역 분포상의 특징을 감안하면 제IV 유형과 마찬가지로 으-계 어미 앞의 활용형을 기저형으로 볼 수 있고 음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 용언	불규칙 용언
I. ‘C타 Cㅎ’형	많은 지역에서 실현됨.	경기, 충남, 경남 일부 지역
II. ‘C타 C해’형	많은 지역에서 실현됨.	많은 지역에서 실현됨.
III. ‘C타 C히’형	충청, 전북	전북, 경남
IV. ‘C하다 C해’형	충청, 전남, 경상	전남
V. ‘C허다 C해’형	경기, 경상, 전라(다수)	전라
VI. ‘C허다 C히’형	전북, 충남	전북
VII. ‘ㄴ허다 ㄴ해’형	없음.	충남, 전북, 제주
VIII. ‘C타 C’형	(확인하기 어려움)	주로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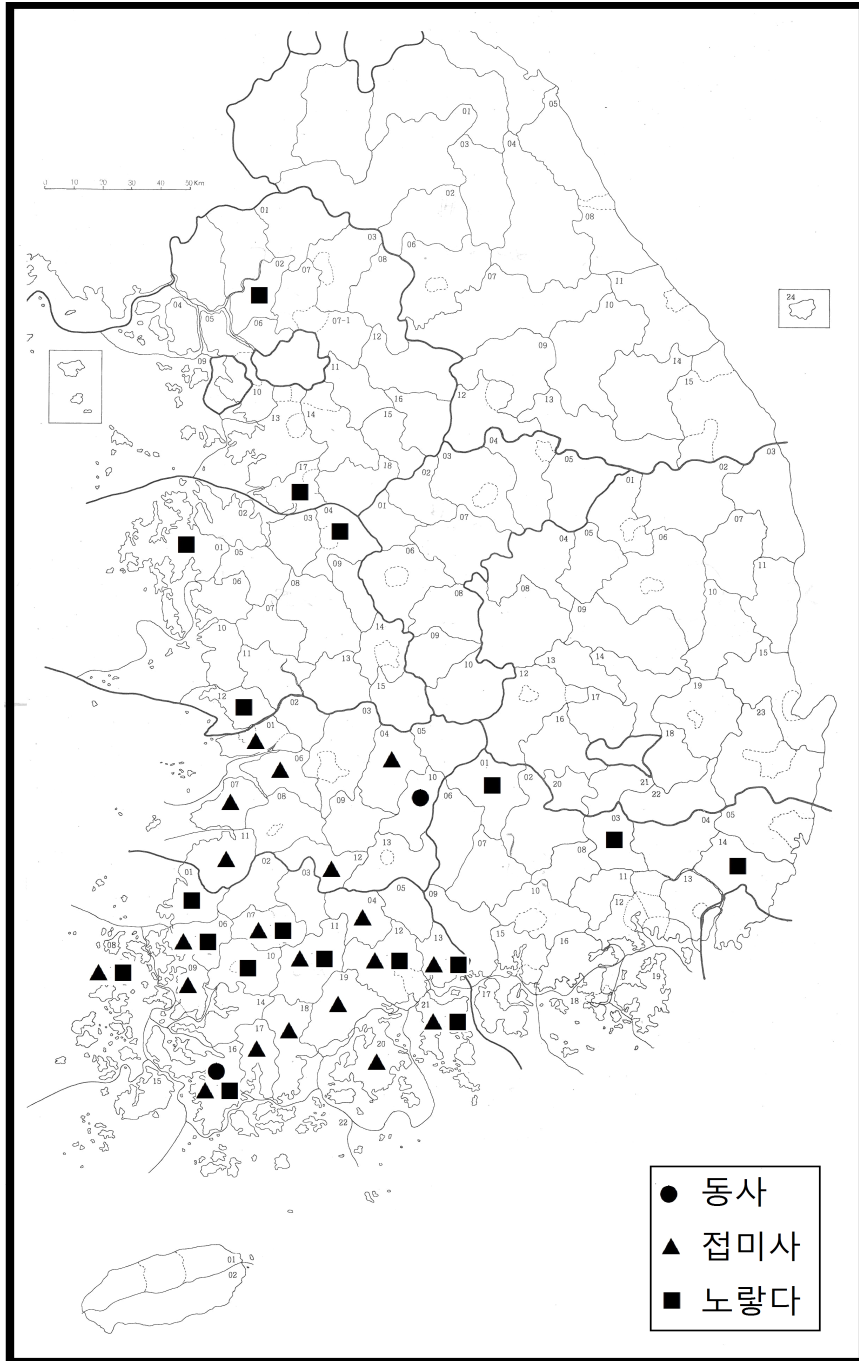
<표15> ‘하-’와 관련된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방언 분포

‘C타|C해’형이 많은 지역에서 실현되며 접미사 ‘-하-’가 이 유형으로 실현된 지역에 포함된다. ‘C타|C히’형이 모두 전라북도에서 실현되는데, 규칙 용언의 경우 충청도에서도 나타나며, 불규칙 용언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나타난다. ‘C하다|C해’형과 ‘C허다|C해’형, 그리고 ‘C허다|C히’형이 규칙 용언이 보다 넓으며 ‘C하다|C해’형과 ‘C허다|C해’형의 경우 규칙 용언이 훨씬 넓은 편이다. ‘C타|C’형은 규칙 용언의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

‘노랗다’의 경우 ‘C타|Cㅎ’형으로 평준화된 지역이 있는 것과 같이 동사 ‘하-’와 접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된다. ‘노랗다’의 평준화 현상과 달리 동사 ‘하-’와 접미사 ‘X하-’는 주로 자음어미 앞에 기저형으로

평준화된 경우가 많다.³⁰⁾ 즉 아-계 어미 앞에서 자음어미 결합형 어간으로 실현되는 폐러다임을 말한다. 지도에서 동사(●), 접미사(▲), 노랗다(■)로 그리면 <그림34>과 같다. 거의 다 전라남도에서 실현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30) 동사 ‘하-’와 접미사 ‘X하-’는 자음어미 앞과 으-계 어미 앞에 같은 모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으-계 어미 앞에 기저형으로 평준화된다고 보아도 상관없다.



<그림34> 평준화 지역(《자료집》)

5. 동사 ‘하-’, 접미사 ‘-하-’, ‘하-’ 관련 용어의 비교

지금까지 동사 ‘하-’, 접미사 ‘-하-’, ‘하-’와 관련된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활용 양상을 논의해 보았다.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활용 유형은 6가지로, 각각의 유형은 I. ‘x하다|x해’형, II. ‘x허다|x헤’형, III. ‘x해다|x해’형, IV. ‘x허다|x히’형, V. ‘x하다|x하’형, VI. ‘x하다|x하’형³¹⁾이다. 각 유형의 분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³²⁾.

31) x는 ‘하-’ 앞에 선행요소를 대표하여 X와 달리 ∅일 수도 있다. 즉 ‘x하다’는 접미사 ‘-하-’ 뿐만 아니라 동사 ‘하-’도 대표할 수 있다.

32) 《자료집》을 대상으로 하여 활용 양상의 분포를 정리한다. 기호는 3.2에서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

활용 유형	부류	경 기	강 원	중 북	중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I. 'x하다 x해'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II. 'x허다 x헤'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x하다~x허다 x 해'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III. 'x해다 x해'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IV. 'x허다 x히'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x허다 x헤~x히' 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V. 'x하다 x하'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VI. 'x하다 x하'형	동사 하-	○	○	○	○	○	○	○	○
	명사+-하-	○	○	○	○	○	○	○	○
	부사+-하-	○	○	●	●	○	○	○	○
	어근+-하-	○	○	○	●	○	○	○	○

<표16>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활용 양상 분포 비교

‘x하다|x해’형은 접미사 부류들이 서로 비슷하며 동사 ‘하-’보다 넓게 실현된다. ‘x허다|x헤’형은 동사 ‘하-’가 경기, 충남, 전남에서만 나타나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 즉 전북에서도 나타난다. ‘x하다~x허다|x해’형은 동사 ‘하-’가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서 나타나는데 접미사는 거의 모든 도에서 실현된다. ‘x해다|x해’형은 동사 ‘하-’나 접미사 ‘-하-’나 모두 경기, 강원에서 나타나며 접미사의 경우 다른 도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x허다|x히’형은 ‘어근+-하-’ 부류 외에 모두 전북에서 실현된다. ‘x허다|x헤~x히’형은 접미사에만 나타나며 모두 충남과 전북에서 실현된다. ‘x하다|x하’형은 모두 전라도에서 실현된다. ‘x하다|x하’형은 ‘부사+-하-’와 ‘어근+-하-’ 부류만 충청도에서 나타난다.

<표16>에 의하면 ‘x허다|x헤~x히’형과 ‘x하다|x하’형 외에 각 유형은 접미사 ‘-하-’가 동사 ‘하-’보다 더 많은 도에서 실현된다. 각 유형이 실현되는 지역 분포는 비슷한데 그 폭이 다르며 2.2과 3.2에서 나온 지도와 같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 ‘x하다|x해’형 동사 ‘하-’>‘명사+-하-’>‘부사+-하-’>‘어근+-하-’
2. ‘X허다|x헤’형 ‘부사+-하-’>동사 ‘하-(전북 없음)’>‘어근+-하-’>‘명사+-하-’
3. ‘x해다|x해’형 ‘명사+-하-’>‘부사+-하-’>‘어근+-하-’>동사 ‘하-’
4. ‘x허다|x히’형 동사‘하-’>‘명사+-하-’=‘부사+-하-’>‘어근+-하-’(없음)
5. ‘x하다|x하’형 ‘어근+-하-’>‘부사+-하-’>‘명사+-하-’≈동사 ‘하-’
6. ‘x하다|x하’형 ‘부사+-하-’>‘어근+-하-’>동사 ‘하-’(없음), ‘명사+-하-’(없음)
7. ‘x하다~x허다|x해’형 ‘어근+-하-’>‘명사+-하-’>동사‘하-’>‘부사+-하-’
8. ‘x허다|x헤~x히’형 ‘명사+-하-’>‘부사+-하-’>‘어근+-하-’>동사+-하-’(없음)

‘하-’와 관련된 용언은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

는데 크게 I. ‘C타|Cㅎ’형, II. ‘C타|C해’형, III. ‘C타|C히’형, IV. ‘C하다|C해’형, V. ‘C허다|C해’형, VI. ‘C허다|C히’형 6 가지 활용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분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 그 유형만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라, 그 유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다.

활용 유형	부류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I. ‘C타 Cㅎ’형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II. ‘C타 C해’형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III. ‘C타 C히’형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IV. ‘C하다 C해’형	동사 하-	○	●	●	●	○	●	●	●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V. ‘C허다 C해’형	동사 하-	●	○	○	○	○	○	○	○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VI. ‘C허다 C히’형	동사 하-	○	○	○	○	○	○	○	○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VIII. ‘C하다 C하’	동사 하-	○	○	○	○	○	○	○	○
	많다	-	-	-	-	-	-	-	-
	같다	-	-	-	-	-	-	-	-
	노랗다	○	○	○	○	○	○	○	○

<표17> 동사 ‘하-’와 접미사 ‘-하-’의 활용 양상 분포 비교

크게 보면 ‘많다’, ‘같다’, ‘노랗다’는 모두 주로 ‘C타|Cㅎ’형과 ‘C타|C해’형으로 실현되지만, 각 유형에 각 부류가 실현되는 지역 분포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노랗다’는 ‘갈다’와 마찬가지로, ‘C타|C히’형, ‘C하다|C해’형, ‘C허다|C혜’형, ‘C허다|C히’형이 주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실현된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부류 ‘C하다|C해’형, ‘C허다|C혜’형, ‘C허다|C히’형, ‘C하다|C하’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동사 ‘하-’ 또한 해당 유형으로 실현된다.

각 유형이 실현되는 지역 분포의 폭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 | | |
|-----------------|-----------------------------|
| (2) I. ‘C타 Cㅎ’형 | ‘많다’>‘갈다’>‘노랗다’ |
| II. ‘C타 C해’형 | ‘많다’≈‘갈다’≈‘노랗다’ |
| III. ‘C타 C히’형 | ‘갈다’≈‘노랗다’>‘많다’(없음) |
| IV. ‘C하다 C해’형 | ‘노랗다’>‘갈다’>‘많다’(없음) |
| V. ‘C허다 C혜’형 | ‘노랗다’>‘갈다’>‘많다’(없음) |
| VI. ‘C허다 C히’형 | ‘노랗다’>‘갈다’>‘많다’(없음) |
| VIII. ‘C하다 C하’형 | ‘노랗다’>‘갈다’, ‘많다’(확인하기 어렵다.) |

(1)와 (2)의 비교 내용을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1. ‘x하다|x해’형: 동사 ‘하-’>‘명사+-하-’>‘부사+-하-’>‘어근+-하-’>‘노랗다’>‘갈다’>‘많다’(없음)
 2. ‘x허다|x혜’형: ‘부사+-하-’>동사 ‘하-’(전북 없음)>‘어근+-하-’>‘명사+-하-’>‘노랗다’>‘갈다’>‘많다’(없음)
 3. ‘x허다|x히’형: 동사 ‘하-’>‘명사+-하-’=‘부사+-하-’>‘어근+-하-’(없음)>‘노랗다’>‘갈다’>‘많다’(없음)
 4. ‘x하다|x하’형: ‘어근+-하-’>‘부사+-하-’>‘명사+-하-’≈동사 ‘하-’>‘노랗다’>‘갈다’, ‘많다’(확인하기 어렵다.)
 5. ‘x하다~x허다|x해’형³³⁾: ‘어근+-하-’>‘명사+-하-’>동사 ‘하-’

33) ‘갈다’와 ‘노랗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부사+-하-’

6. ‘X허다|X해~X히’형³⁴⁾: ‘명사+-하-’>‘부사+-하-’>‘어근+-하-’

>동사 ‘-하-’(없음)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4)

1. ‘X하다|X해’형: 동사 ‘하-’> 접미사 ‘-하-’> 불규칙 용언³⁵⁾

> 규칙 용언

2. ‘X허다|X해’형: 동사 ‘하-’> 접미사 ‘-하-’> 불규칙 용언> 규칙 용언

3. ‘X허다|X히’형: 동사 ‘하-’> 접미사 ‘-하-’> 불규칙 용언> 규칙 용언

4. ‘X하다|X하’형: 접미사 ‘-하-’> 불규칙 용언> 동사 ‘하-’

(규칙 용언은 확인하기 어렵다.)

5. ‘x하다~x허다|x해’형³⁶⁾: 접미사 ‘-하-’> 동사 ‘하-’

6. ‘x허다|x해~x히’형³⁷⁾: 접미사 ‘-하-’> 동사 ‘하-’(없음)

34) ‘갈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무주뿐이고, ‘노랑다’는 없다.

35) 불규칙 용언 ‘노랑다’의 경우 ‘X하다|X해’형, ‘X허다|X해’형, ‘X허다|X히’형, ‘X하다|X하’형에 해당하는 활용 패러다임은 ‘놀하고, 놀하니, 놀해’, ‘놀히고, 놀허니, 놀헤’, ‘놀허고, 놀허니, 놀히’, ‘놀하고, 놀하니, 놀하’이다.

36) ‘갈다’와 ‘노랑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37) ‘갈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무주 뿐이고, ‘노랑다’는 없다.

6.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 ‘하-’, 접미사로 쓰인 ‘-하-’, 또 ‘하-’가 재구조화된 단어들의 지역적 활용 패러다임 분포를 살펴보았다.

동사 ‘하-’를 ‘하다|해’형, ‘허다|해’형, ‘해다|해’형, ‘허다|히’형, ‘하다|하’형, ‘하다|하’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하다|해’형은 동남부에서, ‘허다|해’형은 북서부와 남서부에서 실현되었다. 한편 ‘해다|해’형은 앞에 두 유형이 접촉하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허다|히’형은 전라북도에서 실현된다. 전라북도에서 ‘허, 히어’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지역어》를 이용해 반말체 종결어미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 히’는 반말체 종결어미에서만 아니라 다른 아-계 어미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하다|하’형과 ‘하다|하’형은 《지역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하다|하’형은 충청도에 많이 나타나며, 애아 연쇄의 변화에 의해 생긴 결과로 보인다. ‘하다|하’형은 《자료집》에서 반영된 것과 달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 ‘-으X’어미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활용형으로 보겠다.³⁸⁾

접미사 ‘X하-’도 위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지역적 분포는 동사 ‘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음어미 결합형에서 동사 ‘하-’보다 ‘허-’가 실현된 지역이 더욱 넓고, 전라북도에서 ‘히:’가 실현된 지역이 줄었다. 이는 비어두라는 음운론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어》에서도 ‘X하다|X하’형과 ‘X하다|X하’형이 보고되었다.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접미사 ‘-하-’의 활용 양상은 같은 자료에서 보고된 동사 ‘하-’와 비슷하다.

어간에 ‘하-’가 결합하여 재구조화된 단어로는 지금 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땀-’와 ‘갈-', 그리고 ‘ㅎ’ 불규칙을 하고 있는 색채어 ‘노랑-’를 살

38) 《자료집》에서 나온 ‘하다|하’형은 동사 ‘하-’나, 접미사 ‘-하-’과 불규칙 용언 3가지 부류에서 주로 전라남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평준화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펴보았다.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는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하-’의 모습이 찾기 힘들지만 아-계 어미 앞에 ‘Xㅏ-, Xㅑ-’ 외에 ‘ㅏ’ 불규칙과 같은 활용 양상도 보이고 있다. ‘노랑-’는 각 활용형이 다른 통시적 음운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하-’와 관련된 흔적으로 역시 아-계 어미 앞에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전라도에서 ‘하’형으로 실현된 유형이 있으며 충청도에서 ‘-ㄴ허-’와 결합해서 활용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지역어》에서 규칙 용언이 ‘하다|해’형, ‘허다|헤’형, ‘허다|히’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는데 주로 전라북도에서 나타난다.

동사 ‘하-’와 접미사 ‘X하-’, 그리고 재구조화된 ‘하-’는 전라남도에서 자음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기저형으로 평준화된 양상이 보이는데, 동사 ‘하-’가 이러한 양상이 가장 약하고, 접미사와 색채어에서 보다 많이 발견된다. 접미사의 경우 X가 어근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동사 ‘하-’, 접미사 ‘-하-’, ‘하-’와 관련 용어의 활용 양상 분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1. ‘x하다|x해’형: 동사‘하-’>접미사 ‘-하-’>불규칙 용언³⁹⁾>규칙 용언
2. ‘x허다|x헤’형: 동사 ‘하-’>접미사 ‘-하-’>불규칙 용언>규칙 용언
3. ‘x허다|x히’형: 동사 ‘하-’>접미사 ‘-하-’>불규칙 용언>규칙 용언
4. ‘x하다|x하’형: 접미사 ‘-하-’> 불규칙 용언> 동사 ‘하-’

(규칙 용언은 확인하기 어렵다.)

5. ‘x하다~x허다|x해’형⁴⁰⁾: 접미사 ‘-하-’> 동사 ‘하-’
6. ‘x허다|x헤~x히’형⁴¹⁾: 접미사 ‘-하-’> 동사 ‘하-’(없음)

39) 불규칙 용언 ‘노랑다’의 경우 ‘X하다|X해’형, ‘X허다|X헤’형, ‘X허다|X히’형, ‘X하다|X하’형에 해당하는 활용 패러다임은 ‘놀하고, 놀하니, 놀해’, ‘놀히고, 놀히니, 놀헤’, ‘놀히고, 놀히니, 놀히’, ‘놀하고, 놀하니, 놀하’이다.

40) ‘갈다’와 ‘노랑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41) ‘갈다’는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이 무주뿐이고, ‘노랑다’는 없다.

참고문헌

- 고광모(2009), VjV축약에 대하여: ‘바얌>뱌뱌’ 형과 ‘바얌>뱌뱌’형의 두 갈래 변화, 《언어학》 55, pp. 129~168.
- 고영근(2015),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제3판)》, 집문당.
- 郭忠求(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y系 二重母音과 ə>wə 變化를 中心으로, 《方言》 6, pp. 27~55.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경표(2013),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모(1991), 부산 동래 지역어의 특성, 《韓國文化研究》 4, pp. 167~190.
- 김성규·정승철(2013), 《소리와 발음(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환(2012),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아름(2008), 국어의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2011),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 활용·곡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國語學》 36, pp. 97~131.
- 金完鎭(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pp. 127~139.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 김차균(1971), 불규칙용언 연구, 《한글》 147, pp. 58~120.
- 金玄(2004), 母音推移의 原因과 音韻 資質, 《冠嶽語文研究》 29, pp. 169~187.
- 김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國語學叢書 54, 太學社.
- 김현(2016), 비고모음의 활음화, 《方言學》 23, pp. 9~29.
- 문양수(1977), 국어의 불규칙활용에 관한 음운론적 연구, 《弘大論叢》 9, pp. 5~33.
- 朴光鎬(1983), 瑞山地域語의 形態論的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17, pp. 59~92.
- 朴明淳(1984), 忠北 陰域地域語의 音韻研究: 音韻變化를 中心으로, 《西原大學 論文集》 13, pp. 9~38.
- 朴明淳(1986), 居昌地域語의 變則活用に 對한 研究 -p, s, t, jə 및 li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을 中心으로, 《청주사대 논문집》 18, pp. 9~40.
- 朴善佑(2005),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pp. 223~249.
- 박종호(2010), “X하다”의 결합 유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84, pp. 321~339.
- 박종희(2001), 중세국어 활용형 ‘햐[爲]’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국문학》 128, pp. 5~28.
- 배영환(2012), ‘햐[爲]’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82, pp. 47~73.
- 배주채(2000), 불규칙활용, 《새국어생활》 10, pp.163~169.
- 배주채(2013), 《개정판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白斗鉉(1989),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太學社.
-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音韻史의 高찰: 母音論, 《韓國文化》 20, p. 1~47.
- 성인출(1997),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韓民族語文學》 31, p.

- p. 35~53.
- 宋喆儀(1995), 曲用과 活用の 不規則에 대하여, 《震檀學報》 80, pp. 273~290.
- 宋喆儀(2004), ‘ㅎ’變則과 ‘어’變則에 관련된 몇 가지 問題, 《朝鮮語研究》 2, pp. 213-236.[송철의(2008)에 재수록].
-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 安秉禧(1962), 中世國語 動詞 『ㅎ-』의 語幹 交替에 對하여, 《文湖》 2, pp. 18~24.
- 安秉禧(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 安熙濟(2006), 本용언 형용사 ‘하다’의 선행성분에 對하여, 《國語學》 48, pp. 145-174
- 이광호(1985), 동사어간 ‘하-’의 음운현상, 《어문학논총》 4, pp. 99~116.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太學社.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修訂增補版)》, 태학사.
- 李相信(1983), 長水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상신(1998), VyV 연쇄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신(200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문화, 《冠嶽語文研究》 27, pp.385~407.
- 李崇寧(1988), 《李崇寧國語學選集(3)-音韻篇Ⅲ》, 民音社.
- 李翊燮(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 《震檀學報》 34, pp. 97-119.
- 이진호(2015), 《국어음운론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혁화(2007), ‘애아’ 모음 연쇄의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기술, 《국어국

- 문학》 146, pp. 353~383.
- 李賢熙(1985), ‘ㅎ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 누러ㅎ다類와 엇더ㅎ다類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pp. 221-247.
- 李賢熙(1986),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ㅎ-’의 性格에 대하여, 《國語學新研究若泉金敏洙教授 華甲紀念》, 塔出版社, pp. 367-379.
- 李賢熙(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韓國文化》 15, pp. 57~81.
- 윤예진(2016), ‘하-’의 어간교체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全哲雄(1983), 不規則 用言의 基底形 設定에 관한 一考察, 《국어교육》 44, pp. 303~314.
- 정광(1986), ‘하-’ 동사 활용의 음운론적 해석, 《國語學新研究》(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 탑출판사, pp. 114~125.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2002), 국어 활용어미의 방언 분화, 《국어학》 39, pp. 201~220.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인호(1999),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韓國文化》 24, pp. 61~80.
- 鄭仁浩(2006), 제2음절 이하의 ‘ㅇ’ 變化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101, pp. 341~357.
- 趙恒瑾(1986), 清原地域語의 構造에 關한 研究-音韻體系를 中心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 方言 研究-盈德郡 寧海面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출판부.
- 崔明玉(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崔明玉(1988),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li-, læ-, ε(jə)-, h-變則動詞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24-1, pp. 41~68.
- 崔明玉(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형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 2

- 4, pp.599~642. [崔明玉(1998)에 재수록].
- 崔明玉(1995), ‘X |]vst어Y’의 音韻論, 《震檀學報》 79, pp. 167~190.
- 崔明玉(1998),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 崔範勳(1966), 變則活用の 原因考察, 《한국어문학연구》 4, pp. 53~80.
- 최전승(1992), ‘르’와 ‘러’ 불규칙용언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몇 가지, 《국어학연구백년사》3, 一潮閣, pp. 687~705.
- 최전승(1998), 문헌자료에 반영된 음운론적 변이(變異)의 과정과, ‘하여(爲)>해’의 음성변화, 《국어교육》 96, pp. 339~358.
- 최전승·김홍수·김창섭·김중진·이태영(1992),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19, pp. 49~14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正音社.
- 韓成愚(1996), 唐津 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균(1990), 불규칙활용,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pp. 157~168.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2010), 《넓은풀이 우리말 방언 사전》,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 방언연구회(2001/2003), 《方言學事典》, 태학사.
- 신기상(2014), 《울산방언사전》, 북스힐.
- 이기갑, 고광모, 기세관, 정제문, 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 이진호·최영선·이수진·선한빛(2015),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 박이정.
- 崔鶴根(1990/1994), 《增補韓國方言辭典》, 明文堂.

<中文摘要>

关于现代韩语中‘하-’的活用用法的研究

张遥慈

首尔大学

研究生学院

国语国文系国文学

本文以韩国的方言资料为基础，研究了现代韩语中动词“하-”，及接续词“-하-”和与“하-”有关的用言的活用用法、地理分布及其演变过程。

第二章中整理出了动词“하-”的活用类型，并将其分为“하다|해”型、“허다|헤”型、“해다|해”型、“허다|히”型、“하다|하”型、“하다|하”型，共6大型。通过观察各类型的地理分布，可以得出以下特征：“하다|해”型是主要类型，分布在韩国的东部；“허다|헤”型主要出现在忠清南道；“해다|해”型主要集中在以江原道原州为中心的地区；“허다|히”型主要出现在全罗北道；“하다|하”型只出现在忠清道；“하다|하”型主要出现在忠清道。同时，也讨论了各类型出现的原因。

第三章中根据接续词“-하-”前面的成分性质将其分为了“名词+하-”、“副词+하-”和“语根+하-”三类。研究讨论了各类的活用类型、地理分布和变化过程。接续词“-하-”的活用类型和动词“하-”一样，地理分布也很相似，两者产生不同的原因在于接续词“-하-”位于非语头，而动词“하-”位于语头。

第四章讨论了与“하-”有关的用言的活用类型、地理分布和变化过程。根据活用时是否为规则活用，将其分为规则活用用言和不规则活用用言。规则用言包括“땀다”、“같다”、“않다”、“귀찮다”、“편찮다”，不规则用言有“노랳다”等色彩词。不规则用言的活用用法比规则用言的复杂很多。最大的共同点是“C허다|C헤”和“C허다|C히”型均只出现在全罗道。

第五章对动词“하-”、接续词“-하-”和与“하-”有关的用言的各类型进行了地理分布上的比较，并讨论了其之间的共同点和不同点。

关键词：动词“하-”、接续词“-하-”、많다、같다、노랗다、活用用法、地理分布、变化过程

学号：2014-25102